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6 1 | 2



어린이 권리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가 아닌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나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통권 108호 2006년 1/2월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

펴낸이 서은희 | 목은이 이강선주, 류지민, 이성봉, 김희정

펴낸날 2006년 2월 22일

2	여는 글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했던 20년이었습니다.	서은희
보육활동			
4	아동교육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하여	조선경
12	평등 7계반 보육기	마지막 이야기	김영신
23	좋은 그림책소개	얘들아, 옛이야기 들어 볼래?	이지영
중앙활동			
27	활동보고	한국보육교사회 마지막 정기총회 보고	편집부
29		해산총회를 끝내고	
특집			
35	1- 우리네아이들 이 지나온 길		편집부
37	2- [다시 보는 우리네아이들]		편집부
기타소식모음			
147	활동일지		
148	후원에주셔서 감사합니다		
150	편집후기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했던 20년이었습니다.

서은희 · 공동대표

2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동안 우린 서로를 의지하며 이 세상 모순으로 인해 생겨난 차별과 소외와 불평등을 보육현장에서 해소해 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 고민 없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마다하며 우린 새로운 대안과 실천을 위해 힘쓰며 살았습니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만난 동료와 선배들이 이제는 중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나이를 먹으면 그 만큼의 연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인생에서 몇 번의 변화 시점이 있는 것처럼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이가 중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무게 있게 고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조직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한국보육교사회로, 한국보육교사회에서 전국보육노조 결성이라는 두 번의 커다란 변화를 맞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무게 있는 고민을 04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총회에서 우린 한국보육교사회의 해산을 의결하였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회를 통해 만나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함께 실천했던 우리들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20년의 세월을 함께 했던 선배들과 동료, 후배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가장 치열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기에 기억 속에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가난과 사회 모순 때문에 고통 받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해 동동거리며 달동네 좁은 골목길과 공단 셋길로 뛰어다니던 그때의 그 열정은 지금도 우리들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한국보육교사회 역사와 함께 해 왔던 '우리네아이들'도 이번 호를 끝으로 마감합니다. 우리네아이들은 이 땅의 아이들이 나만의 당신만의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임을 놓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와 올바른 보육정책개진과 대안 제시, 보육철학에 대한 고민 등을 주 내용으로 삼고 격월간 꾸준히 발행해 온 우리의 소중한 소식지였습니다. 우리네아이들에서 교사인 우리는 조연이 아닌 주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식지나 잡지에 비해 파끈파끈했고,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우리네아이들'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우리네아이들을 통해 나누어왔던 그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우리네아이들로 태어나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는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회에 쏟았던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한국보육교사회와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하여

조선경 · 교육위원, 이웃사랑어린이집 원장

2005년은 나와 우리 이웃사랑어린이집에게 있어 “평가인증의 해”였다.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현장관찰자 파견 일까지 하루도, 한시도 평가인증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지 않은 순간이 없었을 정도로 고민하고, 몰두하고, 애 쓰던 날들이 이제는 벌써 아련하기만 하다.

하지만 힘들었고, 고생스러웠던 만큼,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만 같은 좌절감에 시달렸던 만큼, 그 보람과 감격도 컸으며 수고의 땀방울이 참으로 값지다는 것을 교사들과 함께 몸으로 체험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1. 평가인증의 성과

평가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길고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얻은 것은 참으로 많다. 이 중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질 높은 보육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배웠다. 7개영역의 80가지 항목 모두가 준비하느라 힘이 들기는 하였지만, 지침서를 읽고 또 읽으며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차근차근 보충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수한 실재를 위해 노력하였다. 운영관리, 건강, 안전, 영양, 위생, 상호작용, 보육환경, 보육과정,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어느 하나도 보육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지침서의 내용은 처음에는 너무 이상적이며 현실성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문항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유익하며, 보육에 있어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개별 휴식공간의 마련, 통합적인 일과운영, 영역활동의 강조, 매일 1시간 이상의 실외놀이 시간과 2시간 30분 이상의 자유선택시간의 확보, 보육과정평가, 낮잠시간확보, 친사회적 활동, 영유아를 존중하는 교사의 말과 행동... 이 모든 문항들은 중요한 줄 알면서도 현장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잘 지키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처음 교사들의 자체평가에서 얼마나 혹독한 점수가 나왔는지... 거의 모든 항목이 부적절한 실재(1점)거나 부분적으로 우수한 실재(2점)였었다. 그러나 그 많은 문항들과 개선을 위한 씨름을 하기를 수개월, 최종 자체점검보고서에서는 몇 문항을 빼고는 다 3점, 우수한 실재로 채울 수 있었다. 그러하기에 평가인증은 처음부터 질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준비과정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두 번째, 평가인증준비를 통해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역량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준비 초기에 영역별(상호작용, 보육과정, 보육환경, 건강 안전 4개팀)로 팀을 나누고 팀장을 세워 지속적인 중간평가를 하며 그 주간에 할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게 하였는데, 팀장들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였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며 영역별 항목의 점수를 높여가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매일 저녁 퇴근해서까지 서류양식을 만들고, 보육환경과 과정의 평가표를 만들어서 돌리며, 상호작용 공부할 자료를 복사해서 읽고 세미나하고..... 정말이지 팀장들 없이 원장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던, 선생님들 안에 잠재되어있던 능력들이 여러 가지 색깔로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전체주임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경험하게 되었다. 차분하게 교사들을 독려하며 한 가지씩 실행하도록 조직화하는 힘이 평가를 준비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세 번째, 보육시설평가인증은 원장으로서, 교사로서 자신을 단련하고 새롭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교사가 애쓰고 헌신하는 만큼 어린이집이 좋아지고, 아이들을 위한 보육환경이 개선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해야 할 일은 늘 산적해있고, 12시간 보육의 하루하루는 피곤하기만 하고, 내가 굳이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그냥 접어두고...

그러나 평가를 준비하며 어린이집이 나날이 바뀌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새롭게 바뀐 환경에 반짝이는 눈빛으로 호기심을 발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해 온 것인가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면서 편안해지고자하는 관성을 스스로 깨트리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겠구나 하고 다짐하게 되었다.

네 번째, 개별시설이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작업이 중요하다. 인천시는 다른 시도와 달리 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전문 조력가를 파견하였는데 조력 받은 시설들은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우리 원에는 총 3일간 한 두달 간격으로 조력자가 파견되었는데 조력자의 눈은 예리하였고 특별히 교실 활동영역을 재배치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공급해주었다. 무엇보다 조력자 파견에 앞서 교사들이 미리 준비를 하게 된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다. 완벽한 준비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원을 살펴보면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한 것이 눈에 띄게 1련이다. 이런 환경에서 수 회에 걸친 조력자 파견은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게 하여 너무 압박해서 준비하느라 지쳐버리지 않도록 조절을 해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2. 평가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제언할 점들

다음은 평가를 받으면서 개선되었으면 하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보육교사업무과중

먼저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과다한 업무가 부과될 수 밖에 있는데 이는 현재도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작용될 수 있다.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막중한 책임으로 시달리는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을 통과해야만 앞으로 살려주겠다는 식의 반 강제에 어찌할 수 없이 참여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높은 교사 이직율이 평가인증으로 인해 더 높아지거나 앓을까 우려가 된다. 어떤 시설에서는 10명 이상의 교사가 평가인증을 이유로 동시에 이직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현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나? 교사들은 수시로 바뀌고, 남아있는 교사마저 산더미 같은 서류와 회의, 피곤에 지쳐서 아동보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딜레마는 아닌지.

아울러 불필요한 문서 서식들, 수도 없이 많은 각종 점검표는 꼭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일률적인 기준의 강요

평가인증의 항목을 보면 유아교육 교과서를 베껴놓은 것 같다. 또 어떤 항목을 보면 이견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님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서 만들어진 것만 같은 항목도 있다(지역사회협력). 발도르프나 공동육아, 레지오에밀리아, 생태교육 등 분명한 자기 색깔과

철학을 가진 보육시설마저도 한 가지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재어지며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일과나 영역, 활동)은 잘라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보육현장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쉬운 현실인데 평가인증의 기본 틀이 이러한 현상들을 더욱 부채질할 것 같다.

☞ 인증통과 기준점수에 대하여

호기있게 시작되었던 평가인증은 대다수의 신청시설이 인증에 통과하면서 이 빠진 호랑이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2005년도 평가인증통과의 기준점수가 너무 낮아서(2.1점) 평가인증의 기본목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는지를 문제제기하고 싶다. 2.1점이 0점에서 시작하여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수 치상으로 계산할 때는 70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점수의 1점은 부적절한 실례로서, 2점이 부분적으로 우수한 실례로서 설명되고 있는 지침서의 내용을 볼 때 2.1점의 의미는 100점 만점 중 10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평가인증이 우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부가 그 질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할 때, 이런 정도의 낮은 점수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 또 대부분의 참가시설이 평가인증에 통과했다는 사실은 보육시설이나 보호자들로부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본다. 많은 보육시설 특히 민간시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준점수를 낮게 책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리고 앞으로 통과 기준점수를 높여가겠다는 의도를 밝힌다하더라도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기준점수는 앞으로의 평가인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평가자체보다는 평가에 관련된 교육과 조력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 시설관리, 서류관리, 보육과정운영 등 시설장과 교사가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는 재정이 필요한 사업이고, 이 부분은 각 시설이 자체 교육을 통해 알아서 하라거나, 1, 2회 정도의 조력 집단이 와서 코멘트 해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시설장과 교사가 평가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조력을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조력 사업은 평가를 받는 모든 시설에 꼭 거쳐야 할 단계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시군구 단위의 보육정보센터가 하고 있는 정도의 조력사업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

☞ 소규모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

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본다. 통과한 시설에 대한 인센

티브보다는 통과하기에 기본적인 한계를 갖는 시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삼성, 근로복지공단 등의 법인시설, 규모가 큰 민간시설은 물리적 시설이나 기본적인 환경, 교사 여건에서 많은 잇점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지원시설과 자본을 어느 정도 투자할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민간보육시설을 제외한 많은 수의 미지원 보육시설의 경우, 기본적인 운영의 어려움, 낮은 교사처우로 좋은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여러 조건이 열악하다. 기기에다 평가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힘들고 평가를 받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했듯이 평가인증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러한 시설을 도와서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 혹은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 인증서가 아닌 인증패를, 평가인증수수료는 국비로.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서와 시계가 아닌 인증패가 수여되는 것이 마땅하다. 개별시설에서 인증패를 자체 제작하여 게시하는 것은 평가인증통과를 위해 1년간 매진하였던 시설의 입장에서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시설에서 평가인증을 준비하며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생각할 때 평가인증 수수료는 시설부담분을 줄이고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홍보

보육시설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평가인증을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정작 학부모나 국민들은 평가인증에 대하여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아쉬웠던 일이 많다. 신문이나 TV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통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꿀꿀이죽 사건과 같이 보육시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만을 크게 기사화할 것이 아니라, 2005년의 평가인증서 수여식이 더 크게 보도되었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3. 앞으로 평가를 받을 시설들을 위하여

1) 준비할 핵심 내용들

평가를 받을 시설들은 아래의 항목들을 집중하여 준비할 것을 조언하고 싶다.

○ 평가인증지침서 연구

○ 교사 조직화 영역별 팀장 세우기, 업무 분담하기

○ 회의구조 마련

○ 대청소 및 안 쓰는 물건 버리기 정리정돈

○ 환경정비

○ 외부 관찰자 조력자 구하기

○ 상호 평가 조력하기

○ 자체평가

○ 평가를 위해 준비해야할 문서들

- 교사 관리 문서: 보육일지, 반별안전점검일지, 아동관련서류(생활기록부, 건강관리서류, 발달체크리스트, 아동관찰일지, 부모상담일지, 귀가동의서, 응급처치동의서 등), 현장 학습일지(지역사회 이용활동 월 1회 이상, 일상생활관련활동(월 2회 이상), 투약의뢰서
- 원장 관리 문서: 예결산 회계관련서류, 운영위원회관련철, 지역사회연계
- 기타 담당서류: (소방훈련일지(월 1회 이상), 차량안전점검일지, 소독 등)
- 주임교사 관리 문서: 행사철(모든 행사에는 기획서와 보고서, 평가서가 같이 첨부되어야 한다.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긴다.)

교사교육 연간계획서, 교사교육보고서, 교사교육 일람표

「그 외 갖추어야할 서류들」

- 도움이 필요한 아동, 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기록: 시설운영일지, 면담일지, 기관연락처 등
- 친구, 놀잇감 세척 - 보육일지에 기록
- 안전점검일지 - 보육실내 안전점검일지(매일), 실외시설(정기, 즉 주 1회나 월 1,2회), 화장실과 세면장, 조리실, 보육실 외 실내시설, 설비(정기 점검-당직일지 뒷면), 차량안전점검일지(차량 당직자용, 운전자용) 정수기 필터관리표
- 안전교육일람표(아동용, 교사용 교육 별도)
- 부모용 교육자료(전염병 및 건강관리, 안전관련)
- 월간 식단표, 주부식주문서

○ 끝까지 행겨야 하는 영역과 항목

질 높은 상호작용, 기본생활습관, 친사회적 행동, 보육일지

2) 평가인증 월별 준비 일람표 (2006년)

	원 전체 준비·행사		유의사항
1월	평가인증지침서 구입		
2월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 - 원운영 안내지: 시설의 보육철학, 보육과정, 운영방침 안내 -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귀가동의서, 응급처치동의서), 인계과정, 보육시설의 책임과 한계 알리기(보험관련). - 적응기간 설명 -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제시, 질병에 걸린 영유아를 위한 조치	시설에 대한 주요 정보: 보육방침, 보육시간, 연령별 집단 크기와 교사 수,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과 경력 등을 제공해야 함.	환경정비: 도배, 장판, 도색, 전기(2월에 여건상 못했을 경우 여름방학을 이용한다)
	새로운 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사 외에 취사부, 운전 기사에게도 실시	연간 보육계획안의 수립 3월 계획안
	교사 업무분장 종사자 근로계약서, 복무규정	담당 직원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	
3월	평가인증 신청(2기) 신입아동 적응기간(보육일지나 별도 서류) 반별 운영 설명회 및 학부모 간담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1차 내부평가
4월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개별 부모면담 교사용 참고자료 구입(1차)		대청소(창고 정리) 교실환경평가
5월	건강검진(아동, 직원) 상반기 부모교육		교재정리 보육과정평가
6월	부모참여수업 교육실습생 오리엔테이션		도서정리 상호작용 평가
7월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교사용 참고자료 구입(2차)		비품, 소모품 정리 2차 내부평가

	원 전체 준비·행사		유의사항
8월	상반기 학부모 만족도 조사(선택)		대청소(학부모)
9월	2차 건강검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제출 하반기 부모교육 제 2차 운영위원회(선택)	하반기에 입소하여 건강검진에 빠진 아동이나 교사가 있는지 체크	안전관련 환경정비: 타일깨진 것, 안전바 설치, 모서리 코너보호대 설치 상호작용 교육 및 평가 3차 내부평가
10월	현장관찰자 파견		대청소(학부모)
11월	하반기 부모 면담(소그룹)	교사 위로회	
12월	평가인증 결과 발표		

4. 글을 마치며

앞으로 몇 년간 한국의 보육계는 평가인증으로 들쭉거릴 것 같다. 아무쪼록 이 제도가 잘 정착하여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좋은 보육환경의 마련으로, 일하는 시설장과 교사들에게는 외부(현장관찰자, 국가, 학부모,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아 일할 맛 나는 보육의 현장으로 탈바꿈하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 이야기

강영신 · 회원

11월은 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 한동안 정신없이 지냈다. 좁은 공간에 영아 유아 나누어져 생활은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 전용 공간이 아닌 시설이라 화장실부터 씻는 문제, 밥 먹는 문제, 낮잠까지 한 달을 안전, 안전, 안전에 온통 신경을 쓰고 아이들과 일상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달이었다.

1월은 새해이야기, 학교 가는 이야기, 나의 2주간의 연수 때문에 분주했다. 여기서는 12월 한 달 동안 아이들과 지낸 활동을 기록해 보았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억할 수 있고, 자료로 남을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떠주는 스웨터 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또 내가 해보기 재미있고 좋아 아이들과 함께 해보기로 했다.

♣ 실뜨기에서 해보내기 방법까지 ♣

2004년엔 교사가 염색하고 남은 광목천으로 줄넘기 줄을 만들어 주어 마당놀이 시간에 많이 이용하여 놀았다.

또 다양한 실을 많이 얻어 하기 초에는 실로 바느질을 주로 하다가(벽지에 바느질하기, 주머니 만들기, 한복 천으로 치마 만들기 등) 약간 굵은 실이 있어 손뜨개를 해보았다. 한 줄로 길게 떠서 실뜨기도 하고 목걸이 줄도 만들어 사용했다. 아이들이 재밌게 잘 뜬다. 한 줄은 약간 얇아 줄넘기 줄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도 아이들은 잘한다. 세 줄을 합쳐 실뜨기를 해보기도 했다. 처음엔 내가 일일이 실타래를 감아 실뜨기를 했는데 한번 풀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 11월 29일 (3인1조 되어 실 감기)

내가 앉아 양 발에 실을 걸고 손으로 감으니까 신기한가 보다.

2사—하고 실은 친구 3명 천에 하나 한명은 실을 양손으로
끼고 2명은 감기야



3인1조 되어 실 감기

아이들이 처음 실 감는 게 어렵다고 해서 조금 감
아주었더니 잘 한다. 유미는 무조건 실만 감으려고
실을 잡아당겨 많이 엉켰다. 나중에 안한다고 했다.

현민이 더 하고 싶다고 한다. 현민이에게 친구 2명을
더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친구들에게 가더니 '나랑 같이하자. 나랑 같이 하자 하면서 친구들
에게 일일이 물어본다.

관호는 엄마가 오셨는데도 안가고 계속 줄넘기를 만든다.

※ 11월 30일

아침에 일찍 온 가람이가 오자마자 줄넘기 줄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나중에 자세히 보니
다른 아이들과 다른 방법으로 빠르게 만들고 있다. 한쪽 다리로 줄넘기 줄의 끝을 잡고, 두 손
으로 한다(보통 아이들은 무릎위에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줄이 험렁험렁해 잘 잡아당기지 못
하기도 했다).

은수가 집에 가서 아빠한테 세 줄로 줄넘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빠는 새끼줄로 만들었
다고 이해를 하셨는지 이상하다고 자꾸만 물어보아 설명을 하니 그때서야 새끼줄이 아니라
세 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전한다.

어제 다 만든 영원이 친구들한테 설명을 잘해 준다.

영원—“엄지와 검지로 고리 속에 손을 넣고 잡아당긴 후 고리가 크면 고리 끈을 잡아당겨”

점심 먹고 마당놀이 못해 줄넘기에 관한 것(줄넘기 하는 것, 줄넘기 만드는 것)을 그려 보기
로 했다.

* 12월 1일

야외수업 나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비가 와서 못하고, 내일 점심 먹고 나가기로 했다.

문수—선생님 나 몇 개 하는지 물어 봐요.

은수는 혼자 하는 줄넘기를 126개하고, 최정이라도 80개를 했다.

아이들 서로 세어달라고 하는데 영원이 세어준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숫자를 세는데 아이들 줄넘기 속도와 상관없이 세고 있다.

장판 바닥이 미끄러워 줄넘기 할 때는 양말 벗고 하기로 했다. 양말 신기 싫어하는 최정이는 너무 좋아한다.



* 12월 2일(해보내기 밤 발표 줄넘기)

교사—우리 이밖에 해보내기 밤하는데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줄넘기요.

교사—줄넘기만 해?

아이들—아니요 줄넘기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요.

관호—난 가운대서 하는 거요.

교사—근데 줄넘기만 너무 많지 않아?

아이들—그럼 명명은 꼬마아 꼬마아 들어가서 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교사—그래 그럼 내가 '누구누구 하세요' 할 수 없으니깐 그냥 연습해봐.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은수는 영서와 줄넘기가 잘 돼서, 집에서 매일 영서 이야기만 하고, 영서가 좋다고 한다. 다. 아이들이 줄넘기 연습을 한다.

* 12월 12일

수요일 날 해보내기 밤에 하고 싶은 것을 해보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다 잘한다. 줄넘기로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교사—우리 해보내기 밤에 친구들이 하고 싶은 줄넘기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다 잘하는데 한 번에 다 하면 사람이 너무 많은 한 팀은 줄넘기 하고 한 팀은 노래 부르면 어떨까?

* 12월 13일(해보내기 밤에 동네 어른들 초대하는 초대장 만들기)

동네 사람들 와 주세요. 꼭 와.

평동어린이집에 초대합니다. 평동어린이 집에 꼭 와주세요.

시간있는 사람은 와주세요.

꼭 와주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해보내기 밤에 와주세요.

평동어린이집에 초대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와주세요. 장날때만 가세요.

동네사람들 평동어린이 집에 초대합니다. 꼭 와주세요. 재미있으니깐 와주세요.

* 12월 14일

오늘 드디어 해보내기 밤이다

아이들은 종일 연습만 한다. 그만 하자고 했다.

발표는 하고 싶은 친구들 8명만 했다.

대균이는 이날 의자에 앉아 줄넘기 만드는 시범을 보였다. 대균이 엄마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날 쌍둥이 동생인 대경이는 나와 함께 줄만 돌렸다. 대균이 엄마가 나중에 친구들은 줄넘기 발표를 하는데 넌 줄만 만들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균이는 줄 만드는 게 더 재미있다고 했다.

== 줄 속에 줄 ==

나와 대경이 줄을 돌리고, 재성, 관호, 윤호가 차례로 나와 돌리는 줄 속에서 각자 줄넘기를 한다

== 22주 ==

둘이서 마주보고 돌리기--영서, 은수
둘이서 마주보고--대경, 영원
둘이서 서로 손잡고 하기--영서, 은수

== 개인게임 ==

재성--엑스자로
은호--한발로
관호--왼쪽 오른쪽 하고 돌리기
영원--한발로 하기

== 꼬마아 꼬마아 ==

나와 대경이가 줄을 돌리고 밖에서
영서, 은수, 은호가 차례로 들어와서
하는데 너무 잘한다.

대보내기 밤에
나쁜척 하고 노래 불러서 좋아다
그리고 내가 많이 연습하면 걸보 예준이
줄을 돌릴 다 얼마만 바바바 좋아다
엄마가 감동했다고 해줘서 좋다
나미소망도 해줘서 좋아다
서명 은수

[해보내기 밤]
종남기르해석중이다
어제 가워표하고중속에서중남기르해
줄 있었다 바이올린을쳐서조 있었다
엄마가 와서조 있었다그런대어바가안왔다
그래서기분이 별로안조 있었다그런대어바가안왔다
있었다그리고엄마가 잠해했다고 칭찬해주었다
최재성

해보내기 밤에 종남기한 재성, 은수의 글

이상과 같이 실패기부터 해보내기 밤까지 과정을 길게 적어보았다.

읽는 사람은 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일상적인 자유놀이 시간의 모습을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참 좋았다. 간혹 발표회용으로 연습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민스럽다. 보육활동의 내용들이 그냥 지나가는 일회성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 녹아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

♣ 조각보 만들기 ♣

* 12월 5일

아이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면서 2조각부터 8조각까
지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조각하고 줄하고 헛
갈려 한다. (2조각이면 줄을 1개만 그려야 하는데 2개를
그려가지고 온다)

대부분 아이들이 대각선과 가로 세로로 칸을 나누었다.
종이에 이름을 써오고 한복 천을 대충 잘라 주고 마음
에 드는 색을 골라 오라고 했다.

바늘에 일일이 실을 꿰어 끝에 매듭을 지어주고, 가지고온 천에 첫 한 뼘을 떠 준 후 바느질
해가지고 오라고 했다. (크기, 색상이 다 다양하다) 아이들이 잘 못 할 것 같아 천에 바느질 받
을 뜰 선을 네임펜으로 그어주었다.



* 12월 6일

어제 2조각 잇기를 다 못한 아동들과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 사이에 정신이 없다. 바늘을 옷
에 꽂아놓으니까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한다. 일부러 머리로 바늘로 긁어 보았더니 할머니 같
다고 한다.

은수와 가람이가 편지를 써가지고 왔다.

가람--나무14절에게

나무14절 사랑해요 나무14절 건강해요, 나무14절 행복해요, 나무14절 바느질이랑줄리기 드니까
재미있어요 나무14절 오라오라하하하 나무14절 내일 목도리 뜨기해 고마워요

은수--사랑해요 건강해요 은수가 좋아하는 거 알려 바느질도 즐거워요 바느질도 많이 많이 해요

* 12월 7일

처음부터 무명실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를 하다가 힘들어 무명실로 바꾸어 주었다.

영서와 관호는 실에 바늘을 꿰 줄 안다.

오전간식 먹자마자 바느질 하자고 한다.

아침에 영서가 오더니 아빠한테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왜 유치원선생님 되고 싶냐고 물어보니, 매일 줄넘기하고 바느질해서 좋다고 한다.

일일이 바늘 귀 끼워주고 묶어주고 한 번씩 떠주고 정신이 없다.

조각이 점점 늘수록 하는 일도 바빠졌다.

※ 12월 16일

조각보는 마무리 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만든 조각보를 보며 교사 대 아동수가 지금보다 더 적거나, 보조 인력이 있거나 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종이에 그려온 조각과 실제로 한복 천으로 만든 조각의 모양은 좀 다르다 2,3조각은 주로 대각선 가로, 세로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 목도리 뜨기 ♣

※ 12월 7일

교사—선생님이 오늘 실사 가지고 내일 가지고 볼 건데 우리 거를 내내 목도리 뜨자.

아이들—잘 못하는데요.

교사—당연하지 못하는 거 선생님은 처음부터 걸렸나? 열심히 하면 돼. 틀리면 다시 하지 뭐.

※ 12월 8일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으로 야외수업을 갔다. 차에서 시간이 많을 것 같아 목도리틀 것을 가지고 갔다. 맨 뒤에 앉아 목도리를 뜨면서 옛날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신기한가보다. 일론 목도리 뜨자고 한다.

※ 12월 9일

가람이가 편지를 써가지고 왔다. 목도리 빨리 뜨자고, 그리고 바느질해서 좋다고.

※ 12월 19일

미리 사온 10가지의 색을 원하는 색으로 2명씩 나누었다.

대바늘에 20코씩 코를 다 잡아 주었다.

교사—이거를 코라고 하는데

관호—코요 (자기의 코를 가리킨다)

마주보고 하니까 아이들이 보는 방향이 반대라 무릎에 앉히고 설명해 주었다.

관호는 집에서 미리 실 사다가 목도리 뜨기 한다고 했다.

비닐봉지에 이름을 써서 대바늘과 실을 넣어 서랍에 넣어두고 하고 싶을 때 꺼내서 하자고 했다.

영서—엮어지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코를 묶어주기니까 코가 줄어들면서 엮어지는 것 같다고 한다)

가람이는 엄마가 집에서 하는 것을 늘 봐서 그런지 썩 잘한다(모자, 목도리 잠바를 엄마가 다 떠주었다).



※ 12월 19일

신혜이는 어제 안 왔는데, 한번 가르쳐 주니까 잘 한다.

봉기—나 잘하고 싶다.

생각보다 잘 안되나 보다. 다시 설명을 해주었는데 한참 하다가 안 한다. 왜 안하냐고 물어보니 반만 까먹었다고 한다. 다시 설명해 주었더니 잘한다.

영원이는 어제 잘 했다고 칭찬해 주었다. 오늘은 잘 못하는 친구에게 설명해 주라고 하니까

큰 소리로 "나 보고만 자꾸 가르쳐 달래"한다. 영원은 어제 집에 가면서 실을 샀다고 한다.
은수는 어제 오후 저녁자유놀이 시간에 열심히 했나보다. 그런데 하다가 실이 엉켜서 당직
이었던 선생님이 실을 다 풀고 다시 한 뼀 정도 해주었다고 한다. 오늘 목도리를 잡고 가만히
있다가 운다. 왜 울고 있나 보니, 내가 아이들에게 해준 것은 안뜨기만 해주었는데, 당직 선생
님이 다시 떠주시면서 안뜨기 겹뜨기를 순서대로 해주셔서 어려워서 못하고 울고 있다. 다시
풀어서 안뜨기만 해주었다.

교사—떠들하는 데 힘들어요? 재미있어요?

신헌—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마당놀이 시간에 목도리를 가지고 나가서 뜨개질을 하니 가람이가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한
다. 추워서 안된다고 해도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럼 가지고 나오라고 했더니 정자에 앉아
한다.

기태—이거 떼서 누구 줄래요?

교사—와요?

기태—그거 우리 엄마 줘요.

교사—나도 우리 엄마 줄 텐데 기태가 떼서 엄마 주면 되잖아

기태—나도 못해요

(이날 내가 뜬 목도리는 어린이집에 목도리도 없이 오는 다른 엄마에게 주었다. 아이들이
내가 뜬 목도리인 것을 알고 있으니, 안보이게 잠바 속에 넣고 다니라고 부탁했다.)

※ 12월 22일

제성이 20코로 시작한 목도리가 40코로 늘어났다

재정—어 왜 기억차도 됐지 이상하다? (코가 점점 늘어나면서 모양이 '가'자처럼 되었다)

교사—그럼 다시 풀었다가 할래? 그냥 할래?

재정—그냥 할래요

영서는 간식 먹고, 계속 목도리 뜨기 해도 되냐고 물어 본다. 그리고 계속 한다.

※ 12월 23일

목도리 뜨기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바느질은 아이들이 거의 다 잘했는데, 목도리는 어려워
하면서 좋아한다.

6살 아이들은 잘 못해서 내년엔 7살 되면 다시 하자고 했다.

미연이가 1월2일 새해 첫날 오면서 '선생님 나 7살 됐으니까 목도리 뜨기해요' 한다. 일주일
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목도리 뜨기 하고 싶다고 한다.

20코가 많은 것 같아 10코로 시작했다. 정말 잘한다.

한 줄을 다 뜨면 왼쪽 오른쪽만 바꾸어서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 한다.

교사—미연아 선생님 실습하고 와야 하는데 그때는 하지말고 와야만 정말로만 만들래만 다 같이
들려봐 선생님이랑 함께 지나야하는데 그런 말들만 선생님 너무 힘들잖아.

2주간 연수를 끝내고 오니까 미연이 다 뻗었다고 실을 더 연결해 달라고 한다.

12월 한 달을 줄넘기 만들기, 조각보 만들기, 목도리뜨개질로 보냈다. 이렇게 취학아동들과
의 1년의 보육활동도 마무리가 되었다.

올해도 취학아동들을 돌보게 되었다.

작년에는 21명중 17명이 취학아동이었는데, 올해는 20명중 9명이 취학아동이다.

고민이다.

내게 늘 부족한 아이들을 돌보는데 여유와 느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
지...

보육교사의 현실적인 처우가 개선 되어 아동 대 교사비율도 낮아지고, 보육교사의 근무시
간도 줄어든다면 좀더 여유있게 준비하고, 정리하고, 활동할 수 있겠지.

또 하나, 무엇이든 안하고 그냥 아이들을 놀게하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만들어 주고, 설명
해 주고, 이야기해주고, 놀아주고, 오리고 붙이고 늘 바쁘다 놀 바쁘게 한다.

늘 손이 바쁘다 지끈도 만들고, 실로 만들고, 한지로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욕심이 강함을 알고 있다.

밥과 반찬은 골고루 다 먹어야 하고, 물건은 아껴써야 하고, 계단은 천천히 다녀야 하고,
아주 조금씩만 줄여보기로 했다.

내 개인적인 삶이 늘 바빴듯이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 힘들어 했던 것을 알았듯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여보기로 했다.

짧게는 1년에서 2,3년 동안 담임을 맡은 아이들이 졸업을 한다.
함께 자고, 먹고, 웃고, 숨추고, 내가 우는 모습까지 봐왔던 녀석들
아마도 10년 넘게 아이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고,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다. 벌써부터 이 녀석들 졸업시킬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찡하다.
내가 내 아이들의 엄마 듯이 이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와 있는 동안 내가 엄마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 회정이가 인사하고 가면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해야 하는데 "엄마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어 엄마라고 했네" 하며 씩씩러운지 웃는다. "그래 회정이 똥강아지 잘가라" 하면서 애를 보낸다.

2월 마지막 주는 졸업식과 졸업전시회로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간 아이들과 만들고, 그리고, 관찰했던 자료들을 전시한다.
부모는 잘하고 못하고를 먼저 볼 것이고 난 활동들 속에서 그 아이들의 커감이 눈에 보인다. 그때 그때의 모습들이
들살이때 갯벌에 못 들어가고 있던 기완이를
팔이 다쳐 왼손으로 그림을 그렸던 혁동이를
바느질하다가 실이 엉켜 울던 영원이를
생각이 안 난다고 한참 고민하던 관호를 본다.
그리고 그 속에서의 나를 본다.
내가 아이들에게 주었던 행복보다는 아이들이 내게 준 행복이 더 많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사랑해
아이들의 보육활동을 우리네 아이들에 연재하는 좋은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

애들아, 옛이야기 들어 볼래?

이지영 ·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회원

줄줄이 댜 호랑이(권문희 글·그림/사계절)

여우누아(김성민 글·그림/사계절)

신기한 요술 붓(신지윤 글·진강백 그림)

작년에는 그동안 주춧하던 옛이야기 그림책을 단행본으로 만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보림의 '까치 호랑이', 용진의 '두껍아 두껍아' 등 몇몇 시리즈가 좋은 평가를 받은 이후 한동안 단행본 시장이 주춧하고 있었기에 참 반가웠습니다.

〈줄줄이 댜 호랑이(권문희 글·그림, 사계절)〉는 경쾌하고 해학적인 그림을 그려온 권문희가 글과 그림을 함께한 작품입니다. 줄거리는 참 간단합니다. 게으른 아이가 참깨를 키워서 호랑이를 여러 마리 잡았다는 것인데 군데군데 작가 특유의 익살이 덧붙여져 새로운 이야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게으른 아이가 살았는데 얼마나 게으르냐 하면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에서 똥을 싸는 정도였어요. 아이는 화면에서 똥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방안에는 밥상과 요강이 있네요. 그리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개미가 기어 다닙니다. 하루는 일하고 돌아온 듯 한 엄마에게도 누워서 배고프다고 저녁달라고 하니 어머니가 화가 나서 다른 아이들은 나무도 해오고 땅도 파는데 너는 뭐하냐고 소리를 칩니다. 아이는 웃는 얼굴로 똥이 없다고 하자 어머니가 얼얼다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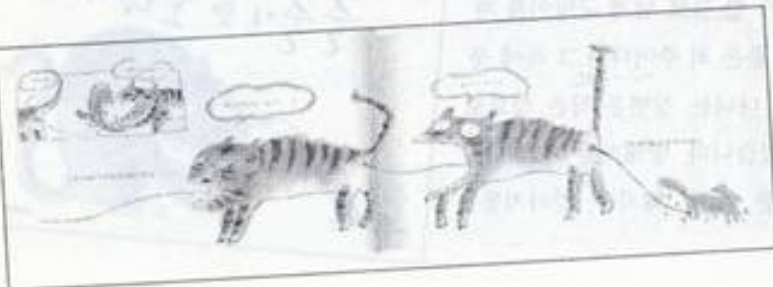
아이네 마당에 나가 한 길로 넘게 구멍이를 파더니 온 동네 똥이란 똥은 죄 주어들고 그 속에 똥 습니다. 똥을 얻으러 다니는 장면은 작은 컷으로 재미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망태기를 지고서 작대기를 들고 병아리똥, 소똥, 돼지똥, 강아지똥을



죽는 것 뿐 아니라 여자 아이에게 동이 마렵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새들도 날아다니다가 동을 참았다가 그 위에 동을 씹니다. 냄새 풀풀 나는 온동네 요강까지 모두 걷어다가 구덩이에 뿌리고 흙을 덮고서 참깨 한 섬을 동땅 뿌렸습니다. 그러자 콩나물 나듯 수북하게 싹이 나자 모두 뽑아내고 가장 튼튼한 싹 하나만 남겨 놓자 그 싹이 쑥쑥 자라서 정자나무만큼 커다래져서 주먹만한 참깨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림 속 어머니처럼 입이 턱 벌어질 만하네요. 아들은 온 동네에서 얻어왔는지 명석을 잔뜩 지게에 지고 와서는 나무 밑에 깔고 깨를 톱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짜서 항아리마다 가득 가득 담아두는데 그 참기름을 어떻게 했을까요?

참기름을 듬뿍 넣어 맛있게 비빔밥을 해먹으면 좋으련만 아이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선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 참기름에 밥 말아 먹이고 이 항아리 저 항아리에 넣었다 뺐다 여러 날 해서 강아지를 푹 절입니다. 그 과정이 여러 컷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기름에 절여질수록 점점 변해가는 강아지의 얼굴표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거기다 다 절여진 강아지 몸을 미끄럼틀 삼아 놓고 있는 개미들이랑, 놀다 가려고 날아드는 파리들도 재미있는 구성입니다. 강아지가 다 절여지자 온 산 칠렁늪을 모두 걷어다가 긴 밧줄을 꼬아 강아지 다리에 묶은 후 깊은 산 큰 나무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는 집에 돌아와 실컷 잠을 잡니다. 그동안 개에게서 풍겨 나오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해 온 산 호랑이가 모두 몰려 옵니다. 호랑이가 맛있겠다고 강아지를 덥석 물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끈미끈한 강아지가 호랑이 목구멍 속으로 쭉쭉 미끄러져 들어가 통구멍으로 쑥 빠져 나오지 뭘니깐! 그런 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놈이 꿀꺽 삼키고 다시 통구멍으로 쑥 빠져 나오고 또 삼키면 나오기를 밤새도록 되풀이해서 온 산 호랑이를 줄줄이 꿰어 잡게 되지요. 꿀꺽 삼킬 때 호랑이의 얼굴 표정과 통구멍으로 빠져 나오는 강아지의 포즈를 군데군데 나누어서 호랑이를 꿰어가는 과정을 그런 그림이 참 재미있습니다.

게으른 아이는 이제 호랑이 가죽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걸까요? 그 답은 마지막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휘장으로 치고 있는 기와 집에서 옆으로 누워 늘어지게 잠들어 있는 엄마와 아들, 아직도 참기름을 마시고 있는 강아지의 느긋한 모습이 그걸 말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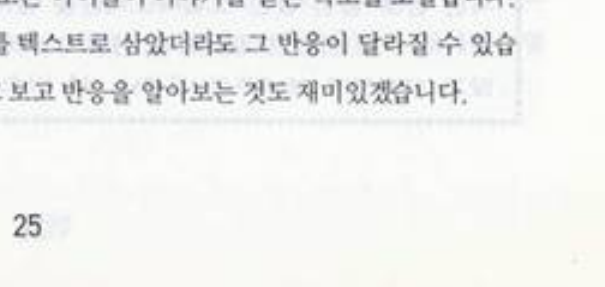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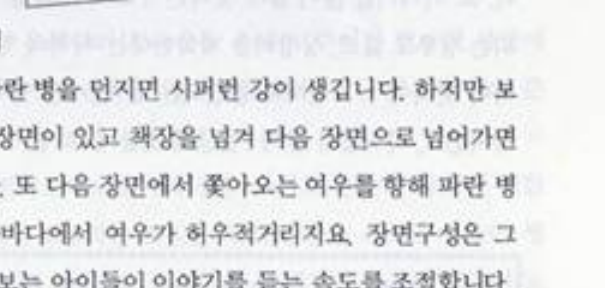


〈여우누이(김성민 글·그림/ 사계절)〉은 그림책 그림에서 잘 볼 수 없었던 목판화 작업으로 깔끔하면서 굵직한 선이 인상적인 책입니다. 또 그림과 잘 어울리는 서체와 종이의 빛깔이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먼지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컷이 두 개 나란히 늘어져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왼쪽면은 아침이고 오른쪽면은 저녁 무렵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오른쪽 면에서 부부가 길을 나서고 있음이 보입니다. 속표지에서는 서낭에 나타나는 여우의 모습이 보이지요. 줄거리는 잘 알고 있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림책은 옛이야기에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고 또 책장을 넘겨서 그 이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라도 화가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장면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이야기를 텍스트로 삼은 〈여우누이(이성실 글·박완숙 그림/보림)〉은 한 화면에서도 화면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고 보라색이 주는 느낌들이 색다른 책입니다. 특히 셋째가 여우에게 쫓겨가며 세 개의 병을 던지는 장면 구성을 두 책에서 전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여우누이〉는 하얀 병을 던지면 같은 화면에서 가시덤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파란 병을 던지면 시퍼런 강이 생깁니다. 하지만 보림의 〈여우누이〉는 셋째가 흰 병을 던지는 장면이 있고 책장을 넘겨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가시덤불속에 갇힌 여우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다음 장면에서 쫓아오는 여우를 향해 파란 병을 던지고 책장을 넘겨서 다음 장면에서 물바다에서 여우가 허우적거리지요. 장면구성은 그림책의 호흡이라고 해서 글을 읽고 그림을 보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고조가 달라져 같은 이야기를 텍스트로 삼았더라도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읽고 보고 반응을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신기한 요술 붓(신지윤 글·진강백 그림)〉은 중국 옛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주인공 아이 미량에게 신령님이 그림을 그린 것이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요술 붓을 줍니다. 가난하지만 착한 미량은 그 붓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소도 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욕심많은 임금님은 금을 그려달라고 하자 미량을 피를 내어 고립된 섬에 금이 열리는 나무를 그려주고 그 속에 임금님을 가두어 버리지요. 옛이야기의 상징성을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힘들기에 그림이 주는 맛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림책 작업은 처음 하였다는 진강백의 동양화가 눈길을 사로잡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동양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백을 잘 살린 그림, 살아 움직일 듯 한 나비의 색깔과 움직임, 묵의 검은색과 대조되는 빨강, 노랑, 파랑의 색조가 주는 화려함 등이 눈에 띕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힘찬 붓놀림이 주는 시원한 느낌이 중국 이야기의 맛을 살려주는 듯해서 아이들과 함께 보고 싶은 책입니다.

옛이야기 그림책을 그림책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옛이야기의 시간적 흐름이 정지된 화면이 꽃가지지 못해 일어나는 불일치, 상상해야 할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놓아 그 맛이 떨어지게 하는 것, 화가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보게 되어 독자가 주인공과 일치되지 못하는 점, 시각이외의 이미지의 후퇴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됩니다. 타당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듣는 문화와는 또 다른 맛을 전해주는 그림책이기에 아이들이 즐거워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이야기를 많이 알지 못하는 부모나 교사들이 많으니 그림책 때문에 그 옛이야기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상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의 역으로 아이들에게 다른 상상력을 제공하기도 하니 옛이야기 그림책이 출간되는 건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그림책이어야 하지만요. 아이들과 함께 '옛날에 옛날에' 하면서 즐거운 세계로 빠져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좋은 그림책 소개란을 알차게 채워주신 이지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위해 고료로 없는 원고를 마감시간 한번 넘기지 않고 성실하게 보내주신 선생님. 북 받으실 거예요~

1 한국보육교사회 마지막 정기총회 보고

지난 2006년 1월 15일 대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보육교사회 제10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한국보육교사회의 전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지난 해 한국보육교사회 전망논의를 위해 운영위에서는 전망팀을 구성하였고, 우리 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회가 지향하던 사업의 방향과 현재의 상황진단 등을 통해 새로운 전망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우리회는 1987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를 시작으로 1997년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환하였고, 2004년 전국보육노조건설까지 변화하는 보육 상황에 따라 육아의 사회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우리 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찾았고, 이에 따른 조직 변화는 늘 회원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2004년 말 지부조직이 해산한 현 상황에서의 올 한해 조직 논의 과정은 회원과 함께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전망팀은 전망논의 제안서 우편발송과 지역논의 조직 등을 통해 부족하나마 회원과 함께하는 논의 구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망팀은 지난 1월초 한국보육교사회 조직전망을 제안서를 우편발송하고, 제10차 정기총회에 안전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제10차 정기총회의 안전논의에서 전망팀 제안서를 안전에 붙였으며, 오랜 토론 끝에 기권2표 반대 1표 이외 전원 찬성으로 한국보육교사회의 해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안전토론의 과정에서 회원들은 교사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재교육을 통해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와 아쉬움을 이야기하였고, 자기성찰과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이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보육운동 속에서 주어진 역사적 사명에 최선을 다한 것을 성과로 평가하였고, 이후 보육운동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단위의 준비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의 전 공동대표인 김명선 전국보육노조 위원장은 교사회 운동의 발전에 대한 지열한 논의 끝에 노조를 탄생시켰고, 실제 노조라는 조직은 우리의 꿈을 스스로 만들어 쟁취해 내는 활동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획득하고 첨가해 나가는 과정이 노조활동의 과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지향한 보육운동의 한 맥을 잇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회 해산이후 아동인권의 부분에 대한 새로운 모임에 대한 관심을 가진 회원들은 이정녀 전사무국장과 함께 사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은 이후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틀로 시작될 것입니다.

보육교사회 해산 이후 필요한 안전처리 과정에서 한국보육교사회 자산은 정리정차를 받은 후 전국보육노조로 전액 후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는 이후 1년 동안 유지하며 새로운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해산의 정리과정에 대해서는 현 운영위에서 위임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해산정리과정을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보육교사회의 해산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하여, 그동안 한국보육교사회와 함께한 모든 분들을 모시고 2월 24일 '한국보육교사회 댁을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짧게는 1년에서 20년간 한 조직에 몸담고 함께 생활하였던 기억들을 정리하기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서로 격려하고 조직의 해산을 사라져 없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마지막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일요일 아침 먼 길을 달려와 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대전에서 총회를 한다고 반가이 달려와 격려사를 해주신 장현자 전회장님(현 대전시의원)과 이정남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2 해산총회를 끝내고



봉투를 붙이는 날

이선미 · 회원

집과 어린이집을 오가며 지쳐 힘들어할 때 쯤 머느리도 모르는 휴가를 받는다.

출근시간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와 버스와 전철을 타고 동대문 운동장에서 내려 언덕을 넘어 내가 가는 곳은 한국보육교사회 사무실이다.

누가 그곳에 있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반겨주며 한마디 한다.

"휴간데 여길 왜 오냐?"

그런데 그 말이 섭섭지 않고 오히려 더 반갑다.

서로 한 번 배시시 웃는다.

공연히 바쁜 듯이 이리저리 기웃하다 보면, 열에 여덟은 그날이 '우리네 아이들' 발송하는 날이다.

열심히 '우리네 아이들'을 넣고 봉투를 붙이다 보면 어느덧 점심시간이 된다.

나는 도시락 싸온 누구의 밥을 밥 주인 보다 많이 먹고 배를 두드리며 다시 일을 한다.

그리고 한 번씩 뒷마당에 나가 수도도 떨고.

그러다보면 일을 다 마친다. 이때 떡볶이나 오뎅을 사다 먹는데 그 맛은 정말 먹는 우리만 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나는 다시 전철을 타고 집으로 온다.

그 길은 어린이집에서 퇴근하며 느끼는 묵직한 숨통치 같은 몸이 아니라 목욕하고 나온 상쾌한 몸처럼 활기가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즐겁게 놀며 일하고 서로의 얘기를 줄줄이 풀어내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실사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하였더라도 이심전심으로, 서로를 보는 눈으로 나는 많은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휴가를 사무실로 갔다.



이제는 내가 먼 곳에 있어 가끔 얼굴을 보고, 매달 나오는 '우리네 아이들'로 마음을 달래었는데...

씨를 다 날려 보내고 조용히 눈을 감는 큰 나무가 된단다.

코끝이 아려온다.

하지만 우리가 씨가 되었으니 다시 산이 되고 숲이 되겠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준 보육교사회가 난 늘 좋았고 자랑스러웠다. 고맙다. 보육교사회,

보육교사회에서 보낸 휴가는 어제가 되었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봉투를 붙이면 그 날 이 나의 삶에 편안한 쉼과 힘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은 엘리베이터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구미진 · 회원

대개 벽이나 거울을 쳐다보죠. 그리고 그 시간은 왜 그렇게도 긴지...

제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지 1주일마다 좋은 글귀를 적어서 붙여놓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글귀를 읽는 것으로 엘리베이터 속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누군지 참으로 부지런하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 글을 적어놓곤 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하는 것이라면 그분에게는 일이라 귀찮을까.. 생각을 해봐도 가족과 삶, 예의에 관련된 글귀를 읽다보면 하시는 분이 고민 끝에 선택하시는 것으로 보여 보다 마음에 와 닿을 때가 많습니다.

보육교사회는 저에게 엘리베이터 속의 글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보이지 않을 듯 하지만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서 나의 일과 전망,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길을 보여주시니까요. 마지막 총회에도 가보지 못하고 해산공고를 보며 많이 서운했지만.. 비록 해산이 된다하더라도 보육교사회를 지탱했던 그 사람들은 여전하기에 보육에 대한 건전한 시



각의 견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마침 저희 집도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속의 글귀를 읽을 수가 없을 테지요.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노력에 의한 글귀들은 저에게 좋은 기억이자 경험일 것입니다.

보육교사회..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아닌 제 경험 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사랑해요

강영신 ·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국—물이 진한 가마솥 누룽지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있네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지

육—체적으로 힘든 보육일을 해도 마음의 고향이 되었던

교—사회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준

회—상하면 아름답고 눈물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곳

사—랑해

랑—(남)만은 사진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것

해—맑은 우리들의 모습 영원하리

요—(오)늘 우리들의 애정과 열정과 사랑은 보육현장에 영원한 초석으로 남으리...



오사카, 파란하늘에 눈 뿌리더니....

변미양 · 명예회원

90년, 어느 봄날이었나보다. 이른 저녁 남영동 역에 내려 전 지탁연사무실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날은.

시대도 사회도 외면할 수 없었지만, 자기 한 몸조차 끌어안기에 벅차 힘겨워하며, 일터로 찾았던 창신동 해송아기동지에서 나는 귀다 논 보릿자루같이 어설퍼다. 남영동 사무실의 문을 두드린 것도 중구지역장이라는 명칭으로의 참가였지만 한참은 낮가림하며 한동안 꾸밈거리고 끼어들지 못했었다. 그런데 그날은 회의 후 대동놀이를 한다고 했다. 몇 모듬인가로 나뉘어 원을 그리다가 피라미드 쌓기도 하고, 모듬사람들이 만든 율타리 방패를 향해 긴장도 경계도 버리고 몸을 맡겨보는 순서도 있었다. '아, 다음이 내 차례다....' 눈앞에 최루탄이 날아오는 것도 아닌데 귀가 멍멍하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다. 천천히 몸이 뒤로 자빠지는데 나는 두려웠다. 내 몸이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 바닥으로 바닥으로 빠져버리지 않을까, 그저 공중에 제 몸을 띄워 던진다는 것이 막막했다. 그 막막한 허공을 뚫 받쳐 줄 큐션이 되어줄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충분히 차오르지 않았다. 몸을 뒤로 띄우는 척 했지만 결국은 헛발질을 치며 뒤뚱거리고 말았다.

말로는 함께 길을 가자고 하면서 몸으로는 주춤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보육운동을 함께 해나간다는, 세상과 부딪쳐본다는 사명도, 신념도 고작 그런 정도였던 것이다. 그 순간 덮쳐 온 부끄러움과 기만으로 별칭계 달아올라 나는 아무런 나무람도 없는 이들 앞에서 숨어버리고 싶었다.

시대는 달리고 있었고, 조금씩 목표가 눈앞에 명확히 들어나고 있었다. 그 대열에 함께 서 나갈 때, 주저되고 무력해질 때면 언제나 그 때의 부끄러움이 가시가 되어 나를 찔러왔다.

그날, 지탁연이라는 깃발 아래 모인 우리들, 사회의 변혁을 위해 몸담을 곳이 있었고, 나침반이 되어줄 곳이 있었으며, 대가 없이 나눠주는 이들이 함께 있음을 거짓 없이, 과장 없이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더불어 했던 시간들, 엉겨주춤 몸을 담고 있던 내가 홀라당 그 물에 빠져 온몸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숨 실 수 있었다.

운명처럼, 예기치 않게 닥쳐온 사건 이후에도, 제 자신 아마도 야속한 현실을 실감하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병원을 찾아주는 동지들, 자신을 받쳐주고 지켜주는 동지들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기에 담담하게 보일 수 있었다.

어느덧 세월도 흐르고 머무는 곳도 멀어졌지만 이 오사카의 파아란 청공을 가르며 훑날리다 녹아버리는 눈발을 보며, 저 하늘 저 천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뜨겁게 달아오르던 동지들의 그 율타리를 그려본다.

지난 가을, 말로 하지 않아도 반은 알아줄 것 같은 동세대의 선주와 남영동 삼거리를 거닐다 배웅하던 교차로,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자락에 17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남영동 그날이 어렴풋이 겹쳐졌다.

돌아 돌아 다시 찾아온 이곳, 세상을 많이 바꿨다고 믿었는데 새롭게 채이는 과제덩어리 투성이의 이 땅에서 다시 막막한 허공으로 몸을 던질 각오를 해야 하건만.... 그날 서로의 하중을 겁 없이 받아주던 동지들의 굳게 잡은 손, 맑게 맑게 퍼지던 그 수다스러움과 웃음소리가 하염없이, 하염없이 저물어가는 남영동 삼거리를 감싸 돌았다.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우리의 터전을 지켜왔던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서로의 자리를 당당히 찾고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시 만날 내일을 기대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다....

이교진 · 회원

2002년 이직을 하면서 알게 된 한국보육교사회.

출근도 하기 전에 총회부터 참석한 무모한 짓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함께합니다.

생각해보면 교사생활을 하면 할수록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경력이 쌓여 아이들과의 생활이 편해질 만하면 마음속에서 교사라는 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이가 미워질 때, 일이 힘들고 벅차다고 느끼고 하루하루 가는 것이 만족해하는 나를 느낄 때,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 밤잠을 설치곤 했지요. 그런다가 교사회를 만나고, 교사회의 여러 선배님과 후배님들을 만나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또한 끝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저에게 새로운 교사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사이에서 해매는 저를 잡아주신 이선주선생님.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는 어디서든 배우고, 아이의 권리와 평등한 생활을 먼저 생각했다는 그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교사회는 인권교육, 양성평등, 통일 교육으로 저의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주었습니다.

고영미 선생님과 강영신 선생님은 경력이 쌓이면 원장을 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평교사로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는 모습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박부자 선생님은 알다가도 모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많고 자연물이 이용한 환경구성, 그녀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동육아 쪽으로 원을 재조직하신다고 하네요. 박선생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샘의 내적인 힘과 원동력이 부럽습니다.

오운정 선생님은 돌봄 소모임에서 가까이 뵈 수 있었습니다. 나이보다

젊은 외모에 한 번 놀라고 박식한 사고와 직책에 개의치 않는 유연함에 놀랐습니다.

후배 선생님들은 만나면 다들 힘들고 바쁜 생활에도 공부하고 소모임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 그분들의 젊고 푸른 기운을 받았습니다. 여드름쟁이 미화 샘은 늘씬한 숙녀로 모습도 바뀌고, 인천의 나라 샘도 생각이 나는군요.

2002년부터 2005년 2월까지의 3년 동안 교사회를 하면서 갈증의 해소법을 긍정적으로 푸는 방법도 배우고 교실 안에서의 생활만 보았던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지난해는 출산으로 쉬고 올해 복직을 했습니다. 비록 교사회는 사라지지만 그 안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힘으로 저장하여 힘차게 활동해 보겠습니다.



지민이 한마디

류지민 · 회원

나와 보육교사회는 20대의 푸른 청춘을 고스란히 함께 했습니다. 교사회를 만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풍물도 배웠고, 열정만 가지고 겁 없이 뛰어든 초보교사를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로 조금씩 성장시켜주었고,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줬지요. 그리고 해산하면서 마음속에 예쁘고 아름다운 상처도 남겨줬어요.



1-[우리네아이들]이 지나온 길

[우리아이들]이라는 제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네아이들]은 1987년 11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지로 창간되었다.

초기 발행된 우리네 아이들은 [현장을 찾아서], [부모수기], [교사수기] 등을 통해 탁아현장의 모습을 알려내고, 탁아법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내고자 하였다. 또한 연합회의 활발한 활동을 소개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회원탁아소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활동의 생동감을 나눌 수 있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를 통해 당시 활발한 사회운동의 현안들을 공유하면서 탁아활동에만 매몰되기 쉬운 현장교사들의 정치적 의식교양을 위해서도 활용되었다.



1992년5월호부터는 1994년3월호까지 약 2년간은 교사들의 소식지를 표방하며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호로 발행되었다. 교사들의 소식지 준비호에서 이 시기 탁아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연합회 내부 활동이 분화되었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조직 내 활동의 공유와 소통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사용 소식지로서의 성격변화를 예고하였다. 이후 소식지는 교사 모두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소식과 소식], [우리들의 목소리] 등 현장 활동 전달이 강화되었다. 소식지는 회원들이 우리활동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 시기의 중점적인 활동 속에서 교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을 목표로 월 1회 발간이 정기적으로 정착되었다.



1994년 [우리네아이들]은 월1회 년10회 300부 발행을 하였으며, 비회원인 외부독자가 늘어났다. 소식지 내용 역시 지탁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가의 여부를 떠나 보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집필진의 범주를 확대하고 있었다. 연합회 내부조직의 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소식지를 통해 확산하려는 소식지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단체의 활동내용과 목표 성과 대안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 발전시키는 매체로 활용하고자 사업내용을 시기적



으로 직접하게 배치하였고, 기동성과 활동내역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공유의 틀을 넓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독자의 확대 등으로 소식지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으나, 편집부의 역량과 연합회 재정 등의 근본적 문제로 인해 한계로 인해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 지지지는 못하였다.

1995년 지탁연이 교사조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사조직에 필요한 내용, 즉 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담았어야 하나 소식지 발간 전담인력의 부재, 편집부 내에 현직교사가 없음으로 해서 현장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나타났다.

1996년 정회원을 제외한 외부 자료회원이 13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당시 자료회원들은 보육관련단체의 최근동향과 국내·외의 아동복지에 대한 입장과 이론 등에 대한 기사에 관심을 나타냈고, 기존 프로그램을 다른 각도로 보고 소개하는 교육철학과 이론에 관련한 내용을 선호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회원들은 교사들이 쓴 생활 글과 어린이집의 일화 등에 1차적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네아이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기관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보육정보와 대안제시 등의 역할을 기대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2000년 평가에서는 독자재정마련 정기간행물화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2000년 이후 회가 보육교사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 시기 [우리네아이들] 역시 내용의 변화를 겪는다. 이제까지 일정분량(80쪽)에 최대한의 내용전달을 목적으로 하여 실리는 글이 많고, 회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우리 회 사업의 홍보와 전달이라는 방향을 지향하면서 보육교사의 시각에서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쓰였다. 편집방향 역시 현장교육사례 소개, 현실적 교육방안의 제시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보육교사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구성되었다.

2004년 보육노조건설 준비과정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네아이들]은 전문지성격을 강화하고 보육교사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소식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노조준비를 위한 인쇄물이 따로 제작되었고, [우리네아이들]은 포괄적 보육사례, 전통교육, 아동교육, 인권보육, 보육활동제안 등의 보육활동의 지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 발간되었다.

[우리네아이들]은 한국보육교사회 기관지로 1987년11월호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6년1월 통권108호까지 발간되었다. 그동안 [우리네아이들]은 때로는 보육운동의 길잡이로, 때로는 교사들의 소식지로, 때로는 대안보육의 전달지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여 왔다.

2-[다시 보는 우리네아이들]

[우리네아이들]은 한국보육교사회 기관지로 1987년11월호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6년 1월 통권108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네아이들]은 때로는 보육운동의 길잡이로, 때로는 교사들의 소식지로, 때로는 대안보육의 전달지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네아이들]에 실린 글들을 다시 실으며, 한국보육교사회 해산과 함께 한 시대를 마감하는 우리네아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1987년 11월 창간호

〈부모수기〉

저는 승원이엄마입니다.

승원이 엄마(성남 상대원동 만남의집 탁아소)



1987.11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슬라이드를 상영하면서 나의 생활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날을 회상해 봅니다.

나의 한창 나이이던 21세에 첫아이를 가졌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에 큰 애를 낳은 지 두 달이 못되어서 아빠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허덕였지만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들의 세상살이인지 힘겹기만 하더군요.

그 후 3년이던 세월이 흘러서 아빠는 제대하고 돌아왔지만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사업하신다고 하여 이곳 저곳 돌아다니시다 보니 다른 곳으로 눈이 띄었지요. 참으로 물질적으로 없는 것의 고통은 참아도 아빠의 한눈파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빠의 성질은 거칠어 지어 이혼까지 마음먹고 서류까지 준비해왔으나 이것이 인생에 주어진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의 인생은 믿음 속에서 견디어내며 살다보니 아빠는 3년 만에 우리가족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해 또 저에게는 승원이를 갖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대로 서로 마음을 잡고 살아가던 중 서울이 좋다고 해서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이사를 왔지만 아는 사람 없이 서울에서 살아갈 일이 막

막하더군요.

승원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먹여 살아볼까 궁리하던 중 사람이 밭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밭을 가지고 성실히 밭길을 해쳐 나갈 때, 그 성과가 있듯이 저희는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별이로는 생활이 곤란해서 저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막상 어린 승원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만남의 집 탁아소"를 알게 되어서 승원이를 마을 놓고 맡기고 일터에 뛰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탁아소에서 돌아와 그날 배운 춤과 노래를 부르는 승원이를 보며 아빠와 저는 하루의 피곤함도 잊어버렸습니다.

1988년 2월호

〈교사수기〉

공동의 생활, 공동의 이익

허영실(일터엄마방 교사)

오전 11시40분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함께 나비 만들기 놀이를 한 다음, 잠시 틈을 타 책상 앞에 앉았다. 누가 언제 이모를 불러들지 모르는 탁아소의 일과는 이제 두 달 남짓 된 병아리 부모의 재간으로는 하루 종일 허둥됨을 면치 못하는 사정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요즘엔 요령이 생겨나서 아이들의 부르는 소리를 잘 구분하여 빨리 가 봐야 할 일과,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 일을 대강 알아 맞힐 수 있게 되어 한숨 돌리는 일이 가능해졌다.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다른 일들에서 느껴지는 피곤함과 보람에 비추어 조금 색다른 성격의 일이다. 그것은 마치도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과 같고, 특정한 업무로서 보다는 일상생활의 전반에 걸친 것으로 받아들여야 이해가 가능한 일이다. 처음에 단순한 일터로 임했을 때의 탁아소에 대한 갈등과 회의가 점차 생활을 정착시키고 일터인 동시에 살터로서 탁아소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어려움이 점차 해소되어갔다.

탁아활동은 그 일상성을 이해함으로써만이 현실생활을 통한 운동성이 뿌리 내려질 수 있고, 평범한 생활인으로서의 참되고 적극적인 삶을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철부지 아이들의 식사를 만들어주고 대소변을 거들어주고, 낮잠을 재우고 하는 일이 인생의 의미로운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는 한 번도 믿지 않았었다. 그 하찮은 일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하고 물을표를 찍었다. 뾰족한 활동이나 성과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일, 아이들과 턱없이 북적되는 일, 어렵고 무의미한 느낌이 끝없이 들었다.

마음의 어려움을 꾸준히 이겨낼 수 있었던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네 명의 부모의 공동체 생활이었고 또 하나는 초창기 지역조사로부터 출발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였다. 처음에 이 곳은 행정리와 신천리 일대를 두루 다니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탁아소 설립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탁아대상 아동을 일일이 파악한 결과, 문을 연 첫날부터 6명의 아동을 받아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첫 날, 엄마와 떨어진 아이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울어대던 일은 잊을 수가 없다. 그것도 거의 하루 종일, 호랑이 굴에라도 온 것처럼 서럽게 울어대던 그 희한한 합창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던 내 자신과 동료 부모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의 그 진담을 생각하면... 그 소란하고 당황스러웠던 하루를 출발점으로 이제는 "이모, 물..." "이모, 쉬" 하게 된 오늘에 이르기 까지 아이들의 적응은 바로 부모들의 적응이고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신뢰는 바로 부모들의 신뢰로 이어졌던 것 같다. 부모들의 신뢰는 부모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 중의 하나였다. 또 이 가운데 부모들의 생활의 나눔과 의논과 의사조정이 탁아소를 활성화 시켜나가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공동생활을 통한 각 부모의 이타주의를 향한 노력은 아동들의 습관형성에도 보이지 않는 토양이 되어 들어갔을 것이라도 믿는다. 생활 속에서 공동의 이익 추구라는 것은 부모 자신과 더불어 아이들에게도 끊임없는 체험과 배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들은 탁아소 운영의 전진을 활발하게 하고, 사회성 발달에서 아동들의 빠른 변화를 낳고, 결과적으로 부모들의 신뢰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탁아활동을 통해 날마다 배우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사회성, 공동성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부모들 간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들에서 모두 나타난다.

이 탁아소라는 공간은 참으로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이 공간을 통해 인간끼리의 소박한 결합을 배우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관계의 정의"를 익히 나가는 것이, 지금 탁아활동 3개월에 접어든 햇병아리 부모의 성장체험이다.

1988년 7월호

〈권두언〉

바람받은 아기들

이오덕(아동문학가)

오늘은 무슨 일로 해서 옛날에 써 두었던 일기를 읽고 있는데, 67년 7월5일의 일기에 한 아기가 죽은 얘기가 나와서 그때 일을 한참 동안 생각하게 되었다. R 초등학교 교문 앞에 방을 빌려 자취를 할 때었는데, 올라타도 없는 그 마당에 조그만 샘물이 있어 거기 놓아 둔 바가지로 누구든지 길 가는



1988.02



1988.07



사람은 물을 떠 먹었다.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이 달려와서 물 먹고, 나도 물론 그 물을 쓰고 있었는데, 바로 그 웅달샘(지금 기억에도 웅달샘같이 느껴진)같은 물에 이웃집 다섯 살 아이가 빠져죽은 것이다. 그날의 일기를 여기 그대로 옮겨본다.

운동장 한쪽 버드나무 밑에서 '말 탄 놈도 꺼떡, 소탄 놈도 꺼떡'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데, 5학년 아이들이 교문을 들락날락하더니 내 반 가까이 와서 "혜옥이(이 아이가 내 반에 있었다)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어." 한다. 뭘 그런 소릴하나? 빠져죽을 물이 어디 있어. 도랑에 빠져 옷을 좀 비린게지. 이러고는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교문에 나가 모이고,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이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마구 달려간다.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고, 아이들에게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으라 엄명을 해 놓고 가보니 혜옥이네 마당에 아이가 하나 누워있고, 여러 사람이 둘러 있다. 죽었구나! 저게 죽은 혜옥이구나! 어째서, 어디에 빠졌단 말인가? 그 앞은 우물에 빠져죽다니! 들어 보니 의사도 왔다가 손도 안대고 가버렸다니 아주 죽은 것이다. 입술이 고운 보랏빛으로 물들고, 손이 셋노랑다. 손목을 잡고 있는 사람은 맥박이 전혀 없단다. 달려온 이 선생도 안되는 줄 알면서 인공호흡을 몇 번 시켜 보더니 일어나 가 버린다. 손을 잡으면 잡히는 대로, 몸을 들리면 들리는 대로, 이제 이 어린 몸에서 생명은 아주 떠나 버린 것이다. 우리가 늘 피 먹던 그 샘물의 깊이를 재어 본 사람이 1미터 50센티라 했다. 겨우 정강이쯤 올라 싶었는데, 그렇게 깊었구나! 그런 줄 알았더라면 진작 투정을 해 댔었을 것인데.

아이들을 집에 보내 놓고 다시 혜옥이네 집에 가보니 혜옥이는 그 뜨거운 마당에 종이로 덮혀 있고, 어머니는 방에서 통곡이다. 아버지는 마루 한쪽에서 어쩔 줄을 모른다. 물을 얹드려 퍼 먹으려다가 그만 미끄러져 거꾸로 빠진 모양인데, 쉬는 시간이면 수 십 명의 아이들이 언제나 물 먹으러 달려오는 그곳에, 하필이면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 중에, 그것도 수업이 막 시작된 직후에 그리되었을까? 또 왜 하필이면 그때 그 길가에 몇 십 분 동안이나 사람하나 지나가지 않았을까? 운명이라 하니까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세상에 운명이 어디 있어요. 부모 잘못으로 아이를 죽였지. 하고 더 큰 소리로 통곡을 한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팔 씻는 부엌앞 도랑에서 걸레를 뺀다고 물을 후적거리고 있던 혜옥이, 내가 대야의 물을 머리에다 뿌리며 같이 장난치던 그 아이, 어제도 냇가에 갔다가 과자같이 생긴 조약돌을 주워 와서 "과자 먹어라, 아나!"하고 손에 쥐어 주었던 그 아이, 지금이라도 곧 웃으며 저쪽에서 달려올 것 같은 그 아이가 이제는 영영 헤아릴 수 없이 먼 곳으로 가 버린 것이다. 나도 자꾸 눈물이 나와 혜옥이 집을 나와 버렸다.

종일 혜옥이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1988.12



지난달에는 내가 사는 이 아파트 방 바로 아래층에 있는 다섯 살 먹은(꼭 20년 전의 혜옥이 만한)아이가 청소차에 치어 죽었다. 날마다 나가고 들어올 때 1층 문간 가까이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죽은 것을 나는 보름도 더 지나서 알았다. 그리고 아직도 나는 그 부모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있다. 부모들이 일하러 나간 다음 아파트 마당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무한한 가능성 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아이들, 연두 빛으로 떠오르며 햇빛을 쳐다보고 있는 봄날의 새싹 그대로인 아이들이 무지와 게으름으로 그만 그 귀한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애절한 일인가. 어른들의 관심 밖에 밀려나 버림받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너무 많다. 또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모들은 얼마나 많은가? 아이들을 떠받치 않아도 좋다. 아이들을 노래로 현장비로 팔지 않아도 좋다. 재발 아이들을 죽이지는 말자!

1988년 12월호

〈연합회 동정〉

〈돌샘어린이집 엄마들의 춤춤〉

일하는 어머니들의 한마당 '제1회 어머니 큰잔치' 개최

지난 11월 6일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400명의 엄마와 아이들이 모인 가운데 제1회 어머니 큰잔치가 열렸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기독교어린이회가 공동주관하면서 안산의 까치동산을 비롯한 9개 탁아소와 1개의 공부방(하월곡동 산돌공부방)이 주최하여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제1회 어머니 큰잔치는 각 지역의 탁아소, 공부방 엄마들이 여성들로서의 연대의식을 고무하고 노동자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자 했고, 이로서 각 지역현장의 탁아소, 공부방 활동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고자 하는 의의를 지녔다.

당일 진행은 1부 펼침자리, 2부 모듬자리, 3부 땀땀자리의 세 마당으로 이어졌고, 각 개별 탁아소를 소개하는 사진전과 어머니들의 하루 생활 만화전, 그리고 어느 한 아빠의 생활수기와 공부방 어린이 글들을 대자보로 소개하는 전시회도 아울러 가졌다.

제1부에서는 까치동산(안산), 나눔어린이집(인천), 나눔의 집 유아원(상계동), 돌샘어린이집(안양), 보람의집(철산동), 산돌공부방(하월곡동), 새터어린이방(독산동), 사랑터(가리봉동), 어린이사랑방(미아7동), 재봉동이 애기방성

남)등의 10개 단위가 합창, 춤극, 탈춤 등으로 단합심을 발휘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어 2부에서는 1부에서 어머니를 스스로 주체적인 참여 속에서 그들의 현실을 표현해 낸 것을 2부의 연극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고, 3부의 대동놀이에서 이르러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서 개별 탁아소와 공부방의 엄마들이 스스로 여성대중으로서의 존재를 자각하고 주체적이고 공동체적인 의식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했다. 비록 이런 행사의 시기가 각 개별 탁아소들의 일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실시되어 부적절했고 준비과정도 철저하지 못했지만 각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다음 해부터는 년간 계획의 일정 아래 본회의 대중행사로 정착화 시킬 예정이다.

1989년5월호

〈만화〉

돌산아저씨



1989.05



1989.12

1989년12월호

〈특별기고란〉

자원 활동가기 바라보는 탁아소활동

서울 수원지역 탁아소 자원 활동 대표자 협의회

지역사회탁아소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활동은 대개 일주일에 하루 종일 내지 몇 시간씩 단위로 활동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그간의 활동에 있어 우리는 빈민지역 탁아소가 복지적 개량적 측면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전체 변혁운동의 일부로서 자신의 위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일관되게 가지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직 지역 내에서 탁아소가 대중투쟁과 결합하고 있지 못한 점, 현장교사들 사이에 광범하게 동의를 얻어내고 실천적으로 검증받은 탁아운동론이 없다는 점은 우리 활동에 일정한 어려움이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는 자원 활동가들이 탁아운동론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고, 진지한 토론과 이론적 모색에 힘쓸것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노력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선 빈민아동에 대한 사랑과 고민, 단순해 보이는 실무라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성실성이다. 이러한 전제가 불충분하다면, 현장 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해지고, 현장교사와의 신뢰관계도 이루기 어렵다.

많은 탁아교사들이 자원 활동가를 원하면서도 한편 그리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활동이 단기간에 끝나고,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약점이 많이 지적된다.

공단, 빈민지의 탁아운동에 서울, 수원지역의 몇몇 대학 여학생회가 관심을 가지 시작한 것은 대략 88년부터였다. 우리들의 관심은 탁아소활동이 여성노동자, 빈민여성의 조직적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그리고 여학생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대중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각 대학 여학생회는 탁아소 활동을 홍보하고 학내에서 자원봉사자(혹은 자원 활동가:이하 자활)로 일할 학우를 모아 탁아소에 연결시켜주는 일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각 대학 탁아소지원활동 책임자는 현장교사들을 도와 탁아운동의 강화에 이바지해야한다는 과제와, 탁아소 활동을 하는 학우들은 학내에서 잘 조직하여 여학생회 대중사업 강화에도 한몫해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지난 6월에는 여대협 산하로 서울, 수원지역 탁아소지원활동대표자협의회(이하 탁대협)를 결성하였다.

우선 자원 활동가가 지니는 활동의 의의를 살펴보고, "자원 활동가는 탁아활동가로서의 직접적인 투신여부를 떠나서도 분명 탁아운동의 강화에 이바



지해야 하며 그때에만 스스로의 훈련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이 점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를 느끼면서 대학생 자원 활동의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탁아소 자원 활동이 갖는 의미

(1)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필자는 우선, 자활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제도교육의 논리를 돌아보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교육적 노력과 시도에 동참하게 됨을 활동의 첫 번째 의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탁아소 자원 활동을 하고자 찾아오는 분들은 대개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탁아소에서 지나치게 태달리거나 보채는 아이, 무슨 말을 해도 명명한 표정으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 주위 친구들을 마구 때리고 공격적이고 산만한 아이, 제 마음대로 안 되면 무조건 악을 쓰고 한참을 우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빈민지역 탁아소가 표방해야 할 교육적 입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빈민지역 탁아소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아동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은 기존의 제도교육이 빈민아동을 소외시켜왔던 부분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자기 존재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가지면서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변형해갈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는 일단 무엇보다 아이들이 덜 싸우고 친구를 위하는 마음을 배우고, 전체를 위해 조금 참을 줄도 알고, 엄마 아빠가 노동한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교육하는 소박한 차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행동 심리를 관찰하면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부모와 함께 아동문제를 풀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요구된다. 봉사자는 아이들에게 작은 일이나마 스스로 하도록 북돋아 주고, 공동체적 심성들을 키워주는 속에서, 성실성과 인내심을 다지면서 스스로의 변화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운동 지원의 일환으로서의 탁아소 자원 활동

자원봉사자로서, 나아가 자원 활동가로서 탁아소 지원활동에 참가하면서 학생들은 노동자, 도시빈민의 실태와 운동에 대한 각자의 인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들의 운동에 자신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를 제공받는다. 물론 이는 일주일 하루의 보조생활에만 만족하지 말고, 아동 부모 프로그램이나 모임에 교사와 함께 참여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이나 소모임 학습에 참여하는 가운데 가능하다.

이제 탁아소 운동이 노동자 도시빈민의 심각한 아동보육의 문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도와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운동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 장기적 조직전망 등을 세워가는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지원 활동도 민중들의 삶에 봉사로서 도움을 주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민중운동의 실태와 전망, 그 속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차원으로 발전해가야 할 것이다.

(3) 자원 활동의 문제점과 전망

위와 같은 의의를 지난 자원 활동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수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들어났다. 첫째로, 많은 학우들을 여학생회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겠다는 의도아래, 탁아활동에 일주일에 서너 시간 정도 밖에 시간을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끼리 참여시킨 경우에 이는 일손이 절대 부족한 탁아소의 요구에도 어느 정도 부응했다. 탁아활동을 통해서 이들을 학내에서 잘 조직하여 탁아운동과 관련된 여성운동 빈민운동에 기여하여 여학생 하부조직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탁아소에 대한 지원을 매우 소극적인 영역에서 그치게 만들었다. 우선 일주일에 한번 아이들과 서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아이들과 낯을 익히기도 어렵고, 교사와 돈독한 신뢰관계를 쌓아나가기 힘들었다. 자원 활동가들이 교육이나 자모 대중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참여 없이 과연 '탁아운동의 강화'에 일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 활동가의 탁아소 내에서의 비중과 역할을 왜소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자원 활동가는 자기 활동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섭과 책임감만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일주일에 몇 시간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데 그치는 일은 흥미나 즐거움을 줄지는 몰라도, 활동 속에서 배우고 단련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어렵다. 자원 활동가가 아이들이나 교사와의 인간적 결합도가 낮고 자기활동의 의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탁아활동을 자기 생활의 부차적인 측면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활동이 대개 단기간으로 끝나고, 애초에 여학생회에서 설정했던 학내 차원의 자원 활동가 모임을 통한 여학생회의 강화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둘째로, 자원 활동에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는 실질적으로 현장 탁아소에 대한 지원을 해내는 일에 그 1차적 의미를 두고 출발하여 아동교육과 탁아소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탁아소 내에서의 자원 활동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과 교사와의 인간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경우이다. 이외 자원 활동가는 탁아활동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우고 훈련되고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의 조건을 스

스로 만든다.

문제가 된 것은 이러한 방식의 활동이 학내 여학생회와는 직접적인 조직적 연관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여학생회 간부이면서 자원 활동가 팀장인 경우 탁아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여학생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잘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자원 활동가는 학생운동 내지 학생회 활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학교보다는 탁아소와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모습의 활동은 각 대학 여학생회나 여대협 산하 탁아소 지원활동대표자협의회가 애초에 설정한 것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 그러나 시간의 실천은 우리의 활동의 관점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올바른 탁아소 자원 활동을 후자와 같은 형태로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활동가를 모을 때부터 활동에 필요한 자세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자원 활동가가 줄어들고 부족한 상황임은 알지만, 앞으로는 한두 명이라도 아동과 여성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고 일주일에 하루쯤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자원 활동가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과 일주일에 몇 시간 노는 것이 전부인 활동은, 무엇보다 자원 활동가 자신에게 별 의미를 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일하기 힘들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의 실질적 도움을 통한 자원 활동가의 훈련과 성장'이라는 우리가 세운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탁대협이 여학생회와 맺는 관련은 소속관계가 아니라 상호교류 협력관계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간에 알게 모르게 있어왔던 학내활동 학생운동과 분리된 일은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편견은 불식되어야 하겠다. 학생운동을 열심히 할 사람이 분명히 많이 필요하지만, 탁아활동분야에서 자신의 처지와 요구에 맞게 전체 활동에 기여할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자원 활동가의 일상 활동이나 교육에 있어서나 현장교사 내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긴밀한 결합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여학생회 여대협으로부터의 독자노선 표명이 발전적 모습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으로서의 탁아운동에 대한 자원 활동가 각각의 보다 심도 있는 자각과 실천이 필요하다.

11월4일과 11일의 자원 활동가 교육 강좌와 서울대 탁아활동자료집발간을 맞이하면서 기존의 아동교육과 자원 활동가 조직화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탁아운동의 기본영역을 분명히 하려는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자원 활동가에게 힘을 주고 탁아운동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1990.05



1992.05

1990년 5월호

〈연합회소식〉

▶제5회 정기총회개최

지난 2월25일 합정동 교육원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89년 회기의 사업보고 및 승인, 감사보고, 재정보고 및 결산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90년도 새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그 결과 회장에는 삼양동어린이 사랑방의 김정태선생님, 부회장에는 구로놀이방의 최현숙선생님이 선임되었다. 또한 총회가 끝난 후 '탁아법 정취 투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혜영 용철이의 넋을 기리는 제

3월25일 3시에 당산동 성문밖 교회에서 탁아소 어머니들과 각 단체에서 오신 500명의 추모객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일 나간 사이 질식사한 혜영 용철이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를 가졌다.

위령제는 김정태 회장님의 탁아문제에 관한 강연, 여성민주회와 정태춘씨의 추모곡, 그리고 넋풀이와 함께 부모 교사의 조문이 낭독되었다. 참여하신 추모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원통해 했으며 이 아이들의 죽음이 결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이 사회의 문제임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자세로 끝을 맺었다.

1992년 5월호

〈이달의 인물〉

반미양년생을 찾아서

정희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가보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면서 변선생님의 병실을 찾은 날은 무더우면서도 흐린, 가끔씩 비를 뿌리던 날이었다.

정말 뜻밖의,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한 변선생님의 사고가 있는지도 두 달이 다되어간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어쩌면 이럴 수가...' 모두들 말을 잊지 못하던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들어선 백병원 706호는 네 명이 함께 쓰기에는 다소 비좁다는 느낌이 드는 병실이었다.

두리번거리다 창가 쪽의 유난히 예쁜 꽃들이 많이 꽃혀 있고 벽에는 아이들이 환히 웃고 있는 탁아소 사진이며 지역위원회 교사들이 보내온 격려카드 등이 걸려 있는 변선생님의 병상을 쉽게 발견했다.



미리 병간호조로 와있던 부천지역의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보니 변선생님은 해송아기둥지의 새로 오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은 탁아소를 처음 하시는지 어려운 점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었고 변선생님은 누운 채로 힘을 내라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격려의 말을 보내고 있었다. 자신의 고통보다도 아기둥지를 먼저 걱정하는 변선생님의 헌신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탁자위에 있는 병상일지(입원 날 부터 매일 병간호 오는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써놓은 일지를 펴보니 그간의 변선생님의 병원에서의 투병생활이 한눈에 잡히는 듯했다.

육체적 아픔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의연하게 이겨내려는 의지의 모습이 곳곳에 보였으나 또한 인간이기에 극도로 고통스럽던 날들의 변선생님의 모습 또한 눈에 띄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인간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변선생님의 투병생활을 보면 그야말로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자신의 삶에 그만큼 자신이 있고 해오던 일에 그만큼 애정이 들어있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내가 몸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없다는 현재의 변선생님의 고통은 정말 이겨내기 힘들리라는 생각을 했다.

해송아기둥지의 선생님이 돌아가고 마주한 변선생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동그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바쁘게 어떻게 왔냐는 상대방을 걱정하는 말부터 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계로 다소 피곤한 듯 보였으나 예전의 그 밝은 모습이 오히려 위로 차 찾아간 나에게 힘을 주었다면 과장일까?

그 밝은 미소 속에 또한 스쳐가는 그늘이 보였다면 나의 비약일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저녁식사시간이 되었다. 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되고 식사량이 무척 줄었다는 변선생님.

매일 비슷한 병원 식사가 또한 입맛을 돋우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되리라.

신선한 야채가 먹고 싶다는 이야기에 미리 오기 전에 그 생각을 못한 자신을 탓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변선생님을 위해 맛깔스런 밑반찬과 상싱한 셀러드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의 손도 안댄 저녁식사를 물리고 항상 식사 후에 한다는 운동(일종의 체조)을 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 체조는 상당히 힘든 것이었는데도 끝까지 해내는 변선생님의 모습은 차라리 아플다워 보였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도 아니고 자신이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다시한번 나를 놀라게 했다. 유난히 야윈, 유난히 하얀 오른쪽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속이 상해 눈가가 뜨거워 졌다.

본인의 이런 의지 앞에서 눈가가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다른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다른 병상의 환자들과도 매우 친한 듯 모두들 변선생님의 체조에 대해 한마디씩 걱정하는 말을 보내는 것을 보니 예전에 지역대표회의때 보이던 토랑토랑한 모습, 당차게 자신의 의견과 지역 상황을 피력하던 그 모습이 겹쳐져 떠올랐다.

뜨거운 물수건 찜질로 등의 상처를 씻어내 주는 일로 하루 일과가 끝나는 듯 했는데 저녁 여덟시가 넘어 학교 동기생이라는 듣직한 친구가 요플레 봉을 들고 나타났다. 2-3일에 한번씩은 돌려가며 꼭 들른다는 남자동기생들을 보니 변선생님은 새로이 힘이 솟는지 농담을 한마디 한다.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선생님을 지탱시켜주는 힘은 바로 주위의 따뜻한 관심, 동지들의 격려의 소리가 아닐까.

그렇다. 우리 운동의 대의를 위해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변선생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동지들의 힘인 것이다.

언제가 될지 모를 퇴원의 날, 언제가 될지 모를 다시 해송아기둥지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변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있다면 변선생님은 더욱 힘차게 투병생활을 해내리라는 생각을 하며 병실 문을 나섰다.

밝은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비온 뒤의 상큼함이 밤거리를 감돌고 있었다.



1992.07

1992년7월호

〈활동총괄〉

올바른 탁아정책실현을 위한 요구대회

- "우리들이 낸 세금을 아이들에게!"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이하 지탁연)는 6월 21일,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올바른 탁아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대회'를 가졌다.

지탁연 소속 탁아소중 서울의 도봉, 성북, 성동, 종로, 관악, 구로, 영등포구와 안산, 안양, 부천, 성남, 인천과 대전, 부산, 전주, 광주, 군산, 이리 탁아소 교사와 부모님, 자원 활동가, 후원인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성문밖교회 강당을 꽉 메운 참석인들은 먼저 각 지역별로 마련한 동요가사 바꿔 부르기를 하며, 지탁연과 각 지역 공동자모회장이 깃발을 들고 입장을 하는 순서로 요구대회를 시작했다.

지탁연 회장의 인사말속에서 지난 시기 정부의 탁아정책을 변화시켜왔던 우리 활동의 성과를 드러내며, 올바른 탁아정책을 활발히 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92 정부의 아동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기초발제 속

에서 탁아정책의 부실함과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적하고, 민간 탁아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부, 구로지역 자모의 사례발표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탁아문제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뒤이어 마련된 인천시 민간 탁아소 지원예산 확보의 과정을 담은 성공 사례극에 대한 열띤 호응은 정부의 올바른 탁아정책 실현을 요구하는 인천지역 공동자모회장의 요구서 낭독에서 더욱 고조되었다.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날 요구대회는 참석자들이 주위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전달하며, 성문밖 교회에서 영등포역까지 미리 준비한 각 지역깃발과 피켓을 들고 평화시위를 벌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였다.

최종 집결한 영등포역 광장에서는 채택된 요구서를 주위 시민들과 함께 공동 낭독하고 올바른 탁아정책이 실현될 때까지 교사, 자모들이 중심이 되어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이날 대회를 마감하였다.

1992년 8월호

<교사조직>

지탁연탁아교사 설문조사 분석결과

교사조직분과

1. 들어가는 글 - 조사의 목적과 방법

1. 목적

지탁연은 1992년을 내부조직력의 강화의 해로 삼고 다가 올 93년 개정가시화를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위해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우선적으로 지탁연 소속 탁아소를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 및 주거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용자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난 4월 보사부에 제안서를 올린바 있다.

더불어 소속 탁아소의 실태와 탁아교사에 대한 상황 및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글은 그중에서 탁아교사에 대한 실태조사의 분석내용만을 다루기로 하며, 탁아교사의 의식과 상황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탁연 조직의 역량을 파악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

① 조사대상자: 지탁연 소속 탁아소에서 활동하는 교사 191명

② 지역: 서울, 경인, 지방 17개 지역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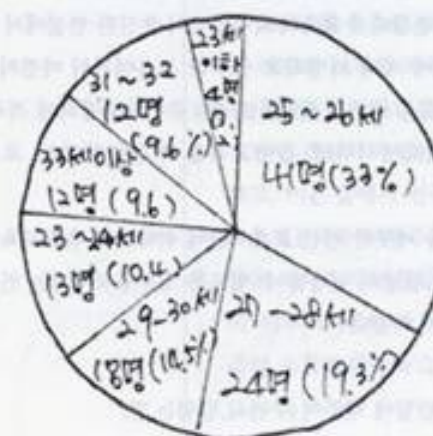
③ 조사방법: 설문지를 통한 전수 조사

④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포와 백분율을 토대로 집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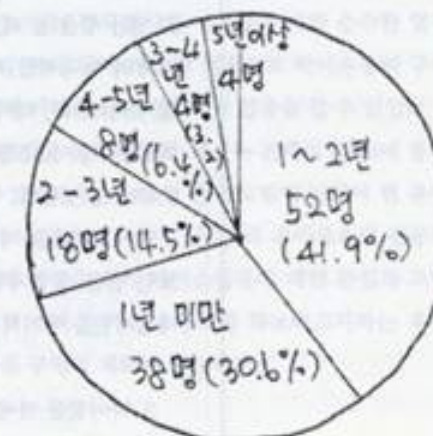
II. 실태조사 분석내용

1. 교사상황

1. 탁아교사의 연령과 활동경력은 <표 1>, <표 2>와 같다. 이와 같이 탁아경력 1년~3년 사이의 교사가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것은 민간 비영리탁아소가 8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생겨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탁아교사의 수명이 매우 짧음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탁아활동의 밝은 전망은 탁아교사들이 자주 교체되지 않고 인간관계, 사업 결과물이 축적되어 계속, 발전 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 볼때, 탁아교사들의 짧은 수명의 원인을 밝히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연령 >



< 경력 >

2. 탁아소 자원활동 경험에 대하여 전체의 45.9%가 경험해보지 않고 직접 탁아활동을 시작했다고, 45.8%가 자원활동 경험을 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자원활동의 경험을 했더라도 6개월 미만이 전체의 30.6%로 나타나 탁아교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탁아활동에 대한 올바른 사전인식과 교육을 위해 자원 활동이나 견습기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는 등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사의 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자가 전체의 50.8%로 가장 많았고, 그



1992.08



다음으로 고졸이 20.9%, 전문대 졸업이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졸업자가 전체교사의 67.7%의 비교적 높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최근 들어 탁아입법 과정 등에서 민간 탁아소 교사들의 자격과 전문성을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시절 활동 속에서 탁아운동을 자신의 전망으로 설정하고 활동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유아교육에 관한 강좌나 강의를 받은 경험에 대하여 질문해 본 결과 전체의 66.9%가 받은 경험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의 형식에 대하여 살펴보니 탁아교사의 32.2%가 탁아모 교육을 받았고, 19.3%가 유아교육을 전공, 12%가 비정기적인 유아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 실제 유아교육 전공자는 많은 편이 못되었으나, 비록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탁아모 교육을 받는 교사까지 한다면 과반 수를 넘고 있다.

하지만 전체교사의 71.7%가 앞으로 유아교육을 받을 계획이나 희망을 갖고 있는 점을 볼 때, 탁아현장에서 교육의 탁아입법이 추진된 현실에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책에 따라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탁아모교육을 받거나 (19명, 15.4%) 유아교육강좌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55명, 15.4%)에서부터 유아교육을 전공하겠다는 교사도 6.4%(8명)이었다.

탁아모교육을 지탁연을 비롯한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유아교육강좌 또한 민간, 공립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서는 연구및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5. 탁아활동 전에 했던일에 대하여 (주관식, 단위는 명)

- 학생(졸업후 바로 활동시작) (33)
- 타운동단체관련(32명)-종교(5), 운동단체(11)노동현장에 있거나 노동운동(16)
- 사무직(하원강사, 공무원, 자영업, 병원근무)(27)
- 보육사업관련 (유치원, 탁아소, 공부방, 고아원, 직장탁아소, 장애자시설 등) (20)
- 생산직(10), 주부(1), 무응답(5)

다음으로 탁아교사의 혼인사항을 조사해보면, 응답자중 미혼이 72.5%, 기혼이 25.8%로 활동력이 강한 미혼여성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탁아활동이 장시간, 저임금 그리고 높은 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기혼여성이,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이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든 조건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기혼여성의 경우, 1명의 자녀를 가진 교사가 74.5%, 2명을 가진 교사가 16% 2명이상을 가진 교사가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의 동등한 조건과 입장에서 원활한 탁아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혼 기혼여성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전제하에 활동조건, 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보고, 서로가 가진 장점과 긍정성을 최대한 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기혼여성이 활동하는데 있어 장애요소(탁아문제, 육아비용등)를 조직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하는 구조를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6. 탁아교사들이 탁아활동을 처음 시작 할 때 탁아에 대해 어떠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는가를 물어보았다.

전체교사의 47.5%가 운동적 차원이라 대답하여 탁아운동의 목표를 확실히 인식하고 시작한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탁아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껴서가 26.6%, 봉사차원에서가 18.5%,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가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사정신과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35.3%나 되어 이들의 열정으로 탁아운동의 구체적 목표를 인식하고 활동할 때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전공과의 연관으로 관심을 갖고 출발한 교사는 전체의 8.8% 불과하고, 이는 앞에서 전공자가 19.3%라는 응답의 반 정도밖에 안되어 현 유아교육전공자들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즉 유아교육의 전공자들은 탁아소의 전문성 확보와 발전을 위해 탁아소활동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이루어져야하며, 탁아교사 인력의 재생산 통로를 확보하고자하는 우리측의 조직적 대안과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7. 지탁연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주관식, 명)

- 소속 탁아소를 통해 (63)
- 주변의 친지, 선배 동료들 통해 (15)
- 학교내에서 (15)-도시민민 활동을 통해 (1), 자원활동을 통해 (1), 학생운동을 통해(3)
- 타단체를 통해 (10)
- 교육강좌를 통해 (7)-지탁연내 (6), 타단체(1)
- 신문, 매체, 행사등을 통해 (5)
- 아이를 키우면서 (자모로 출발) (3)
- 자격증(전공)관련하여 (1)
- 본인이 직접 찾아가면서 (1)
- 무응답(4)



또한 알게 된 년도는 90년도가 11명, 91년도가 9명, 89년도가 7명, 88년이 6명, 87년도가 3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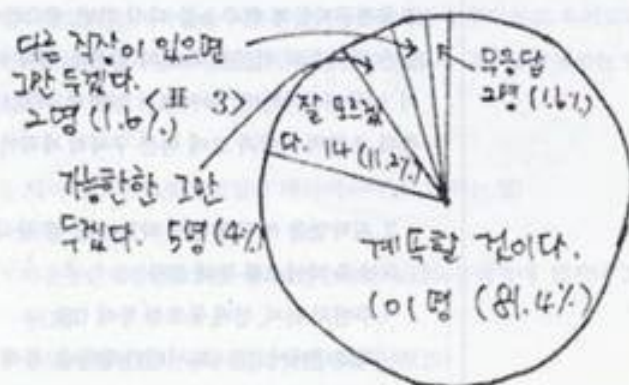
8. 앞으로 탁아활동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교사의 81.4%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하겠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탁아운동의 밝은 전망을 시사해주고 있다.

반면, "잘 모르겠다"의 응답자가 11.2%, "가능한 한 그만 두겠다"가 4%, "다른 직장이 생기면 그만 두겠다"가 1.6%로 나타남으로써 탁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을 던지게 하고 있다.

그 이유를 다시 살펴보니 경제적인 이유와 장시간 근무조건이 각각 전체 교사의 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일에 대한 전망을 찾지 못해서가 12.5%, 교사간의 갈등이 6.2%, 건강이 좋지 못해서가 2.5%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때, 탁아활동이 종일 탁아로서 장시간(11~12시간)과 중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저임금으로 생활의 기본권마저 충족되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탁아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하겠다.

이는 현재 우리가 정부당국, 시, 구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싸움에 박차를 가함과 자원활동가, 탁아교사인력의 확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후략)



1992.08

1992년 8월호

〈탁아소 별곡〉

잊지 못할 졸업식

김현순(부천 새날 아기방)

필자 김현순씨는 지난 88년에 탁아활동을 시작, 출신으로 활동을 잠시 쉬다 91년부터 부천의 유일한 영아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탁아교사이다

오늘은 윤주가 생후 2번째 맞는 생일이고 새날 아기방 1회 졸업식이다.

김경인 선생님과 나는 윤주의 생일 겸 졸업식을 치루기 위해 몇일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했다. 졸업장에 조윤주 이름을 쓰고 보니 의젓한 윤주의 얼굴이 비춰지는 듯하다. 선물, 고깔 모자, 포장지에 이르기까지 윤주에게 어울리고 좋아할 만한 것을 고르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했다.

탁아소 천정에는 갖가지 색깔의 풍선을 묶어 달고 벽면에는 [제2회 새날 아기방 졸업식] 이라고 예쁘게 색종이로 장식하고 윤주자리도 전망 좋은 곳에 따로 마련해 놓았다.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고 아이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생일이 뭐고, 졸업이 뭔지 직접 체험을 통한 또 다른 학습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흐뭇했다.

단체사진도 한 장 찍어야지! 아이들을 전부 모아 놓고 단체 사진 찍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놈 데려오면 저놈이 도망가고 저놈 잡아오면 이놈이 도망가고...

낮잠 자고 일어난 아이들이 서로 영키고 싸우는 봉에 예전보다 졸업식을 30분 앞당겨 시작했다.

사진 찍기 위해 아이들 얼굴도 깨끗이 씻겨주고 옷도 갈아입혀 주었다.

4시 30분, 드디어 졸업식이 진행되는 순간 아니! 이게 웬일인가 우아하게 케익을 상위에 놓는 순간 아이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상위에 올라가 케익 위에 초를 빼지를 않나, 자두가 공인 줄 알고 집어 던지고, 초코렛을 달라고 울고, 바닥에는 속이 터진 자두가 흉한 모양으로 뒹굴고.

윤주자리에는 영동한 놈이 버티고 앉아 있고, 윤주는 고깔 모자를 쓰기 싫다고 던지고, 입안에 먹을 것을 잔뜩 넣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자빠지는 아이들 틈에서 흥분한 아이들을 도저히 진정시킬 수 없었다.

일단은 사진이라도 찍자! 윤주 졸업장 수여식 컷! 하려는 순간 이젠 또 뭐야?

케익 문은 조연 얼굴들이 앵글 안에 대거 등장하여 카메라를 뺏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작전상 후퇴, 모든 형식을 단 몇 초 만에 진행하고 간식을 나누어 주고 나서야 진정기미가 보였다.

아이들이 실컷 먹고 아우성을 치고 난 후 윤주 엄마, 아빠가 오시고 윤주 아빠는 윤주 졸업식이라고 평소와는 달리 젊잖은 옷차림이었다. 그제서야 여유있게 컷!을 연발 할 수 있었다. 나도 한방 컷!

윤주졸업식을 윤주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이 악몽같은 졸업식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1992.11

1992년 11월호

(만나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철거 위협속에 어떤 일들 벌어요 - 서초동 꽃동네 놀이방

이정희 (편집부)

지난 9월 24일 태풍 테드가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위풍도 당당한 동양 최대의 법원과 검찰 청사가 굽어보는 서초동 2천300여세대의 비닐하우스촌이 4천500여명의 전경, 백골단, 철거장대, 서울시와 각 구청의 직원들에 의해 완전히 철거되어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이렇게 아직도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과 가진 자들의 부기의 희생자였던 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과 또 그들이 밀리고 밀려 이루게 된 비닐 하우스촌 주민들은 아무런 근본 대책없이 철거, 혹은 철거위험을 당하며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서초동 꽃동네 놀이방(공부방)은 이런 지역에 위치하면서 아이들의 꿈과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데 열심으로 얼마 전 11월 1일 일요일에는 서초동 꽃동네 꽃마을 군부대 앞 자치위원회 주최로 '생존권 쟁취를 위한 마을 대동제'를 함께 하기도 했다.

이번 '만나보았습니다'에서는 서초동의 지역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꽃동네 놀이방을 찾아보았다. 전화로 위치를 전해들은 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조금은 걱정되기도 했는데 이 지역의 주민의 자량이라고들 말하는 게 실감이 날 정도로 '꽃동네 놀이방'을 모르는 이들이 없었다. 이들의 도움으로 너무도 쉽게 다른 집들과 구분이 잘 안 되는 작은 문에 쓰여진 꽃동네 놀이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부는 생각보다 무척 작았지만 (4평이라 함) 자요나 장난감이 빈틈도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정희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신문에 서초동 철거기사가 났을 때 이곳 놀이방도 철거된 것일까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역구성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추측을 한 것 같은데 이 곳 서초동 비닐 하우스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또 이 지역이 형성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함께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예만도 얼마 전에 철거된 지역은 법원과 검찰청사 앞 두 마을입니다. 그곳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관(서초구)에서도 철거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자세한 것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서초동에는 지금은 12마을이 남아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자치위원회를 두고 있고 꽃동네 놀이방은 그 12마을 중 하나인 군부대 앞 자치위원회에

속해 있어요. 또 놀이방, 공부방은 유일하게 이곳만 있어요.

서초동 비닐하우스촌이 형성된 것은 80년대 들어서인데 사당동, 상계동, 목동 등 재개발 구역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이 지역에 임시 거주촌을 형성하다가 5공말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단지로 형성되었어요. 80년 중동건설의 침체를 국내에서 만회하고자 시작된 재개발은 세입자들의 생존과 존엄,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개발 이익이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 투기꾼에게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영세 가옥주나 세입자들에게는 몇 톨의 기만적인 이주비만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내쫓긴 대다수 철거민들과 소득의 2배 이상으로 상승하는 집값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서초동 비닐하우스촌으로 몰리게 된거죠.

정희 그럼 이곳은 재개발 지구와는 또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겠네요. 어떤 점을 들 수 있습니까?

예만도 이곳은 여러 철거지역 중에서도 최악의 형태이지요. 무허가나 재개발지구는 그래도 '주거'는 인정한다는 말인데 이곳은 재개발지역도 아니고 무허가도 못되는 셈이라 아예 주소이전이나 재반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이곳 주민들도 산동네 철거를 몇 차례나 당했던 경험이 있고 막바지까지 치달려온 사람들이죠. 그래서인지 '자치위원회'도 쉽게 만들어졌어요. 보통 이런 조직은 재개발 고시가 떨어지야 생기곤 하는데 우리지역은 비닐하우스의 특성상 그렇지 않았어요. 즉 주민들이 거의 '세입자대책위'라는 조직경험이 있어서 철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뭉쳐있어야 싸울 수 있다는 조직의 필요성을 이미 갖고 있어 산동네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졌어요. 이곳 군부대 앞 자치위원회는 88년 8월에 생겼습니다.

정희 지난 11월 1일에는 생존권쟁취를 위한 마을 대동제를 치뤘는데 해방 혼례제, 노래공연, 주민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상황을 이루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예만도 얼마전 법원, 청사 앞 지역의 맥물리는 철거상황들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그곳은 그동안 15차례의 크고 작은 방화사건과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법원과 검찰청사가 인접해있는 곳이었고, 그 일대 땅을 소유하는 지주들이 정계, 재계의 거물급과 변호사 등으로 되어 있어 계속적인 철거압력을 받아와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받아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한계가 분명하겠지만 이 같은 사회적 여론을 통해 지역상황을 호조건으로 뒤바

잘 수 있었는데도 맥없이 쓰러졌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지도부는 정부의 회유와 협박 속에 자신들의 도덕성을 지켜내고 건강하게 주민을 지도해낼 것이 아니라 분열공작의 빌미가 되는 지역 내 집을 쪼개고 늘리고, 짓는 등의 행위를 조장하고 그 세력들을 옹호하고 편승해 관에게 발목을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실태조사를 확실한 대책함의 없이 관에게 넘겨줘 주민을 동요하게 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투쟁성을 꺾어먹는 결과를 초래했고 지주와의 협상태이블도 조직적이 아닌 개별화시켰으며 불법주택조합을 결성하며 (이 주택조합결성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관에서 특별로 인정해주었다고 한다)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들과의 분열을 획책하는 등 분열에 분열을 가하는 촉매역할을 묵묵히 했습니다. 지역주민 역시 연대세력을 배척하고 집을 쪼개고 늘리는데서 얻는 알뜰한 이익에만 매몰돼 이런 지도부를 수수방관하다 결국 단결하여 싸우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 지역 주민 간에도 갖가지 시비가 오고 갔고 결국 우리 지역은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교훈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치회조직의 두 기둥인 건강한 지도부의 노력과 항상 계어있는 주민들의 투쟁성이 함께하여 강고한 단결의 기치로 모아질 때 우리의 생존권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지역주민이 다시금 집단적으로 확인하고 그동안 매도되어온 비닐 하우스촌의 실태와 올바른 주거정책을 요구해왔던 우리 마을의 도덕성을 유감없이 알려내고자 이번 마을 공동체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정희 현재 철거싸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예만 두 가지로 요구할 수 있는데 철거민 자체에게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법정영세민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지고 있는데, 영세민은 말 그대로 생계자체를 위협받는 사람이고, 철거민은 철거로 인한 주택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것은 분리대책일 뿐 철거민에 대한 근본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거민의 영세민화에 반대하며 철거민 자체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할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 문제는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철거 시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이야 일 이백만원 우습게 알겠지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자기재산 다 정리해서 들

어온 것이라 반드시 보상이 필요하며, 이는 지주가 땅투기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희 이곳 놀이방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마을 상황에 대처하러 아이들을 돌보러 정말 눈코 뜰새 없을 것 같습니다. 서초동 놀이방과 지역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떠합니까?

예만 하나부터 열까지 지역주민과 함께 합니다. 전 주민이 고민하는 게 철거문제이고 저희도 주민이니까요. 또 놀이방, 공부방 활동을 통해 신뢰가 매우 높아요. 자치회 활동도 같이하고 매주 임원진 회의가 있는데 초예이모가 총무예요. 마을 전반적인 얘기, 그때 그때 발생한 사건처리도 하고 부녀선봉대에도 같이 결합하고요.

정희 놀이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역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또 그 대응은요?

예만 놀이방은 현재는 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일단 자모회나 자활들과 상의해봐야 하는데 철거가 와도 일일탁아, 공부방 형식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자원 활동가들이 있으니까요. 지역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계속되겠고 그 이후 문제는 그때 가서 고민해봐야겠죠.

지역상황은 철거가 내년 3월경도로 예상이 되는데 법원단지 앞이 마을이 커서 상당히 관에서도 주의를 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무너지버려 관에서는 다른 마을 철거에 별 어려움이 없을 걸로 여기는 것 같아요. 대응이라면 다른 철거지역과 비슷합니다. 주민단결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당장 대선을 앞에 두고 있으니 대선활동(교육도 하면서 철거를 대비해야죠. 어려운 점은 관에서 주거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다른 지역들이 모범적 사례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영구임대주택과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이라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싸워야죠. 김바닥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죠 뭐.

정희 빠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요구가 관철되었으면 합니다.

서초동 법원단지 앞은 철거된 후 두 달도 채 못된 지금 땅값이 평당 3천만원이었던것이 6천만원으로 뛰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 군부대 앞도 대법원이 들어서게 되면 평당 1억원을 웃돌게 될거라 한다. 서초동 꽃마을은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과 가진자들의 투기에 따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과 이러한 투기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또 다른 비닐하



우스춘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철거 없는 세상을 안겨주기 위해 오늘도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꽃동네 놀이방 세 이모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대선에서는 꼭 승리해야 할 텐데.

1994년 6월 <우리네 아이들>

“청크”와 “튀기” 사이에서 헤매는 아이들

- 기지촌 아동 -

차은영 / 동두천 두레방 교사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구석진 곳에서 피란 눈, 하얗고 검은 피부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향해 부르는 ‘튀기’라는 말 속엔 아이들에 대한 무시와 경멸, 그리고 온갖 편견이 들어 있다.

120여 개의 미군기지 옆에 ‘미군들을 위한 천국’이라 불리 우는 기지촌에 가면 우리의 현대사가 낳은 역사의 사생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 시대의 현대판 정신대로 굴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한국 엄마와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대변하는 미군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들은 한 평생을 사람들의 파가운 시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혼혈 아이들은 미군 아빠가 자신과 엄마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한다.

학교에 가면 ‘튀기’라고 놀림 받으며 얻어맞고, 학교를 나와도 취직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혼혈 아이들은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되어 가는 경우가 많다. 입양되어 미국에 가도 “청크(동양인을 비하한 말)”라는 놀림을 받고, 사회 진출에서도 차별받는다. 분명히 한국의 피가 흐르는 우리 민족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나라에서 버림받고 아빠 나라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주지 않는 국제적 미아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지난 6월 18일 혼혈아를 위한 자치만 뜨거운 나눔의 장이 있었다. 혼혈인으로서 자라면서 겪은 아픔과 혼혈아를 자식으로 키우는 어머니들의 아픔이 모두의 가슴을 눈물짓게 하는 자리였다. 밤무대 가수로 일하면서 한국 남자와 결혼해 자식을 키우는 엄마가 된 40대 흑인 여자 혼혈인은 이렇게 말했다.

“혼혈인은 결혼을 해도 자식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도 저는 혼혈인 중에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힘들게 살아가는 혼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 이때까지 숨어 살았지만, 제 자식들은 다른 혼혈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나지 않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래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사람으로 보아 주세요.”



1994.06



1994.11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혼혈아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인 인식과 편견들이 없어지길 바랐다. 그리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온갖 차별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더욱 바라는 것은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함께 하는 삶을 꿈꿀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도 눈물지을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절실한 때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 자신이 타고난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 날을 그려 본다.

1994년 11월호

<우리들의 목소리>

영아탁아소 교사양성을 다녀와서

오연환 / 다우리어린이집 교사

가을비가 질퍽하게 내리는 10월 8일.

우이동 산장을 향해 모여든 우리들은 뜻밖의 손님을 맞이하였다.

멀리 광주에 있는 도담도담 어린이집에서 영아탁아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 한분이 우산을 받쳐든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뜻밖의 만남이었지만 영아탁아모임이 있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천리가 멀다 않고 찾아온 손님이었기에 벅찬 감동과 포근함 속에 늦은 저녁을 맛있게 나누었다.

영아 기제조와 맛사지법, 영아탁아소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아기가 되어보기도 하며 태어난 어린 동심의 세계로 찾아들었다. 어릴 적 아빠가 태워주던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귀너머 동구밖 구경도 해보고, 아빠의 큰 손바닥위에서 똑바로 서서 ‘둥게 둥게’도 하면서...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어린 시절의 놀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놀이인가를 새삼 느껴본다.

영아탁아소모임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면서 영아탁아소모임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만남을 통해 각 영아탁아소의 활동을 극대화시켜 나감은 물론 각 지역에서 훌륭한 영아탁아소로 자리를 굳히도록 모범을 창출하자는데 의견을 서로 모았다.

얼마 남지 않는 하반기 동안 영아 교육의 교육관, 발달 단계, 교육계획안



을 잡아서 영어탁아의 기초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가을밤 긴긴 밤 가을빛소리에 낙엽지는 소리를 벗 삼아 한 선생님의 구구절절한 사랑 얘기에 거하게 술잔을 기울였다.

어느새 새벽안개에 묻혀 날은 밝아오고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북한산을 바라보며 가을의 타는 붉은 단풍잎을 가슴에 안아보고자 산으로 향한다. 곱게 물든 단풍을 한일 두일 밟으며 하늘을 보았을 때 해맑은 아이들의 눈동자가 바람이 되어 눈에 찍힌다.

1995년 1.2월호

〈일하며 생각하며〉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에 서서

최현숙(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장)



1995.0102

을 해는 지탁연 활동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간들은 시간적으로도 결코 짧지 않았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더욱 많은 변화를 느끼게 한다. 보육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조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었기 때문이다.

10년이란 시간과,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의 변화는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왔다. 올해 역시 연초에 만들어진 서울 민보련, 그리고 전국 민보련 결성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좋은 일이다. 이는 너무 오랜 동안 누적되었던 암울한 보육현실에 대해 보상하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지기에 그러하다.

보육운동세력의 준비와 대응, 그리고 정부의 행보조차 현재까지는 크게 보아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기초 작업에 불과하며 이제부터 본격적 시작이라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여 끊임없는 과제 창출과 영역 개발, 해결점을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진 1995년도는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다.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지탁연을 중심으로 하여 6년간의 법, 제도요구활동, 그리고 3년간 초기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누락된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양적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주요 활동이라면, 정부 보육정책의 골간 완성, 지방자치시대 원년,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결성,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가 출범하여 민간보육운동의 대중조직화가 이루어진 점 등은 보육운동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

치 원년 속에 보육실천 원년을 올바르게 만들어내는 것, 지역실정에 부응하는 합리적 보육공급 실현, 질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 활동 개시, 다양한 보육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의 바람직한 연대 등이 곧바로 실천으로 요구되어진다 하겠다.

지난 1월 총회에서 우리는 향후 지탁연의 조직 및 활동 방향을 대폭적으로 수정, 전환하였다. 그것은 전국 민보련이 출범하므로 그동안 민간보육을 대변해 온 활동을 이전시키고 새로운 보육운동 영역을 개척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민은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보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교사들이 단순 전달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창조자이며 이론가가 되려는 노력에서 가능하다. 제도요구에 있어서도 질적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민보련과의 역할중복을 피하고 공보육을 향한 상호보완적 조직을 만들어가자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꾀하려는 주체들의 창조적 노력과 스스로의 변화가 없으면 모든 논의와 고민과 결정이 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전의 활동에 매이거나 그 연속선상 속에서 자신의 사고와 활동을 가둔다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힘겨운 결단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일정 영역에서 발 같고 씨 뿌리는 역할에 충실하였는데, 거두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다른 황무지로 장비를 옮기려다 보니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할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서로 모여 새 사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생각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안하던 것, 혹은 약하게 하던 것들을 새롭게 부상시켜 만들어가자.

결국 새로운 출발에서 힘을 얻는 것은 우리네 아이들 미래에 대한 헌신과 결단에서 가능할 것이다.

1995년 4월호

〈탁아소별곡〉

진달래동산

이야기 하나, 할 얘기



1995.04

나무 불럭을 자신이 다 치우기로 약속하고 모두 꺼내놓은 사인이가 놀이에 실증을 내고 다른 데로 놀러 갔다. 장난감 치우는 시간이 되어 사인이를 불러서 치우라고 했지만, 사인이는 한 귀로 흘리고서는 다른 놀이를 시작했다. 결국 약속을 어기고 또 장난감 치우는 시간에 탄 것만 탓(?)로 한 곳에 서서 벌을 섰다. 한참 뒤에 사인이가 선생님께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사인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서) 선생님 할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할 얘기가 뭐래?

사인이: 할 - 얘가요.

선생님: 그래, 할 얘기가 뭐냐고.

사인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기웃거리며 조용히) 할 - 얘가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한테 할 얘기가 뭐래.

사인이: 할 - 얘가요, 할 - 얘기...

이야기 두울, 요즘 우리 사겨요

새까맣고 둥글둥글한 은지, 씨의 웃는 미소가 매력인 장현이, 이 5살 동갑내기 친구는 진달래 동산의 찰떡 커플이다.

봄날 어느 점심시간.

장현이: 선생님, 나 이지 없어요.

선생님: 뭐가 없어?

장현이: 이거 돈까스에 뿌리는 거 없어요.

선생님이 가서 보니 장현이 돈까스에 케첩이 많이 있었다.

선생님: 있네, 뭐.

장현이: 은지가 없어요.

이야기 세엿, 난 그런거 안만들어요

철사로 만들어진 책대에 찰흙을 붙여, 우리 몸 만들기를 하고 있었다.

그주 내내 남자와 여자에 대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여의 몸생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작업을 했다.

지용이(5세 남아): 선생님, 다 했어요!

선생님: 응..., 어디보자. 찰흙을 잘 붙였네. 근데 이거 남자니 여자니?

지용이: 아빠예요.

선생님: 아빠야? 키가 크네. 근데 왜 뽀뽀랑 응경은 안 만들었니?

지용이: (만들기 한 것을 만지듯 놓고 가며) 난 그런거 안만들어요.

마지막 이야기, 신랑은 신부를...

따뜻한 봄날.

몸을 간지럽히는 바람을 찾아 김밥을 싸들고 원곡공원에 놀러갔지요. '김치' 하며 이름짓는 몸짓을 지으며 사진도 찍었어요.



1995.05

계단에 웅기종기 모여 잠깐 땀을 식히고 있는데, 아! 이게 뭐냐?

야외촬영을 하는 신랑아저씨와 신부아줌마가 진달래 친구들 눈을 자극했어요. 갑자기 형제가 큰 소리(그러나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가?" 하는거예요. 사진을 찍던 신랑아저씨의 얼굴은 봄볕에 몸을 드러낸 딸기보다 더 빨개졌어요. 그 덕에 진달래 친구들은 새 출발하는 아줌마·아저씨의 비디오테일은 물론 인생 출발선에도 찬조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5월

〈가정의달 특집-명사의 어린시절〉

"우리가 동남아야?"

윤구병

1943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와 같은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하였다.

웅진출판(주)에서 펴낸 〈어린이 마을〉과 〈올챙이 그림책〉을 기획하였고, 〈꼭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모래알 사랑〉, 〈사람 사는 세상은〉, 〈눈먼 뱀길〉, 〈몸 가는 데 마음 간다〉, 〈조그마한 내 꿈 하나〉 같은 책을 썼다.

[뿌리깊은나무] 초대 편집장과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대표를 지냈다.

충북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고,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공동대표 활동도 하였다.

지금은 서울대 철학과 교환교수로 있으며, 1년의 과정이 끝나면 이미 터전으로 잡히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로 내려가 20여년간 꿈꾸어온 어린이 농촌 실험학교를 꾸려갈 참이다.

아들만 아홉을 낳은 우리 어머니의 아홉째 아들이자 막내로 태어나서 내 이름이 구병이다. 아들이름짓는 데에 무심했던 아버지 덕에 큰형은 일병, 둘째형은 이병... 나는 구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병' 자는 돌림이었으니, 토박이말로 하면 첫째, 둘째, ... 아홉째, 이렇게 지으신 거다. 자식들 이름을 짓는 데는 무심하셨을지 모르지만 요즈음 부모 못지 않게 자녀 교육에는 유달리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가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는 학교에 안 보내고 농사꾼으로 기르겠다고 작심을 하신 것은 6·25라고도 부르고 한국전쟁이라고도 부르는 '난리' 때문이었다. 그 '난리'에 아버지는 위로 여섯째까지를 날려보냈다. 허우대도 멀쩡하고 장래성도 있는 생떼같은 자식들이었

다. 그러나 아마 역장이 무너지셨을 게다.

6·25가 시작되고 난 뒤로부터 대학에 다닐 때까지 나는 늘 배가 고팠다. 6·25는 서울에서 맞았는데, 아버지도 형들도 없는 집에 달랑 남은 일곱째 여덟째 형과 나는 어머니와 함께 '공중대'라고 알려진 명아주 풀죽으로 연명을 하다가 드디어 '허천병(허기증)'에 걸렸다. 이 병은 그 뒤로도 오래 갔다. 배가 땀퐁이처럼 부풀 때까지 먹어도 먹어도 여전히 굶주림이 가시지 않던 그 무서운 병. 여덟째 형은 고향으로 피난은 뒤에 먹을 것만 보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막내의 식탐에 어린 나이에도 창피해서 눈을 부라리기도 하고 머리통을 쥐어박기도 했지만, 내 뱃속에 달라붙은 곱신은 오래오래 떠나지 않았다. 굶어죽은 귀신을 아귀라고 하던가? 바로 내가 그 아귀였다.

6·25 직후에 강거실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 때 일이다. 설날인데도 집에 끼니거리가 없었다. 가난한 살림이라도 다른 집에서는 설빔이 한창인데, 때를 팔기 전 흥부네 집안 신세니 허기증이 곱배기로 커질 수밖에. 그래서 어머니를 졸랐다.

"어무이, 어무이, 우리 옷동네로 떡 동냥하러 가, 응. 가서 떡 얻어오잖께."

누더기가 된 어머니의 치마코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막내의 꼴을 보고 여덟째가 또 야단을 쳤다.

"허천난 새끼, 우리가 동냥아치냐? 동냥아치야?"

큰 대로 나가보면 혹시 먹을 것이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는 '구루마'에 새간을 싣고 목포로 이사를 했다. 더 막막했다. 시골에서 살 때는 군불이라도 넉넉하게 태고 살 수 있었지만 도시에 나가니 당장에 떨감도 구할 수 없었다. 뒷간에 나가 배에 싣고 오는 솔개비에서 떨어져내린 솔잎을 주웠다. 그리고 바닷물에 씻은 그 솔잎을 모아 말려서 며칠거리로 방에 붙을 땀다. 구들에 불기가 없으니 여름에는 차고 습기에 젖은 방 벽으로 민달팽들이 기어다녔다. 식으면 푸슬푸슬 흠어지는 노란 조밥도 제대로 못 먹어 유달산 중턱에 가서 계진 유리를 즐기고, 그걸 팔아 마련한 푼돈으로 풀빵을 받아 팔러 돌아다녔지만 팔리지 않아 여덟째 형은 또 막내를 구박할 수밖에 없었다. 구박하면서도 대신 풀빵을 팔아주었다. 일곱째 형은 서울 아저씨에게 장기를 배우는 것으로 굶주림을 잊었다.

'밤 한번 배불리 먹어 보았으면' 하는 소망이 나중에는 부잣집 상머슴이 되어 새경으로 한 해에 쌀 열 가마 받으리라는 결심으로 굳어졌다.

목포에서도 살기 힘들어 다시 강거실로 와 멀지 않은 사돈집에 풀머슴으로 들어갔다. 가난한 살림에 입이라도 하나 줄이자는 뜻이었다. 추석날 다시 도진 허천병 때문에 떡을 목구멍에까지 차오르도록 먹다먹다 나중에는 모두 토해내고 눈독에 앉아 올던 기억이 난다.



1995.12

'쌍팔년' (1965년) 흥년 때 빈 속으로 온 들판을 헤매며 어머니와 함께 죽을 개던 기억, 한 겨울에 먼 산 나무하러 다니던 기억... 뒤늦게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내 기억은 온통 굶주림과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누벼져 있다. 그 기억 가운데는 봄철 감꽃이 떨어질 때 행여 형들이 먼저 일어나 떨어진 감꽃을 주워먹을까 걱정되어 뜬 눈으로 새벽을 기다리던 기억도 또렷이 자리잡고 있다.

1995년 12월

〈우리들의목소리〉

지탁연 10주년을 맞이하며,

김설애(진달래동신어린이집 교사)

지탁연 10주년, 선뜻 뭐라 말이나 나오지 않습니다.

문득 자원활동가로 진달래에 처음 와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던 생각이 납니다. 겨우 겨우 식판에 밥을 담아왔는데 아이들이 밥 먹으러 나오는 순간, 식판에 국그릇 놓을 자리도 없이 반찬을 놓은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아찔했던 느낌.

그리고 참 많은 자모회가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던 자모회, 막아법 투쟁을 이끌었던 자모회,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만드려주던 자모회,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월급은 왜 올리냐'는 말로 기어이 교사들 눈에서 눈물을 뿜었던 자모회까지.

또한 우리가 10년동안 키워낸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산동네에서, 공단에서, 놀이터 하나 변변히 없는 삭막한 동네에서, 안타까워하며 정성껏 키워낸 수많은 아이들.....

돌이켜보면, 지탁연의 교사로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

그렇지만 자모들에게 막아법 투쟁을 하자고 할 때도, 같이 생각하고 움직일 지탁연이 있기에 가능했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한다는 신념도,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 아닌, 지탁연이 연구하고 검증한 것이기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교사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 어린이집만의 내용이 아닌, 지탁연의 내용을 가지고 만났기에 더 풍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지탁연이라는 틀 속에서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보육시설수가 많아지는데 기여했고, 민보련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글자공부, 숫자공부, 심지어 영어공부까지 강요하는, 경쟁위주의 교육현실을 개선하고, 즐거운 어린 시절을 돌려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코 선생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보육교사와 함께 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거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일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주고, 때로는 우리가 이끌어야 할 지략 연이 있기에 새로운 힘을 냅니다.

지탁연의 교사로 4년간 일하면서 저의 삶의 내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지탁연과 따로 떼어서 '나'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1996년 4월

〈바깥놀이〉

밖으로 나가 놀자구요

전경숙(교사소모임 밖으로나가 놀자.울양중앙어린이집)

따뜻한 봄날 가장 신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고, 그 다음은 교사들이다. 겨울 내내 실내에서만 지내느라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짜증내고 힘들어 했는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쉬운 봄이 온 것이다.

[밖으로 나가 놀자] 모임에서는 따뜻한 봄날, 연달래에서 진달래까지 그리고 연록색으로 물든 나뭇잎을 찾아 나가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생각하며 계절에 맞는 여러가지 활동을 소개한다.

〈잔디(풀) 밟기 놀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잔디가 있는 공원이나 왕릉을 찾게 된다. 처음에는 준비해간 훌라후프, 공놀이를 하지만 잔디밭(풀밭)에 들어간 아이들은 너도나도 신발을 벗고 맨 발로 풀을 밟는다.

관리인 아저씨에게 들리면 혼날 일이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 하라 싶어 관리인 아저씨가 나타날 때까지 발바닥을 통해 느낌을 경험하게 한다.

풀과 흙이 지천에 널려 있는 세상이 옅까, 시골갈던 고색동도 점점 포장도로가 늘어만 가는데...

〈물놀이, 흙놀이〉

아이들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



1996.04



1996.05

시멘트바다 조그만 틈새이라도 흙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흙장난을 한다. 말끔하게 차려 입은 나들이옷에 아이가 흙장난을 하면 어른들은 여지없이 제재를 가하게 된다 그러나 흙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본성을 말릴 수는 없다. 만지작거리기, 두꺼비집 만들기, 뿌려보기 등 여러가지를 하면서 즐기워한다.

물 또한 그렇다. 물이 있는 곳이면 아이들은 달려가 기어코 하고야 만다. 약간 고인 물에서도 발로 천병해봐야 속이 시원한 것이 아이들 속성이다. 물 받아 뿌려보기, 폭지를 손가락으로 막아 분수처럼 만들기, 물을 틀어놓고 흘러가는 모양 관찰하기 등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재미를 찾아간다.

아이들이 옷을 버릴 것을 생각해서 여벌 옷을 준비하고 옷을 버리도록 재미있게 놀게 둔다면 정말 훌륭한 교사이겠지만 항상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교사가 아니라는 생각에 자책감을 느끼곤 한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 그렇게 놀았는데 말이다.

그밖에 밖에서 할 수 있는 놀이는 우리집에 왜 왔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림자 밟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 얼음땀, 민들레 흙씨 붙여보기, 꽃잎 따서 관찰하기, 토끼풀 따서 시계 목걸이 반지 만들어 치장하기, 비누방울, 훌라후프, 공놀이 등이 있다.

밖은 어쨌든 접할 수 있는 자연도 있고, 넓은 공간이 있기에 날씨 따뜻해지면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봄이 어떨지...

1996년 5월

〈현장취재〉

어느 백화점놀이방

오윤정(교육연구부)

'신세대'란 단어가 청소년을 겨냥한 단어라면, '미시족'은 주부를 겨냥한 단어이다. '미시족'이란 단어의 확산에 백화점의 공로가 빠질 수 없다. 지난 세일 기간동안 백화점은 많은 물건을 팔았을 것이며, 많은 미시족이 백화점을 들렀을 것이다. 세련된 옷차림과 잘 다듬어진 처녀 같은 몸매가 미시족의 겉모습을 대표한다면, '자기주장'과 '자아실현'이란 말은 미시족의 지향을 대변하는 말이다. 미시족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는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이다. 가려져 있던 주부의 존재를 드러냈다는데서 긍정적이라면, 이 드러남이 '소비'의 측면에서 강조되기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긍정성을 덮어버릴 만큼

부정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미시족'이란 말의 탄생이 주부 주체의 목소리였다고 보다는 뭔가 석연치 않은 곳에서 부터 출발했다는 데 있다.

백화점은 물건을 파는 것과 함께 많은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시장에서 느낄 수 없는 정중함과 상냥함은 물론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업성을 띠고는 있지만 문화센터, 스포츠 센터가 활성화 되어있다. 이와 함께 주부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데려온 자녀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그 놀이공간에 가 본 교사라면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잠실 L 백화점을 보자. 10여평 쯤 되는 공간이 쇼핑 나온 엄마와 자녀를 위해 제공된 공간이다. 소란스런 아동복매장 한쪽에 제공된 이 공간에는 어린이들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27명 있었다. 공간의 벽만 제거하면 바로 매장이 되는 공간이다. 이 작은 공간에 있는 놀이감이라고는 고정시설물로 놀이집과 낮은 미끄럼틀이 달린 정글집이 전부이고, 비고정시설물로는 자동차와 시이소오가 모두 세가지이다. 여기서 많게는 27명의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다. 부모들을 위한 시설은 세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전부이다. 그 안에 있는 놀이감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낡고 바뀌가 없거나, 놀이집은 폭풍우가 불었는지 날아가버린지 오래다. 좁은 공간에서 놀자니, 부딪치기 일쑤이고 적은 놀이감에 서로 탈리고 싸우기가 부지기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딱한 공기(매장보다 더 딱하다. 왜냐면 좁은 공간에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니 그럴 수밖에)와 비좁음, 없다고 할 수 있는 놀이감... "자, 너희들은 여기서 놀아, 괜찮자?" 이 정도면 이렇게 백화점 주인은 어린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상계동 M백화점을 다시 보자. 물론 문화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놀이공간이 아닌 가끔 쇼핑 나오는 고객과 자녀를 위한 공간을 살펴보자. 역시 아동복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에는 공중에 있다. 다락을 오르듯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복도 따라가듯 링 모양 터널과 한 칸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기는 더욱 공기가 딱하다. 어린이들은 뛰는 것 외에는 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큰 아이들은 올라가는 계단을 붙잡고 놀고 있다. 이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안전요원이나 감독원이 없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시설물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방치되어있는 것과 같다. 이 백화점 주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위에서 보니 웃이 참 많지. 그래 많이 보고 많이 사달라고 해."

백화점의 놀이방(에기방이라 지칭하기도 한다)은 일시적인 보육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시설에서 우리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상술이 만든 보육시설의 극단적인 결과가 바로 저것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사회가 갖는 어린이에 대한 대접이 이 정도구나 하는 생각.

소비자를 미시족으로 치켜세우는 만큼 대우 또한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 상품을 팔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공간에서 소비자와 그 자녀가 잠시나마 편하게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두 백화점의 놀이공간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행동 또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여기서 놀고 있어. 밖으로 나오면 안된다."라며 종종 짚음으로 매장쪽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모습. 필자의 눈에는 여기서 놀고 있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공간인데 어머니들은 아이를 그 안에 밀어넣는다. 쇼핑 후 돌아와 매장으로 나가버린 아이를 찾아 해매는 일이 두 백화점 모두 있었다. 근처에서 찾아와 놀라고 화난 마음에 아이를 쥐어박는 엄마도 있었다. 엄마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아쉽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백화점에 정중하게 경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힘없는 어린이의 권리를 대변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주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몇년사이 보육시설이 많이 늘었다. 국가의 정책 또한 이러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 계획되고 집행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젠 보육시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보육시설인가?'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보육시설인가?'라는 물음은 곧 어린이의 입장에서 보육시설을 평가해야 한다는 중요한 잣대를 제공한다. 이 잣대로 본 어느 백화점의 일시 보육공간은 형편이 없었다. 이에 대한 백화점의 반성과 반성을 요구하는 당당한 미시족의 자세가 아쉽다.



1996.0708

1996년 7.8월

<지상강연>

탁아교사의 철학

박성연(본회 교육연구부장)

하나,
아동을 양육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탁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탁아는 가족제도가 대가족제에서 핵가족제로 변화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부모와 아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입니다. 탁아는 우리의 장래가 달려있는 아동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의미를 확보하면서 자리잡아야 할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교육이 가장 주요한 활동이 됩니다. 탁아영역에서의 교육의 의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교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교육은 사람의 정신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탁아영역에서는 사람-아동-의 정신과 신체의 성장을 동일하게 중요시



합니다. 이를 보육이라는 말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육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의미를 탈피한 새로운 의미의 교육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탁아교사는, 교사이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교사가 아니라 탁아영역 안에서의 교사입니다. 교사라고 하면 당연히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을 지칭하는 말은 탁아입니다.託兒란 아동을 탁구공처럼 어린이집에 떠맡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에게 내 몸을 온전히 위탁하듯이 아동을 위탁한다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탁아소 교사에게 아이를 온전히 맡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둘.

철학이란 사물과 현상을 보는 일입니다. 보되 전체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觀點이라는 말로 흔히 표현합니다. 교사는 철학을 가져야 하고 계속적으로 철학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

탁아교사로서 가져야 할 철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주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탁아소·어린이집, 놀이방, 보육시설-탁아소는 무엇인가?

'저는 탁아교사입니다'라고 하면 주위의 사람들은 당장에 '탁아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탁아소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를 보호·교육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 속에는, 자녀-탁아소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라는 의미가 은연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탁아소는 부모의 대리 역할만을 하는 곳입니까? 탁아소는 부모에게 위탁받은 역할과 함께 부모로서는 하기 힘든 교육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탁아소에 다니는 아동은 우리가 보호·교육해야 할 우리의 아동이라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부모의 자녀를 우리의 학생으로 삼아 길러주고 가르치는 곳'이라는 대답은 어떨까요?

2 교사-교사란 무엇인가?

플라톤은 교사를 가리켜 '학생의 영혼에 글씨를 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사는 자기 학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탁아교사는 아주 어린 아동을 학생으로 가진 사람이고 그로 인한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둘째, 교사는 영혼에 글씨를 쓰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인간으로서 학생의 정신을 형성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탁아교사의 특수성은 아동의 정신 뿐 아니라 신체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것은 여전히 정신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자기 학생과 함께 가르칠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탁아교사가 아동에게 일차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일이 신체적인 보호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로서 자기 학생에게 해주어야 하는 일의 핵심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의 영혼에 글씨를 쓰는 일입니다. 학년이 높아져도 교사에게는 학생을 신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 전체적인 일이지 단지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탁아소에는 원장과 교사만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사, 취사부 등이 공동협력하는 체제로 나아가서, 원장은 교사이지만 탁아소의 모든 일, 예컨대 경영의 면까지도 생각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간호사와 취사부는 아동의 보호-영양, 건강, 안전 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교사의 중점적인 일은 교육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사가 아동의 모든 면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는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신이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살펴보겠다는 것은 아동에게도 교사 자신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3 아동-아동이란 무엇인가?

유아교육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아동중심이라는 이념이 널리 공감대를 얻으면서 확고한 지위를 점해왔습니다. 탁아교사 중에서도 우리의 교육이 아동중심이어야 한다는 말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을 보면 교사는 어떻게 아동중심으로 교육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채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동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나는 교사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등의 고민을 하다가, 교사로서의 경력이 붙어갈수록 '에이 모르겠다, 조건이 그런데 뭐'라는 식으로 자기합리화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상태에서 관성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동중심교육이란 아동의 필요, 욕구, 감성, 흥미를 일차적으로 중요시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아동을 미숙하고 무언가를 배워야만 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기 내부에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인교육의 경우에도 성인학습자중심교육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에 '성인학습자중심'이 성립되는 근거는 그들에게는 그동안의 삶과 사회생활에서 획득한 경험이 풍부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



다. 그러나 아동에게는 풍부한 경험도,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동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아동은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동중심 교육은 아동이 중심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일 것입니다. 아동은 성인-교사-의 가르침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의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자신의 경험과 정면 배치되는 것일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교사-아동의 관계-교사와 아동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교사와 아동의 관계는 교육이라는 활동을 매개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때에 교사는 아동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가치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동은-물론 직접은 아니지만-교사에게 그 댓가로 보육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보육료가 교사 노동의 직접적인 댓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는 아동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교사가 받는 보육료는 일종의 '명예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당교육을 예로 들어보면, 훈장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르친 댓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훈장은 가르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부모들은 훈장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물적인 원조를 한 것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명예급입니다. 아동이 교사에게 지불할 수 있는 것은 보육료가 아닙니다. 교사로부터 배운 것을 내면화시켜서 교사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유일하고 최선의 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과 교사의 관계는 사사로운 계약으로 맺어지는 일대일의 관계가 아닌 세대의 만남, 공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최선의 삶의 방식을 아동에게 전달하여 주고 아동은 교사에게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하여 보답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부모-부모는 무엇인가?

기존의 교육에서 교사와 부모는 둘다 아동을 가르치며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즉,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내용을 엄격히 구분하여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치고 가정에서는 품성을 형성한다는 구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탁아는 학교와 가정의 영역이 함께 들어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탁아소는 부모의 영역과 교사의 영역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아동은 가정보다는 탁아소에서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학교와 가정의 영역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가 아동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

니다. 이러한 일은 부모와 교사간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동에 대해 공유하는 면이 많아짐으로써 가능합니다. 따라서 탁아교육에서 부모는 교사와 함께 아동교육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인식되어야 합니다.

6) 교육의 목표-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교육은 가치를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지식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은 가르치는 사람의 가치지향에 따라 걸러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가르치는 내용은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이때의 삶의 방식이란 물론 교사가 특정하게 경험한 삶의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는 어떠한 사회·문화에 속해있고 그 사회·문화 속에서 가치롭다고 하는 삶의 방식을 교육의 내용으로 응축시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체화시켜서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내용을 단원중심, 상황중심, 통합교육 등의 용어로 사용하며 교사들은 그에 따른 교육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육계획은 교사가 하는 교육활동의 모든 면을 드러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아동에게 전달하는 것은 가치의 덩어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현재와 같은 형태의 교육계획안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아동에게 가르쳐야 할 가치-교육목표-로서 필요한 주제들입니다.

(1) 노동(업)의 가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노동을 통해서 발전해왔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정착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언어와 문자를 만들어 사용해왔으며, 이를 후손들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노동이란 육체적인 일과 정신적인 일을 동시에 말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단순히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을 칭하는 것이 아닌, 일의 근본과 결과를 알고 이러한 경험을 뒷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유치원 교육에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단어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실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단편화되어 단순히 어떻게 바퀴가 만들어졌는가라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치중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일을 도와주는 도구를 만들고 발전시켰으며 이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내용이 더욱 첨가되어 '집에서 하는 일', '일하는 분들의 고마움' 등을 주제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인류의 역사 형성과 발전의 밑바탕이 된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방법을 전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평화와 통일의 가치

'타아'라는 말이 얼마 전까지는 일반인에게 안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 또한 꺼내기조차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이 우리 민족의 숙원이 되어있습니다. 통일을 하자는 것은 원래 하나였던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흩어진 국가의 힘을 모아서 더 잘 살아보자거나 가난과 독재로부터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보다 내 친척과 가족이 다시 만나서 사이좋게 살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갈라진 것은 전쟁 때문이었고 이러한 전쟁은 당시의 이유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갈라지는 고통과 고통의 세월을 감내해야 하는 아픔만을 준 것이었습니다. 통일이란 당장은 흩어져있는 내 가족 친지들이 하나가 되어 살자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전쟁-싸움-없이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싸움을 무조건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싸움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평화교육을 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은 싸우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은 어느 한편의 잘못 때문이라기 보다는 대개 양편이 조금씩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싸우게 되었는지를 알아서 그 원인을 따져보고 서로 반성하는 가운데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싸움인 6.25전쟁에 대한 태도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편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싸움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싸움에 대한 잘못된 태도만을 가지게 할 뿐입니다.

(3) 성평등의 가치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남성의 운명과 할 일, 여성의 운명과 할 일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흔히 남성은 외향적인 일, 사회적인 일에 적합하고, 여성은 내향적인 일, 가정적인 일에 적합하다고 인식됩니다. 육체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에 따른 역할의 차이가 주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에는 누구에게나 양성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착해야 하는 부분은 양성의 차이점이 아닌 양성이 공통적으로 지닌 부분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양성이 공동으로 살

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연히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를 교육의 내용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성평등이고 이것이 우리가 좀더 인간적으로 되는 길입니다. 요즘에는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많이 확산되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며, 직업도 남자와 여자의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의식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은 계속적인 자기 의식과 관습적인 행동을 반성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4) 공동체의 가치

누구나 개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사회에 대한 부분보다는 개인에 대한 강조점이 커져서 점차 따로 떨어져 개인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 없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운명처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이웃, 친지, 학교 등 우리가 속해있는 사회는 점차 범위를 넓혀가며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개인의 삶의 둘러리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나를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생활의 단위이므로 이 속에서의 화합하는 생활의 경험과 훈련 없이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5) 민족의 가치

세계에는 많은 민족과 국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자신의 민족에 대해 우월감 가진 민족도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민족도 있습니다. 지나친 우월감은 타민족을 경시하는 태도를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적절하게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자신의 민족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려면 민족의 전통을 이어받고 현재에 알맞게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족이 가져야 할 기본 바탕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 굴곡으로 인해 전통이 손실-단절-되어 있는 민족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에 대한 입장 또한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민족의 전통은 이미 상실되어 버렸다고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전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로서는 민족의 가치를 어떠한 측면에서라도 발견하여 아동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일년중 며칠 장구 몇번 치고, 한복을 어줍잖게 입어보는 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밥 먹는 일 하나에도 우리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생각하는 방식에도 우리 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드러나기 보다는 교사의 생활을 통해 아이들이 배우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식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는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넷.

철학을 하는 방법은 다음의 세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철학하기 위한 대상과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둘째, 반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반성이라는 것은 '곰씹어본다'는 의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대상의 행동, 말, 감정 등에 대해서 반성해 보는 -곰씹어보는- 것입니다. 셋째,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동에게, 동료 교사에게, 자신에게 말을 걸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효과로서 스스로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타인이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교환이라는 의미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교육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6년 11월호

〈현장소식〉

우리과 더불어 함께 다니는 '졸업여행'

고정미(햇살어린이집)

"너무 좋겠다~부럽다~"

"그런데 자할 선생님이라도 한명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주위의 많은 선생님들의 한결 같은 부려움과 걱정을 뒤로 하고 무리한 강행을 한 것은 나름대로 그동안의 과정들을 밟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계속 밟고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의, 그 기대로 가득 찬 눈망울, 그것 이었다.

일요일 아침9시에 일곱명의 큰튼이 형님반(7살) 아이들과 함께 마중 나오신 엄마들 앞에 일렬로 쫄 서서 "우리와 함께 다니는 졸업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 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마냥 대견하고, 주책이야.



1996.11

우리 엄마들 마음은 더 하겠지?

운전기사 아저씨의 눈총과 질타 때로는 거부 경험은 무수히 받으며(그렇지 않은 운전기사 아저씨도 많았다.) 버스를 많이 이용했던 덕분에 우리는 모두 선생님과 아이들이 하나되어 뻔뻔하게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당당하게 하면서 버스에 올랐고, 그날 아침은 그런 아이들도 대견하게 쳐다보시며 환하게 웃어주시는 운전기사 아저씨를 만나서 다행이다 싶었고, 웬지 이번 졸업여행이 화려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시골스러운 풍경을 한껏 간직한 강화를 버스터미널에 도착하기전까지, 그 2시간 30분간의 아이들과의 신경전(시간이 갈수록 관광버스를 만들고자 근질근질해서 못견뎌 하던 모습)

"야 혁민아, 저 황금빛 물결 좀 봐라!", "강화도는 섬인데 왜 배를 안타고 갈까?", "야, 동주야 우리 저녁은 무엇을 해서 먹을까?", "환규야 갯벌에는 언제쯤 갈까?", "야, 영수야 너 엄마한테 물어 잡아온다고 했대며?", "야, 오징어 잡아온다고 한 사람은 누구냐? 성환이 너지? 그럼 인영이냐?", "진아야, 성환이 엄마가 싸주신 샌드위치 좀 먹어볼래?", "이~야~저 코스모스 좀 봐라. 이~야 저기 허수아비 있다~!"(아이고, 하느님 재발 차 좀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눈에 힘을 줘가며 이쪽 저쪽을 가리키며 분위기를 집중시켜 가다가 드디어는 이쪽 의자에서 저쪽의자로 날라다니는 상황에까지 다다랐고 나는 위기상황의 목소리로 "야, 너 운전기사 아저씨가 오래!"의 협박아닌 협박까지 하면서 휴~ 드디어는 강화읍에 도착.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니산 입구에서 신나게 점심을 먹고, 일단 매표소에 짐을 맡겨놓고 각자의 집 전화번호를 누른 다음 잘 도착했다는 전화를 한 후 드디어 산행시작! 오후 2시 반쯤 되었던 것 같다.

그동안 몇번 있어온 엄마들과의 햇살산행 덕분인지 아이들은 정말 마니산 다람쥐가 되어 신나게 정상까지 거뜬하게 올라갔다. 발짱게 상기된 그 대견스러운 얼굴들을 정상에 올라가서야 볼 수 있었다. "선생님, 물 좀 주세요!"라고 달려드는, 바다로 둘러쌓인 산 밑의 풍경이 유난히 더 아름답게 보였다. 두 손을 모아 힘차게 "야호"를 외치고 올라왔던 그걸을 다시 무사히 내려왔다. 올라가며 내려가며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하는 아이들의 생각주머니에 굉장한 자신감과 서로 어우러지는 하나됨의 기쁨을 심어 주었을 것이다.

민박을 구하고, 일단 내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서로가 맡은 각자의 역할들을 해내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야채를 씻고 찜고

지지고 볶고, 나는 호숫에서 해~ 하고 웃고 있고, 민박집 할머니는 신기하고 기록해서 눈이 휘둥그레 지고...

이렇게 맛있는 카레밥은 처음이라며 새 그릇을 거뜬히 해치운 동주! 결국 잠을 잘 때 조금(?) 말짱은 있었지만...

설겅이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애들이 이제 내일아침을 위하여 자야지? 에이~ 안줄러? 네!!! 젤대! 젤어.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내복차림으로 밤에 (마니산 주차장)나가 귀신놀이를 하였다. 마침 걱정이 되어서 지원(?)나오신 최은하선생님과 남편을 만나 광란의 밤을 보내고 민박집에 돌아와 두분의 결혼1주년 기념식을 간단하게 거행한 후 모두 잠을 청하였다.

으~악! 그 엄청난 잠버릇! 세상에! (하느님, 제발 잘 좀 자게 해 주세요)

새벽같이 일어나 갯벌에 가자고 조르는데 두손 두발 다들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광활한 만주벌판과 같은 갯벌에서 문어와 오징어는 못 잡았지만 마음껏 갯벌을 누비며 게를 잡고 망둥이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환호성을 지르며 모두가 하나되어 마니산 630개의 계단보다 더 많은 추억을 간직한 채 전등사를 거쳐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1997년 10월호

〈통합보육〉

통합을 왜 해야 하는가?

윤선애(서울대학교 병원 초기치료실 책임교사)

편집자 주 : 윤선애선생님은 서울대병원 특수교육교사를 하시면서 유아기관에서의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철실함을 느끼셨다 한다. 특히 영유아기의 통합교육은 더 절박하여 보육시설에서의 통합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 연구소 이선주선생님의 소개로 선생님께 원고 부탁을 하게 되었고, 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7가지 주제로 몇 차례 연재가 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통합보육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방법들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차례

1. 통합을 왜 해야 하는가?

2. 통합보육의 효과

3. 장애 아동의 선별/진단/배치

4. 통합보육 활성화 정책

5. 통합보육프로그램



1997.10

6. 통합보육의 사례

7. 통합보육의 과제

영유아기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 프로그램은 점차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장애 아동을 일반 아동과 함께 일반교육/보육환경에 배치하여 장애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보육/교육에 관한 논의도 고조되고 있다. 여기서 아직 "장애아동을 왜 일반 아동과 통합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합보육/교육의 효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장애아동을 왜 일반아동과 분리시켜야 하는가"를 자문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이는 "통합"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인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장애아동이 태어나게 되면, 그 장애아동은 더 이상 그 가족의 짐과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회가 책임 지어야 할 사회 구성원으로 대우받고 있어 법적, 사회적, 교육적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독일의 경우, 교육제도에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시켜 교육시키고 일반 아동 중에서도 아동기부터 가능성과 적성을 평가하여 분리교육을 시킨 결과, 성장기에 함께 경험해 보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타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증가되어 가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운동으로서 "종합교육운동"이 실현되어 자연스럽게 통합을 받아들이고 있다.

통합은 왜 필요한가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의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각기 그 개성과 능력을 존중받는 사회여야 한다. 이는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장애 아동은 이러한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소외되어 왔다. 장애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사회가 지대해지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어떤 특정한 요소(지능이라든가)에 의해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정신지체으로 인위적으로 인간을 분류한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Bartel과 Guskin은 말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정신지체아를 지칭하는 용어의 변천을 보면, "Mental retarded people"이 "person with mental retardation"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신지체라는 별명을 붙여 특정 계층으로 분리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먼저 대우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합보육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인 사회의 태도를 반영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아동을 교육하는 목적은 아동이 잠재력을 실현하고 나아가 그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이 되게 하는 데에 있다. 즉 장애아동에게도 장애아동의 잠재력 실현과 그 사회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때 어린시기에 일반아동과 통합되어 도래 경험을 하는 것은 장애아동에게는 물론 일반아동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어려서부터 통합환경에서 성장한 장애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쉽게 사회에 적응하면서 생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 시기에 장애 아동은 일반아동과의 통합을 통해(도래 교수, 도래 관찰 학습 등의 방법) 발달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의 교육환경, 놀이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일반아동은 장애아동과의 경험으로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일반아동은 어려서부터 장애아동을 경험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덜 갖고, 장애를 개인이 가진 하나의 특성으로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소중함을 알게 되며, 이타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신체와 다르거나, 자신의 능력과 다르다는 사실은 처음 만났을 때만 낯설게 여기며, 혹은 장애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자연스럽게 도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통합교육 현장의 관찰 보고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인천 순복음 유치원을 졸업한 쌍둥이 자매의 경우(장애인 신문, 102호), 이 두 일반아동은 유치원 시절 자매아동과 짝꿍놀이, 블록놀이 등을 하며 함께 보냈고, 그 아동이 자폐아였는 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자신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냐고 묻자 "밥 먹을 때 땀만 먹구요, 말을 잘 못해요."라고 말하며 친구였던 그 아이를 그리워했다고 한다. 우리네아이들 7/8월호에 실린 <일본 보육 연수기>를 쓴 저자들의 눈에도 "어린 아이들은 장애아를 장애를 가진 이상한 아이라기 보다는 그 아이 자체로 대하는" 것으로 보여졌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성우는 소아과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준명이가 가까이 와서 웃으면서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자고 했다. "가기 드려서?" 싶 듯한 목소리로 감기들렸냐고 묻는 준명이를 보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이 빠졌니? 우리 형도 이 빠졌어." 성우는 준명이의 빠진 이를 보며 말했다. 준명이가 진료실로 들어간 후, 성우 어머니는 성우에게 준명이가 장애아이라고 속삭

였다.」

위의 사례에서 성우 어머니는 준명이가 성우와 같은 도래 아이라는 사실보다 장애아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고, 성우는 준명이를 빠진이가 우리 형과 같은 데에서 친근함을 가질 수 있는 도래 친구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함께 배워요, 1997)

즉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를 장애라는 별명을 붙이고 소외시키기 보다 "차이"를 가지기도 했지만, 나와 비슷한 점도 많은 친구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교육적 측면에서 일반아동의 부모나 교사는 장애아동의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을 모방하게 될까봐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아동의 이러한 모방은 일시적이며, 부모나 교사가 일관되게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을 무시하면 일반 아동의 모방은 없어진다. 이 때 교사는 장애 아동을 도와주는 일반아동들을 칭찬해 줌으로서, 일반 아동이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배우고 격려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장소)만을 공유하는 "물리적 통합"이 아닌,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게 잘 수용되고,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의 세심한 교육프로그램 계획과 적절한 교수방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통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통합의 효과에 대한 확신은 통합교육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이 될 것이다.



1998.04

1998년 4월

<교사의견>

장애통합보육에 교사의 애정과 전문교사가 있어야 한다

허경(회원)

내가 지영이를 알게 된 것은 작년 3월이었다.

5세반인 민들레 반에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여자아이가 내 시선에 머무르는 순간 나는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외모는 일반아인과 비슷했지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힘센 여자아이였기에...

교사와 시선을 마주할 수 없는 자폐현상과 공격성이 있는 지영이는 우리 교사들을 난감하게 할 때가 많았다. 수업시간에 앉혀려하면 발로 주위 사람을 차거나 소리를 질렀으며 또한 내 목소리가 커지려하면 공격 현상을 보였기에... 다행히도 우리어린이집에는 일반교사 외에도 각 반마다 장애아를



전담하는 통합교사가 있기에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조금 떨어져서 통합교사가 지영이를 다루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통합교사는 지영이를 빨리 적응시키려고 목에 급소를 다쳐가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별지도를 하였고 결국엔 내 수업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했다. 그때서야 나는 지영이에게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다. 물론 우리일반교사들도 지영이에게 가끔씩 따가운 안마를 받아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영이를 안고 "사랑해!" 하고 속삭여 주었다.

2학기가 되자 지영이는 공격성이 줄어들고 가끔씩 교사와도 눈을 맞출 수 있는 호전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교사들은 사뭇 흐뭇해하며, 더욱 좋아진 지영이를 상상하게 되었다.

지영이의 등원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선생님 지영이 왜 안와요?"라고 궁금해했고 때마침 지영이가 저 멀리서 선생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올 때 그때서야 아이들 또한 "선생님 지영이 왔어요!"라고 호들갑을 부렸다.

이제는 지영이도 어엿한 6세가 되어 새총대왕반으로 월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대로 5세반에 남아있어야 했다. 그리웠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반에서 지영이를 볼 수 있다. 문을 활짝 열며 내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는 지영이를 볼때면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지영이를 안고 슯한 뽀뽀를 해댄다.

만약에 재작년처럼 통합교사가 없었다면 과연 지영이가 좋아질 수 있었을까? 솔직히 통합교사가 없었을 때에는 손이 더 가야 할 통합아이들에게 신경쓰지 못해 가슴이 아팠지만 원장님의 배려로 인하여 우리곡교어린이집에 통합교사가 생긴 후부터는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통합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을 모델링하여 배울 수 있도록 일반반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좋지 만 혼자서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없다.

누군가가 일대일로 해주지 않는 한 한계가 있기에 그 아이들은 통합교사의 손을 필요로 한다. 너무나 감사하다!

지영이를 위해 힘들게 개별지도를 해준 통합교사인 천선미 선생님과 같이 노력해주신 김옥희선생님이.....

이분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지영이가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내일도 나는 우리반 문을 활짝 열며 들어와 인사를 하는 지영이를 안고 뽀뽀를 해주겠지?



1998.06

1998년 6월호

〈어린이날 행사특집〉

제2회 구로어린이큰잔치

김진숙(새터어린이집 교사)

5월 5일 하루만이라도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맑고 밝고 씩씩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나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서로 돕고 살아가는 마음,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 구로를 사랑하는 마음,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년에 이어 제2회 구로어린이큰잔치를 열게 되었다.

참가단체는 구로구의 사회단체들로 구로시민센터,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구로청년회, 서울남부교육교사회, 서울진보청년회, 여성복지회관(서울여성노동자회), 좋은아들들이다. 1회때보다 참가단체가 많아졌다.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전교조 남부지회나 공부방 연합회등 어린이관련 단체의 참여가 적은 것이다. 7개 단체의 준비주체들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업계획, 홍보, 재정, 후원조직 등의 일을 한달전부터 시작하였다.

행사를 알리는 것은 조금 늦게 되었지만 효과가 컸다. 포스터, 전단, 현수막의 홍보물 외에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홍보 요청을 하였는데 교실마다 전단이 붙었고 가정통신문이 나간 학교도 있었다. 사회단체에서 그동안 환경행사등을 하며 학교와 관계를 맺어왔고 작년 행사를 통해 좋은 반응을 얻은 결과다.

재정은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으로 나오는 구로구청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구청 지원금은 선거 관계로 포기하려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신청서를 냈고 힘들겠다는 답변에 중앙 선관위에 질의서를 내서 구청장의 행사참여만 않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답변서를 구청에 제출해서 행사 2-3일전에 결정되었다. 그리고 지역의 의료원, 치과의사회, 약국 등에서 후원을 해주어 어려움없이 치를 수 있었다. 언제나 지역의 일에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는 분들께 감사하다.

준비위원회가 홍보와 재정마련 등을 위해 발로 뛰어다닐 때 참가단체의 회원들은 각자가 맡은 마당의 세부 계획을 세우고 어린이들이 좀더 알차고 재미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였다. 행사내용은 놀이마당, 유아마당, 미술마당, 우리 춤과 풍물마당, 우리문화 배움마당, 나라사랑마당, 동요부르기 마당, 전시마당, 미니 마라톤 등이다. 마침마당으로 택견 시연과 구로구 역사알기 OX퀴즈도 있었다. 어떤 내용의 마당을 할지를 결정하는데 어린이날의 의미를 살리고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되기 위해 고민도 많이 하



고 이야기도 많이 하며 걱정하였다. 1회 때와 큰 틀은 변한 게 없지만 대회 형식의 마당은 사라지고 상품을 주어야 한다거나 참여유도를 위한 경쟁 심리를 유발시키는 것도 사라졌다. 그래도 마치고 나면 조금씩 결집이 보인다. 장터의 품목도 점점했으면 싶고, 마당배치를 할 때 아이들 동선을 생각했으면 싶고, 물품을 넉넉히 준비했으면 싶다.

보육교사회는 미술마당과 우리춤 마당을 맡았다. 미술마당의 경우 대부분 유아들이 참가하는데 (다른 마당은 대부분 초등학교위주이다) 유아놀이마당은 따로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왔다갔다 하기에는 힘든 거리다. 유아마당을 한데 모아 유아들도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고 즐겁게 놀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5월 5일, 일찍부터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친구들끼리 손잡고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 신도림 가로 공원은 순식간에 꽉 찼다. 그래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 얼마나 될지는 알수 없지만 4천명이 넘을 거라는 것은 공통된다. 돈도 안들고 여러 놀거리가 있고, 설 수도 있는 공간이 있는 곳으로 안성맞춤이지 않았을까. 행사가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그늘에 앉아 담소를 즐기는 가족들도 많았다.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점점 더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거나 공간의 분리도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서울 남부 보육교사회만 해도 자활들까지 포함하여 50여명이 참여하며 힘을 쏟았던 행사다. 그만큼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 거라 생각한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모아지고 모아져 마침내 폭발하는 자리로 어린이큰잔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1998년 10월호

〈기획〉

TV의 얼굴일기

이정주(서울YMCA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모임)



1998.10

해가족화는 엄마의 역할을 가중시키고, 반면에 아이들에게는 그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 허기를 느끼기 쉬운 환경을 가져왔다. 마음놓고 놀 수 없는 주거환경, 형제가 없는 외톨이, 방과후 학원가를 한바퀴 휘돌아야 하는 교육환경, '영상세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그들에게 TV는 무료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구요, 엄마의 잔소리로부터의 도피처요, 놀이친구이다. 그들은 현실세계에서 부족한 것들을 TV라는 가상의 공간 속에서 채우고자 한다. 그 가상의 세계는 점점 현실세계와 공존함과 동시에 지배하려고

까지 한다. 그런 의미에서 TV는 필요악이다.

TV는 여러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은 것도 상반되게 이해될 수 있다.

TV의 정기능은 생각보다 무척 많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정기능을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상세대라면 TV를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TV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른 자세로 곳곳이 앉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긴장감을 풀고 편히 기대고 앉아서 TV를 본다.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하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가 바로 TV를 보는 것이다. TV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락매체이다. 우리는 TV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잠시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가하면 우리들은 TV를 통해 이 사회의 가치와 규범, 관습, 공동체의식 등을 습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회화되어 간다. TV는 아이들에게 식습관부터 인사하는 법, 길 건너는 법등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TV는 교육방송을 통한 교육기능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실험이나 과학의 원리를 눈으로 쉽게, 그림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기능도 있다.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지식적인 것은 학교 이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TV화면을 통해 가보지도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간접경험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물론 지구를 떠나 우주세계까지 여행하고 그런가 하면 사람 뱃속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 만일 정보가 집결되는 TV가 없었다면 정보와 시대는 결코 공꾸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밖에 연극, 뮤지컬, 음악회, 영화 등 비싼 입장료를 내지 않고도 각종 문화행사도 즐길 수 있다. 프랑스 월드컵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환상적인 입장식 퍼레이드를 볼 수 있다. 그밖에 TV는 대리만족기능도 있고 계층상승의 욕구를 주기도 한다. 전화 ARS를 통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재의연금을 보내고 동포예를 확인한다. 노사간의 분쟁도 TV 앞에서 격렬하게 토론되어진다.

그러나 이것을 뒤바꾸면 잘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TV의 얼굴이 된다.

TV를 켜놓고 입은 벌리고 즐거워 웃고 있지만 가족들과 대화는 할 수 없다. 들로 산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는 대신 몸과 눈을 고정시킨 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구들과 치고 받고 몸으로 놀거나 놀이감을 직접 만들어 보는 즐거움 대신 백화점에 가서 다 만들어 놓은 장난감을 고르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사회를 배우지만 사람 사귀는 방법, 더불어 사는 세상은 이론에 그칠 뿐 점점 이기주의가 확산된다. 국제화 바람은 필요 이상의 용량의 컴퓨터를 집집마다 들여놓게 했고 해외여행으로 외화를 축냈다. IMF라고 하지만 TV는 흥청망청 여전히하고 계층간의 위화감도 커진다.



일류대를 순위대로 늘어놓고 대학입시경쟁을 가열시킨다. 수재의연금은 한국통신, 방송사에게 이득을 주고 정부의 복구에산으로 남기니 실제 수재민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은 은폐되고 분석은 없고 시시콜콜한 현상 나열만 하는 뉴스는 사람들 속을 뒤집는다. 자기 얘기만 하는 토론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잠시 TV의 역기능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자.

아이가 밤새도록 비디오를 보고도 모자라 보육시설에 올 때마다 비디오를 끼고 올만큼 TV에 중독이 되었다. 친구와 노는 시간보다 TV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한다. TV를 보느라고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 언어장애가 생겼다. 이쯤 되면 TV라는 비현실 세계가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TV를 보는 것은 물론 TV를 끄는 것도 자신의 의지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TV를 끄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그런가하면 광고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상품들은 항상 갖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인 빈곤감은 커지기 마련이다. 친구들을 사귄 때에도 장난감이 많은 친구들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캐릭터 산업이 아이들의 유행을 주도하고 아이들 사이에선 소비가 미덕처럼 여겨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는 엄마는 좋은 엄마요, 안 사주면 나쁜 엄마이다. 또한 모두다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의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커다란 자랑거리가 되고 온동네 아이들의 부러움을 산다. 임기응변에 능한 아이들은 부분적으로 머리가 크고 엄마들은 자기아이가 제일 똑똑한 줄 안다. 초기교육의 몸을 타고 해외여행으로 줄을 이었다. 그리고 영상매체에 너무 길들여지면서 활자매체에는 익숙하지 않아 아이들이 책읽기, 글쓰기 수준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운동할 시간은 TV보는 시간으로 대체되고 아이들은 점점 허약해져간다. 또한 영웅, 초능력, 공주, 왕자, 이미지 광고 일색인 가상의 세계는 아이들을 현실과 유리된 신비주의의 신봉자로 만든다. 그런가하면 수많은 진실이 TV속에 감추어져 있거나 쓰레기로 치워져 버린다. 반면에 아이들에게 왜곡된 여성상,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미모가 빼어나야 대접받는 사회등 기성세대의 정형화된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있다. 선정성, 폭력성은 점점 길들여지고 오히려 둔감해 더욱 더 자극적인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낳기도 하며 때로는 모방할까 염려스럽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TV의 어두운적인 얼굴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영향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두 얼굴을 취하는 TV를 보면서 두가지를 동시에 읽는 연습과 TV조절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해야 할 점은 바로 TV의 상업적인 속성이다. TV의 역기능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TV는 기본적으로 오락과 교육, 즉 재미와 유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정해진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재미와 유익을 동시에 취하기가 쉽지 않다. 지나치게 재미를 취하다보면 점점 자극적인 것으로 가게 되고 유익만을 취하자면 점점 따분해지기 일쑤이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TV는 온갖 유익함과 '시청자가 원하니까'로 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있는 한 기본적으로 상업논리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TV는 시청률 경쟁에 예민하다. 어린이 프로그램도 예외는 아니다.

93년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에 풍선을 들고 MBC방송국 앞에 자리 깔고 앉았다. 매우 인상적인 시위였다. 당시 볼개편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의 대명사인 '뽀빠이'가 평일 방송을 폐지했었다. 이유는 보다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성인 프로그램을 비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도 모르는 아이들은 어머니를 보며 울기까지 하였다. 물론 지금도 별반 나아진 기미는 전혀 없다. 항상 고무줄처럼 늘었다 축소했다 편리대로 움직이는 시간대가 곧 어린이편성시대이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항상 희생 양이 되어왔다. IMF를 맞아 방송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없앤 것도 어린이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95년 모처럼 만들어진(어린이 프로그램 자문위원회)였다.

현재 방송중인 어린이 프로그램 20편 가운데 16편이 만화이다. 그리고 그중 자그마치 11편, 즉 68%가 일본만화이다. 장르의 편중화는 물론 일본만화밖에 볼 수 없는 어린이 시간대는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모님들이 비교적 어린이 시간대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TV용 만화는 상업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성인물에 끼워 넣어서 나오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엔 랜시용품 회사에서 미리 상품을 만들어 놓고 광고를 때리며 들어오는 것들도 있다하니 방송사야말로 일석이조일 수밖에.

일본 프로그램 중<고도모(어린이)뉴스>라는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다. 아이들이 진행을 하면서 주요 뉴스를 자기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리포트, 취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일주일간의 뉴스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못 만드는 이유는 한가지. 어린이 프로그램에 투자를 안하기 때문이다. '베끼려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베끼겠지' 하는 생각조차 무의미한 것이 현실이다.



방송에 대해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에는 매우 차이가 크다. 방송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위험하다. 그렇다고 자신은 방송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자만도 금물이다. 습관적으로 TV를 켜두는 것은 결코 아이들이 정서발달에 바람직하지 않다. 조화로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비판의식을 희석시킨다. 아이들은 TV의 정보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그들만이 공유하는 TV문화가 있고 그들만의 유행이 있고 그들끼리만 통하는 언어가 있다. TV에서 본 것을 통해 동질성을 확인하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TV가 구심점이 되어간다. TV의 정기능은 물론 역기능까지 아이들은 서로에게 전염시키며 그들의 가치관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파편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영상세대에게 TV바로 알기, 바로 읽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자신의 의지대로 TV보기를 조절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TV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3월호

《어린이와 건강》

아픈 아이에 대한 간호

민용식(순천향대학교 소아과교수)

편집자 주 : 그동안 어린이와 건강을 집필하신 고시환선생님이 연구차 미국으로 가 시게 되었습니다. 이번호부터는 순천향대학교 소아과 민용식교수님이 원고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고시환선생님 잘 다녀오십시오.



1999.0304

어린이가 앓을 때는 쉽게 외로워하거나 슬퍼하며 실증을 느낄 수 있다. 어린이들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며 물고 보낸다. 이러한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평상시와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여 긴장감, 공포,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아의 방은 밝고 매력적으로 꾸며 주고 베개는 부드러운 것으로 사용하고 요는 편하게 해준다. 미열이 있는 어린이는 구태여 실내에만 있게 할 필요는 없다. 어린이가 원하면 가벼운 운동이나 놀이를 하도록 한다. 어린이가 수두나 홍역과 같은 전염병을 앓는다고 해도 반드시 격리시킬 필요는 없으며, 어떠한 전염성 질환이라도 질환의 시작과 끝까지 전염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진단 후 최소한의 필요한 기간만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아픈 아이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해준다. 또한 또래 아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기간동안에도 아이에게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환아를 위한 영양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아플 때는 대부분 식사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럴 경우 너무 식사에 대해 강압적인 것보다는 소량이라도 자주 아이에게 주도록 하며, 고형식 보다는 아이에게 유동식으로 필요한 영양분은 물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아이가 설사나 구토를 동반한 질환을 앓고 있다면 유제품이나 과일 등 몇몇 음식물들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저것 다양한 음식물을 아이에게 주는 것보다는 소화가 용이하고, 아이가 부담을 가지지 않는 음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열이 있을 때 대중요법

아이에게 열이 있을 때 경계(열성경련)를 일으키기 쉬운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열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약간의 열은 오히려 면역학적으로 좋게 반응하기 때문에 열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열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태어난지 한달 이하의 신생아인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질환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대중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위 환경조절

아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외부 환경의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열이 있을 때는 옷이나 담요를 너무 싸주지 말고, 방안의 온도를 서늘하게 하며 (18℃ 정도) 방안의 환기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열이 있을 때 아이들은 춥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때 옷을 많이 입히거나, 담요를 덮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열이 피부를 통해 발산되지 않아서 오히려 열이 더 오르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옷을 다 벗겨놓게 되면 아이가 추위로 인하여 피부가 수축하고 소름이 돋게 되어 오히려 열이 더 오를 수 있으므로 너무 덥지 않게 헝겊한 옷으로 조금 선선하게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2) 냉찜질

냉찜질을 하게 되면 열이 피부를 통해 발산되므로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마에만 물수건을 얹어놓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팔, 다리, 몸통 등 가능한 몸 전체를 닦아주어야 하며, 얼음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하면 아이가 떨릴 뿐



면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수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수분공급

열이 있으면 체내에서 수분이 많이 소실되고, 아이가 잘 먹지 않게 되어 영양이 부족하고 탈수되기 쉬워 회복이 늦어지게 되므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아이가 잘 먹지 않으려 해도 보리차 만큼은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고, 우유를 먹이는 경우에는 물계 희석해서 먹이고, 아이가 안먹는다고 금식시키지 말고 아이가 평소 잘 먹는 것으로 조금씩 자주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4) 해열제

해열제는 하루에 6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하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4시간 간격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최악은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으나 먹는 해열제와 똑 같은 것이므로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스피린은 인플루엔자나 수두에 사용하면 치명적인 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이가 열이 있을 때 구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5) 체온측정

아이들은 만져보면 어느 정도 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열의 의심되면 반드시 체온계로 측정해야 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위는 항문입니다. 체온계를 3-5분 동안 5cm 정도 삽입해서 측정하고, 38도 이상일 경우 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으로 체온을 재다가 체온계가 깨져서 수은을 먹은 경우에는 흡수되지 않은 금속수은이므로 안심해도 좋습니다.

약먹이는 방법

1. 약 먹일 때 엄마들께서 꼭 명심하실 것은 약을 강제로 먹이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약을 먹이는 것은 힘듭니다. 약을 줄 때는 재미있고 맛있는 것을 준다는 느낌을 아이가 갖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진짜로 힘들어서 안될 때까지는 아이를 달래고 맛있는 것을 섞어서 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한번 강제로 먹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아이가 좋아하게 만들어보세요. 우선 특별한 약이 아니라면 약에 설탕이나 꿀을 타서 달게 만들어 먹여보십시오. 그러나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

서 약에 이런 것을 타세요. 섞는것을 보기만해도 안먹으려합니다.

2. 약을 잘먹는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3. 특정한 시럽의 향을 싫어하는 아이는 먹기 전에 물을 좀 타서 물계 하면 잘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물을 좀 많이 타서 뒤도 약효에는 대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우유에 타서 우유병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한번 먹는 우유양에 섞는 것이 아니고 소량의 우유에 약을 타야합니다. 우유를 남길 경우 약을 덜 먹이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아이가 우유병을 안빨려 한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돌 지 난 아이가 우유병을 빨고있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우유병도 끝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5.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속에 묻어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아이는 아이스크림 속에 묻어서 주면 잘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6. 한꺼번에 먹기 힘들어 하는 아이는 10분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누어 먹여 봅니다. 특히 약먹으면 다 토하는 아이들은 나누어 먹여보십시오.
7. 어린 아기의 경우 엄마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가락에 약을 묻혀서 빨리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은 충분히 소독해야 합니다.
8. 먹고 자꾸 토하는 아이는 만일 식사 시간에 상관없는 약인 경우는 식사 전에 빈속에 먹여 봅니다.

<강제로 먹이는 법>

이런 방법으로도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때면 달래서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먹게 설득하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1. 두 사람이 하는것이 좋습니다. 한사람은 아이를 안고서 한 손으로 양팔을 휘어잡고 한손으로 이마를 눌러서 못 움직이게하고 다른 사람은 한손으로 입을 벌리고 한손으로 숟가락에 물약과 가루약을 섞은 것을 넣습니다. 약을 넣고는 물도 조금 숟가락으로 재빠르게 주고는 입을 다물어줍니다. 그리고 재빨리 관심이 다른데로 가도록 돌려줍니다. 이것이 엄마들이 보통 하는 방법입니다.
2. 어린 아이의 경우는 이불로 아이를 싸서 손발을 못 움직이게 만든 후에 안아서 머리 잡고 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숟가락 대신 스포이드에 물약과 가루약을 섞어서 입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가 난 아이는 이런 경우에 씹어서 깨뜨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리로 된 것은 곤란합니다.
4. 부약기란 것이 있는데 약을 미리 섞어서 넣은 것을 서서히 흘려서 입에



넣어줍니다. 한꺼번에 입안에 넣으면 사래가 들어서 위험한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절대로 때려서 먹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번 약 먹는 것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약이나 귀약을 넣는 방법〉

1) 기본 주의사항

우선 안약이나 귀약병을 손으로 감싸거나 미지근한 물에 담그어 체온 정도가 되게 합니다. 뜨거운 물이나 레인지에 데우면 안됩니다.

아가의 스포이드나 약병의 떨어뜨리는 부위가 아가의 몸이나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았을 때는 병속에 넣기 전에 꼭 잘 씻어야 합니다. 여러 아이가 같은 약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귀약을 넣는 법

아이를 옆으로 눕히고 귓구멍 중앙에 정해진 양만큼을 정확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귓구멍에 물은 약이 속으로 충분히 들어갈 때까지 그 상태로 기다립니다. 양쪽 귀에 다 넣을 때는 조금 시간간격을 두고 넣은 편이 좋습니다.

3) 안약을 넣는 방법

우선 아가의 얼굴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눌어서 아픈 눈이 약간 아래로 가게 고개를 잡고 눈꺼풀을 살짝 당겨서 안약을 한두방울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힘든 어린 아이의 경우는 눌어서 코쪽 눈가에 한 두방울 떨어뜨리고 눈꺼풀을 약간씩 움직여 줍니다.

가습기 사용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기침, 가래가 많이 있을 때 공기가 건조하게 되면 기관지도 건조하게 되어 가래가 밖으로 잘 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불쾌감을 주고 기도를 자극해서 기침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가습기를 사용해서 방안의 습도를 올려주어 기관지내의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면 기침, 가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코가 막히는 경우에도 방안이 건조하게 되면 코 안도 건조하게 되어 코가 더 막히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해서 방안의 습도를 올려주면 코의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고 코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가습기가 코막힘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에게 열이 있을 때도 가습기를 사용해서 주위의 습도를 올려주고 방안의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해주면 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도움이 됩니다. 이와같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가습기를 사용하면 증상의 호전에 도움이 되는데 그 외에 모세기관지염, 후두염,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도 사용하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천식과 같이 기관지가 예민한 경우에는 찬 습기가 오히려 자극이 되어 기침이 심해지고 증상을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가습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되고 사용하더라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습기에 사용하는 물은 가능한한 끓인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끓인 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염된 물이 호흡기로 들어가서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용하는 물은 더운 수증기보다는 찬 수증기가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기관지가 예민한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3) 물통 및 주변기구는 최소한 이틀에 한번씩은 청소를 해야 합니다.

물통에는 항상 물이 담겨져 있어서 곰팡이나 다른 균들이 쉽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수증기를 통해서 아이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4) 가습기의 위치는 아이의 머리부분에 놓지 않습니다.

만일 가습기를 아이의 머리 부분에서 사용하면 가습기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아이의 몸이나 옷에 직접 닿게 되어 축축해지면서 체온조절이 잘 안 되어 오히려 감기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방안은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습이 많이된 경우에는 저습으로 인하여 오히려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방안은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6) 쓰지 않고 보관할 때는 물을 완전히 빼서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곰팡이들이 잘 생기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1999.07

1999년 7월호

〈세상읽기〉

파렌드수련원 화재발생으로 죽은 어린 영혼들에게
주혜민(회원)

6월 30일

그렇게 6월의 마지막 밤은 지나갔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늪으로

홀췌 재가 되어 날아갔지.

퐁당퐁당 설레이던 한여름밤은

조잘조잘 어둠속의 속삭임은

한낮의 밝은빛 해맑음을 모두

우리곁에서 빼앗고

부끄러운 어른들의 탐욕은

아이들의 절규를 묻어버리고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했지.

공포와 고통의 어둠속에서

너를 방치한

더러운 탐욕의 캄프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

밤하는 해집고

이글거리는 캄프파이어

너희를 재물로

치워진 더러운 축제의 밤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너를 보낸 그날 아침이 후회스러운데...

누구를 붙들고 원망한들

가슴속에 묻어둔 어린 너

다시 돌아올 수 없는길.



2000.09

세상은 그래도

정말 그래도

아름답다고 말한 나를

용서해다오, 아가야!

제발

부디

탐욕이 들끓는 세상엔

다시 태어나지 말거라.

아름다운 세상으로

고이 가거라

2000년 9월호

〈현장교육〉

살아있는 자연학습자료를 만들며...

임미화(회원)

내가 동그라미에서 생활한지 4개월이 조금 넘는 듯하다.

동그라미에서는 매주 수요일이면 산행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내가 살고 있는 부천에 있는 산도
별로 가본 적이 없다.

동그라미 덕분에 원미산, 성주산, 작동산, 소래산 등 정말 많은 산을 다녀
왔었다..

큰 아이들은 산행을 하고 아가들은 시원한 나무그늘을 찾아 자리를 잡고
이곳 저곳에 널려 있는 자연물들을 직접보고, 만지고 하며 자연의 놀라운 힘
(?)을 느끼는 것 같다.

산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끔 이름모를 풀들을 가져와 "선생님! 이게 무
슨 풀이에요?" 하면 "글쎄, 뭐지?" 하며 슬쩍 위기를 모면하기도 여러번..

교사의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과 알아보고 그것을 잘 보관하여
자연학습자료나 환경구성 등 일단 남겨보자고 교사회의때 제안이 되어 산
행에 의미를 더하기로 했다.

그래서 산행을 할 때마다 아이들과 풀을 뜯기 시작했다.

산에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지 않은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풀
저풀을 뜯으러 다니면서(자연을 보호해야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사



실 조금의 걱정은 된다. 대신 우리가 보관하여 보호? 아이들도 신기한지 "선생님 이걸 이름이 뭐예요?"라고 연신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름을 알수 없는 선생님들은 안되겠다 싶어 산행할 때마다 '식물 도감'이라는 묵직한 책을 들고 가기로 했다. 아이들은 식물도감을 이용해 선생님과 직접 이름을 찾아보고, 선생님이 풀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 해주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숲속을 헤집고 들어가서는 같은 것을 찾아와 맞추어 보기도 하며 돌아올 때 림이면 이런저런 것들을 한무더기 쥐고 온다.

이름 하나하나를 알게되면서 아이들은 자연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관찰력이 풍부해진 듯 하다. 이제는 산행 때 굳이 교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가져와 교사에게 숙제를 던지며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산행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은 코알 놀이터만 가더라도 꼭 손에 뭔가를 가지고 오는 버릇이 생겼다. 오만잡다한 쓰레기까지, 아이구.

식물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취한 식물의 이름을 알고 그 식물들을 신문지에 잘 넣어 형태가 상하지 않도록 말려야 한다.

식물 표본을 만들기위해 말리는 작업부터가 쉽지는 않았다.

날씨가 더워서인지 동그라미로 돌아와 보면 시들어 버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우리는 산행시 두꺼운 책을 (두권의 책은 정말 무거웠다.) 들고 다니며 채취하는 즉시 보관을 하기로 하였다.

풀이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풀이 다 마르면 식물들을 잘 들어내어 A4용지에 잘 붙여 모양을 정리한다. 그리고 코팅을하여 완성하는데 채취하는 것부터 완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완성한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고 좋은 모양이다.

"선생님 이걸 뭐예요?" "응 이걸 ○○산에 갔을 때 가지고 온 거야"

"우와, 예쁘다" "어! 이걸 내가 들은 거다." 하며 연신 말하는 아이들..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을 해 주는데 그걸보고 있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하고 예쁜 눈은 정말 사랑스러웠다..

아이들의 애정어린 손길과 숨결이 담겨 있는 그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자연학습자료'라 하기로 했다.

여름 연수때 선생님들께 우리가 만든 것을 보여주자 하신다.

조금의 설레임을 안고 '불평역'이라는 조금 먼곳까지 비가오는 것도 아랑곳 하지않고 기분 좋게 갔다.

우리는 조금(?) 늦은 시간 도착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나의 시야에 잡혔다. 늦었지만 해야할 일이 있었다. 우리가 만든 표본을 예쁘게 붙여 놓아야 한다. 허안벽에 붙어 있는 표본들을 밀리서 보니 더 멋있어 보인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해주셨다.

정말 기분 좋게 그날의 강의를 받을수 있었다.

자연물을 이용한 벽면 구성

고질고질한 벽이 있는 좁은 현관을 들락거릴 때마다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았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환경구성을 해 벽에 붙이대도 고질고질하게 버티고 있는 벽 때문에 작품은 늘 빛을 잃은 느낌이었다.

경험상 아이들의 손때묻은 환경구성이 질리지 않고 청감이 있기에 그런 방향으로 '독특하고, 아름답고, 아이들과, 교육적으로, 오래가는 벽, 벽, 벽??'을 되새기며 고심고심.

마침 현관의 환경구성을 내가 맡은 터라 책임도 막중하여 '어찌할꼬' 하며 들락거리다가 실내에 있는 아래벽을 보고 그림을 잡았다.

<실내에서 아이들이 부담없이 만지고 낙서해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도배 후 전체적으로 아래부분만 투명시트지를 붙였는데 수성페인트로 그림을 그려도 잘 지워지고, 벽에다 모자이크를 해도 부담없고 아이들의 작품이나 학습자료를 눈높이에 붙였다 해도 깨끗한>

또 아이들과 동그라미 알 님은 코스모스 밭을 산책하는 과정에 자연미가 있는 꽃잎, 나뭇잎을 이용하는게 좋겠다고 결정했다. 이것을 계기로 아이들과 식물에 대한 공부도 하며 그것들을 찾아 바쁜 날들을 보냈다. 산책할 때도 신문을 챙겨 그 자리에서 특징과 생김새를 관찰하고 신문에 잘 펴 놓았다. 처음엔 교사 혼자 열심이고 아이들은 늘 하던 방식대로 야외활동을 하였으나 점차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욕구가 일어났으며 대부분의 아이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자체를 즐기는 듯 보였다. 햇빛이 내리쬐는 산에서 혼자서 쉼정거리며 뜯다보면 어느새 열댓명의 아이들이 모여들고 땀으로 젖은 몸에 흙이나 작은 벌레가 들러붙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긴 풀을 잘도 뜯어온다. <이것으로 나중에 작은 바구니를 만들>

*방법

1. 식물을 잘 말려둔다.
2. 전체적으로 벽에 수성페인트를 칠한다.
<교사가 칠을 하자 매우 조심스럽게 다니며 구경한다.>
3. 페인트가 마르기전에 그위에다 꽃잎, 나뭇잎을 붙여 구성하면 그냥



붙는다.

〈아이, 예쁘다!〉 “이거 우리가 한 거지요?” “나두 하고 싶다”, 마른일이 잘 부서지고 페인트가 묻어 교사의 붙이는 작업을 도와 주거나 일부는 마당벽에다 물감칠하기 놀이를 함)

4. 페인트가 마르면 투명 시트지를 조심스럽게 붙인다.

5. 시트지 위에 말린 긴 풀을 얹어 바구니를 만들고 그위에는 바깥놀이 때 마다 들어오는 강아지풀을 꽂아놓곤 한다.

완성 후 환하게 웃으며 한결같이 현관벽을 떠나지 않으며 “아이, 예쁘다”를 연신 내뱉으며 부담없이 만져보고, 기대고 논다. 누구든 그 벽을 보면 한번 만져보고 미소짓는다.

사실 자연물을 이용한 벽꾸미기를 글로 쓰라하니 쑥스럽다. 다른시설 교사들도 다 하는 것을 가지고 괜히 생색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다. 굳이 말한다면 교사 자신의 생각과 사고의 힘이 아이들과의 생활속에서 얼마만큼 확장되고 있는가를 활동을 통해 검증하는 것, 작은것이라도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몰두, 호흡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벽꾸미기를 통해 나는 그런 재미를 느꼈다.

2001년 5월호

〈보육정책〉

보육교사 임면보고 폐지에 관하여

편집부

한국보육교사회는 지난 우리네아이들 3/4월호를 통해 2001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명시된 보육교사 임면보고와 경력관리의 한보편 이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부에 종전대로 구청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업무와 보육교사 임면보고 관련 업무를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첫째, 시설에서 무자격 교사를 채용할 위험이 있고 (이는 바로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관리 소홀이 우려되며

셋째, 교사의 경력관리가 전적으로 시설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어 (한보편

의 의사결정조직은 시설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황임) 이를 악용해 교사의 처우나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넷째, 경력증명서 공신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짐은 물론,

다섯째, 보육교사들의 일에 대한 의욕과 자부심이 현저히 저하될 것입니다.

여섯째,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시설종사자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관련법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임면보고 관련업무를 구청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종사자 임면보고 사항을 법적인거 마련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별 시설(어린이집)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개별 시설에서 경력관리를 담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위에서 열거한 문제 이외에 휴, 폐지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음

(2002년 보육사업안내 추가 사항)

1. 보육시설 폐지 또는 휴지시 종사자 경력관리 사항 추가

- 보육사업안내 50쪽에서 기 삭제된 “6) 종사자 임면보고” 란에 다음 사항을 대신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6) 보육시설 폐지 또는 휴지에 따른 경력관리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된 경우 종사자(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제출 받아 관리하면서, 동 시설에서 근무했던 종사자가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 동 사항을 추가한 이유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관리 및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를 해당 시설장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된 경우에는 종사자의 경력관리 및 증명서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이로 인한 종사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계법령이 삭제되었기에 현재로서는 공여지책으로 이런 정도의 대책밖에 세울 수 없다면 현장의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2001.05



지키기 위한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어린이집에 취업 후 가능한 한 빨리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아 근무 시작일이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재직증명서를 보관합니다. 또 시설을 그만둘 때도 바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근무일수가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명서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경력관리와 관련된 불이익이나 문제상황에 부딪쳤을 경우 한국보육교사회로 연락을 주십시오.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바탕으로 한국보육교사회는 계속적으로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7월호

〈여는 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제안하며

김종해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 나라의 보육정책의 기초는 이중성을 유지하여 왔다. 추상적인 목표 수준에서는 공보육을 지향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천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만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그 외의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보육 비용을 부담하는 선별주의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러한 기초 하에 보육 서비스의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특히 문민정부 시절의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은 시설의 양적 확충에 주안점을 둔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그 결과 2000년 9월 말 현재 19,266시설에서 684,361명의 어린이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으로 서비스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 시설 수 및 보육 아동의 양적 확충에서의 상당한 성과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초의 이중성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양적 보편주의와 질적 보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보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현행 법 제3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 비용의 부담

에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일부 빈곤계층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한 결과 보육시설이 공공시설로 발전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 의존 경향은 특히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의 실시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9월 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중 국공립시설은 전체 시설의 6.7%에 불과하고 민간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이 전체 시설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 수에 있어서는 국공립시설이 14.8%, 민간부문이 84.2%를 담당하고 있다.

보육 재정에 있어서는 정부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 총 보육재정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대체로 20%이하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이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결국 양적 보편주의의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도한 민간의존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은 보육, 출산과 육아의 문제가 이미 사적인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이미 변화하였다. 현대의 가족은 그 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 과거-농경시대의 대가족제도에서는 육아는 전적으로 가정의 문제였으며 실제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생활방식에서 취업이나 질병으로 어머니의 육아가 불가능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 내에서 육아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자급자족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이미 외부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서는 육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과거에는 사적인 문제였으나 이제는 공적인 문제로 바뀌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변화-특히 인구문제의 변화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인구는 1990년대 후반이후 인구증가율이 1%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출산율도 1999년도에 1.42으로 서구의 저출산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부양비는 2015년까지는 감소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총 부양비중에서 유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노년부양비가 계속 증가하고 노령화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규모가 우리 사회의 지속, 유지를 위한 적정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와 함께 노령화의 문제를 동시에 유발시킨다.



2001.07



인구 노령화는 낮은 출산율과 장수예의 기대가 복합되어 일으킨 문제로 노령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의존 연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노후 대비가 개별적으로, 가족(자식)의 책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 대비의 문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계층(청장년계층)의 부담으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의존연령인구 비율이 노인문제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단순히 노인문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결국 여성의 노동과 출산,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증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기능의 약화와 함께 가정에서 육아를 위한 환경, 아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보다 나빠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단순히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가정에서 육아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로 대두되고, 그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영유아보육법이 우리 사회의 미래의 변화와 사회적 필요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02년 1월호

(좋은 그림책 소개)

황소아저씨

글 권정생, 그림 정승식/ 길벗어린이 / 7,000원

오윤정·최원 한미어린이잡지

문학의 즐거움은 자신의 경험과 결합했을 때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갔던 시골집의 기억이 이 그림책을 자꾸 들여다보게 합니다.

지난겨울 이맘 때 전남 영산포 어느 시골에 아이들과 함께 겨울 여행을 갔습니다.

다섯 시간을 넘게 기차를 타고 또 봉고차로 바꿔 타고 들어간 시골은 집이 레아 이십 채를 넘지 못할 정도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집들은 웅기종기 모여 골목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묵은 집은 따로 혼자 길가 쪽으로 한 발 앞에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것처럼 마당에서 길가 쪽을

바라보면 신작로 넘어 저수지가 내려다보입니다.

이제 그때의 겨울밤을 이 책에서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겨울밤 뿔뿔소리를 내며 잠자고 있는 황소 등을 타고 구유 쪽으로 생쥐가 달려갑니다. 돌아가신 엄마 대신 동생들에게 줄 먹이를 찾으러 나온 생쥐입니다. 마음씨 좋은 황소 아저씨는 구유의 음식을 나누어줍니다. 동생들과 언니 생쥐는 황소아저씨와 친구가 되어 겨울이 다 지나가도록 따뜻하게 함께 살았답니다.

이 그림책은 색의 느낌이 강하게 전달됩니다. 밤이 느낌이 검정색이 아닌 푸른빛과 흰색으로 나타냈는데, 아주 적당한 듯 합니다. 누구든지 시골의 겨울밤을 보았다면 밋다 할만큼 사늘하면서도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배경의 자세한 묘사보다는 색으로 느낌을 표현한 듯합니다.

황소와 생쥐들이 함께 살게 되면서 그 겨울밤의 색은 따뜻한 노란빛을 띠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따뜻한 구들에 화로를 앞에 두고 앉아 있는 느낌이 듭니다.

큰 덩치의 황소아저씨의 마음도 따뜻하고, 동생들을 챙기는 언니 생쥐의 마음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문체가 좀더 큰 아이들의 동화를 읽는 듯 하지만 선생님이 잔잔히 읽어주고 아이들이 그림을 본다면 충분히 이야기의 메시지가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책에서는 찾기 힘든 아름다운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남은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씨를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배우길 바랍니다.

도시의 겨울의 느낌에 익숙한 아이들, 하얀 눈보다는 먼지와 섞여버린 눈을 보기 심상인 아이들,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불빛에 익숙한 아이들, 화려한 색상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지루하고 낯설게 여겨질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 책을 혼자서 읽고 또 읽고, 그림을 찬찬히 보고 아이들에게 읽어준다면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되겠지요. 물론 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은 것을 글과 그림을 통해 간접 경험하는 것이기에 한계가 있겠지만 추운 이 겨울에 꼭 읽히고 싶은 책입니다.

작년에 갔던 그 집 마당 한 칸에 소가 살던 외양간에 소는 사라지고 버려진 농기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그림책을 읽다보면 그 외양간에 살던 마음씨 착한 황소아저씨를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2002.01



2002.05

2002년 5월호

〈특집〉

보육교사 당신의 자리는 참 곱고 아름답습니다

편집부

올해 들어 보육교사들의 목소리가 부쩍 커졌습니다. 처음 보육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또는 사회적으로 요구받았던 '희생과 봉사'의 정신은 해마다 쌓이는 피로감과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버티낼 재간이 없어지고 점차 보육교사가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때 진정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친구로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이 5월은 참 많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가정과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 5월에 현재의 우리 보육교사의 모습을 반성하고 우리가 바라는 보육교사의 모습과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동료, 선배, 후배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해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 하나, 나는 이런 보육교사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네~

- 모든 아이를 사랑하자!

신바람 저는 아이가 장애아이든, 비장애아이든, 부모가 제대로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히려 장애아동이나 어려움에 처한 아동에 대해 보육교사의 손길을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마 전에 근무하던 시설에 있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자기 반에 있는 아이 뿐만이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써줘요. 그 사람의 기질이 꼭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내 것이지만 다른 반 아이들도 다 내 자식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반 선생님이 놓치는 것도 그 선생님이 짚어주기도 했어요. 같이 나들이를 가거나 다른 반 아이들과 섞여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때 우리 반 아이가 아니니까 그 아이를 등한시하고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아이들은 내 친구, 나도 아이가 되겠 노~~울~~자!

달롱이 보육교사가 교육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내가 해내고야 말아야한다는 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보육교사는 어떤 활동에 대해 미리 머리로 '그래, 이런 교육목표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날은 그런 활동이 교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예로 제가 얼마 전에 산에 가서 산가지들을 주워왔어요.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7세 아이들하고는 산가지놀이 활동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산가지 길이도 다르게 하고 굵기도 다른 것을 모아서 어린이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 펼쳐놓으니까 저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그냥 원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아이들에게 산가지 놀이를 하자고 했을 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게 엄규칙도 잘 안 지키고 저희들도 흥미가 떨어지니까 막 나가요. 나는 이것을 꼭 하고 싶은데 안되니까 그날은 하다가 "에이, 그만 뒤, 가서 놀아." 그랬어요. 그날은 제가 실망을 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되도 그만, 해도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아이들이 자율놀이 할 때 일대일로 하고 관심 있는 아이들 두세 명씩 하나씩 지금은 곧 잘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보육교사가 단기목표보다는 장기목표를 가지고 그 순간에는 활동이 안 되더라도 오랫동안 끈기를 가지고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활동 자체를 놀이로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터조 저는 이번에 3,4세반을 맡게 되었는데 큰 반일 때와는 느낌이 다르고 또, 더 예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고민되는 건 내가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아,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첩에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 할 수 있게 노력하자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눈빛만을 보고도 아이들의 느낌이나 생각을 알 수 있는 보육교사가 되고 싶어요.

나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보육교사는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일을 좋아하면 좋은 교사가 되고 오래 버틸 수 있는데 일로 생각을 하면 오래 못 하는 거죠. 보육교사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보육교사인 것 같아요.



난 사실 좋아서 이 일을 했는데 아주 냉정하게 '난 돈 벌려고 해' 라고 얘기하는 보육교사를 보면서 물론 그런 사람이 프로페셔널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잘해 내기도 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오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부족할 지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요. 포도주가 오래 묵어서 좋은 향기가 나듯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10년쯤 지나면 숙성한 향기가 나요. 저는 그렇게 되는 보육교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보육교사는 없어요.

- 자기반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햇님 저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지 내가 제대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는지 걱정이 돼요.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인지...

통강아지 최소한 그런 문제의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고 좋은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요.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고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잖아요.

나무바람 나는 보육교사이자 엄마인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낮에는 보육교사라는 공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사적인 시간 속에서 자기의 아이를 돌봐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아들한테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낮에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절제를 하고 아이들에게 잘 하는데 밤에는 긴장이 풀어져서 우리 아이를 혼도 많이 내고 그랬어요. 제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도 느끼면서 점점 말도 안 듣고 나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림에 '000나무바람 선생님 이름 바보' 라고 써 놓았어요. 아이는 정말 내가 미웠던 거지. 그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엄마들하고 같이 책을 읽고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부모들의 이야기' 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것을 계기로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엄마 보육교사들이 힘들 때 읽어보시라고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고 편안하게 자기 아이를 대하자는 거지요.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꼬꼬 저는 말 그대로 바른 생활·몸과 마음이 건강한 보육교사가 되고 싶어요.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

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정신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보육교사회 들어와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시야도 넓어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진달래 나는 건강한 보육교사들이 부러워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이제 저모의 입장이 되기도 했는데 아이의 선생님이 너무 마르고 기본적으로 약해요. 그 선생님 아픈 것을 보면서 내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건강하고 씩씩할 때 확실히 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씩씩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사고방식도 긍정적일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육교사가 체력도 좋고 건강해야지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를 보는 앞에서 내가 지치거나 아픈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들더라고요.

나무 보육교사경력이 좀 오래 되면 많이들 지치잖아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달간 일본연수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는 30대에도 계속 보육교사를 하고 있으면 대단한 연륜이라고. 10년 정도 보육교사를 하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에 가니까 30년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 분들을 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우리는 보육경력 한 10년쯤 되면 아이들하고 애감이 잘 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30년, 35년 동안 보육을 하면서도 아이들하고 노는데 머리로 세일러문(?) 같이 하고, 나이가 60인데도 아이들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건강 얘기가 나왔는데 보육교사가 건강해야 늘 아이들에게도 건강한 마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작년부터 영아와 지내면서 고마운 마음을 느꼈어요. 큰 아이들도 물론 재미있고 즐거운데 영아들은 몸을 많이 부대끼면서 느끼는 감사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이 순화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올해는 아이들 연령이 더 낮아져서 그 아이들과 고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들에게서 무언가를 받는다는 느



킴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귀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기 위해서
는 내가 건강해서- 그 일본의 선생님처럼 늙지도 않았는데 이 젊은
나이에- 캄캄하지는 않지만 캄캄하게 놀아주고 그래야 된다는 생
각이 들어요.

그 때 일본 가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연세 많으신 50대, 60대
분들이 활기차게 아이들하고 똑같이 놀아주는 것을 보면서 보육교
사는 나이를 잊어야 되는구나, 나이를 먹지 않는 보육교사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처음에는 우리 어땠지?

별이 저는 지금의 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올해 큰 반을 맡으면서 아이들
이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제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무 위협적인 말을 많
이 한다는 것을 느껴요. 집에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아침에 어
린이집에 오면서도 오늘은 목소리를 좀 높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
하는데 저녁에 보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참 고민이
많이 돼요.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보육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마
음이면 내가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돼요. 내 스스
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알고는 있는데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다
고는 하지만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목소리를 아이들 톤으
로 해주고 그리고 위협을 덜 하는(?) 보육교사가 좋은 보육교사가 아
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글초녀 저도 별이 쌤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가 인내력이 없어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
오늘 아이들과 잘 지내야지 하는데 어린이집에 가서는 아이들이
'아이'라는 생각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는 아이니까 지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 스스로 자꾸만 인내심을 잃고 정도에 지나친 혼을 낸다
든지 할 때 '왜 이렇게 내 인내심이 줄어들었을까?' 이런 자책을 많
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별이 선생님처럼 그랬어요. 항상 다시 처
음처럼, 아침처럼 마음가짐을 하고 가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또 경력이 짧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구요. 인내력이 있는 보육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보육교사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나요?

이야기 두을, 아름다운 보육교사 따라잡기

야마 내가 아는 선생님은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역할을 맡잖아요? 그 때
자기 역할도 자기역할이지만 막 나누려고 해요. "저긴 어떻게 잘 되
어가?" 하면서 힘들어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 그런 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
면 그 모습이 참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챙겨주고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
시에는 피곤하기도 하고 참견 같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행동이
그 사람의 품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달래 제가 얼마 전에 비고츠키에 관한 책을 봤어요. 거기에는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이 많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며 따
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이들에게 해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교육활동을 할 경우에도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활
동을 하면서 어떤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제가 아는 보육교사 하나는 아침에 아이들과 놀이터로 나갈 때 아주
못생긴 생쥐 인형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놀이터로 나가는 아이들 하
나 하나에게 그 생쥐로 뽀뽀를 해주면서 "재미있게 놀아" 라고 얘기
하면서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냥
보면 참 유치해 보여요. 볼 때마다 좀 우스웠어요. 아이들도 처음에
생쥐가 뽀뽀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웃고 이상한 표정도 짓고 했어
요. 그런데 매일 나갈 때마다 뽀뽀를 해주고 한 명씩 내보내주고 하
니까 아이들이 앉아서 생쥐가 자기에게 뽀뽀를 해줄 때까지 예쁘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교사의 손을 많이 기다리잖아요.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이
라도 안아주고 끌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시설이 큰 곳에서는 보육
교사가 아이들보다 높은 시선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사고가 나는
지를 살피는 게 하기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나랑 같이 그 책을 공부한 사람인데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실천하고, 게다가 나처럼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해봐야
겠다는 아니라 막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일대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공부한 내용을 현장에 결합시키고 그 결합시키는 마음자세가 아이



들을 중심에 놓고 아이랑 눈맞춰 주는 그 보육교사를 보면서 '참, 저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사리 저는 어떤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 이서 소개를 하려고요. 어린이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깥을 나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집에서 어머니 가 옷을 제대로 챙겨 입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그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히는 거 예요.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보관하고 있는 옷들 중에서 골라서, 예쁘게 머리로 빗겨서...

그래서 물어 봤어요. 왜 아이에게 옷을 바꿔주는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린이집 안에서는 그 아이에 대한 사정을 다 알아서 차별적인 것이 없을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아이가 밖으로 나가서의 느끼는 것들이 고민이 돼서 어디 갈 때마다 옷에 대해 신경을 쓰고 외출복을 따로 준비해 둔대요.

그것은 미리 어린이집 교사회의에서 논의된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 으로 건의한 것도 아니에요.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안에서 아이 하나 하나를 보살피는 것 말고도 아이가 밖에 나가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고민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 는 그 교사를 보면서, 그것이 몇 년 전의 일임에도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나비 나는 그 사람의 전체를 담고 싶다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났지만 저 사 람에게는 저런 걸, 이 사람에게는 이런 걸 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 요. 사람마다의 얼마만큼씩의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 무지하게 말쑥꾸러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가 벽장에 자주 들어가요. 들어갈 때마다 나와라 라고 했지 그 아 이가 거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어느 날 청소를 하려고 벽장을 열어보니 온통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싸인펜, 크레파스 등으로 낙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야 단을 쳐야 하나 하고 난감해 하고 있는데 같이 있던 교사가 "선생님 이 잘못 했구나.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종이랑 필기도구를 안 준 건 내 실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 았지요. 아, 내가 이 아이 행동의 잘 잘못을 혼내기 전에 내가 이 아 이 육구에 얼마나 반응하려고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꾸러기 저도 담고 싶은 교사가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죽 쳐져 있을 때는 막 몸으로 신나게 아이들과 놀고 있는 선생

님을 보면 '맛아, 저렇게 놀아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놀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또 어떤 교사는 영어반 교사인 데, 솔직히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 런데 그 선생님은 다른 반 아이라도 "어머, 애 똥 똌네." 하면서 스스럼없이 가리지 않고 해요. 굳은 일이어도 네 일 내 일 가리지 않고 하는 교사를 보면 달고 싶어요.

또 무슨 일을 할 때 "no" 소리를 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게 다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이 있을 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늘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달고 싶어요.

무지개 나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훌 륭한 보육교사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 고 아이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하 고 '제대로 못하면 부모자격도 없다'는 등등의 불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 선생님은 나처럼 결혼도 안 했고 아 이도 낳지 않았는데 부모들과의 관계를 잘 푸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그렇지 는 않 아 보였어요. 다만 그 선생님은 부모들과 이야기 할 때 부모에게 보 육교사로서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일을 해야 하는 엄마의 심정 등을 이 해를 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도 무리하게 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춰서, 또 어린이집에서 요구하거나 부탁한 것을 잘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일방적인 제 모습에 좀 반성을 했지요.

이아 어떤 선생님이 공부방에서 일을 하는데 그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대 표를 뽑자고 하더라고요. 손들고 후보도 추천하고, 개통이 딸똥이 등 등 이름을 칠판에 적다가 한 아이가 선생님을 추천했대요. 선생님이 두 분인데 둘 다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보 한 명씩 나와서 출마 의 변을 하는데 선생님들도 했어요. 한 선생님은 "나는 선생님인데 어떻게 공부방 대표를 하겠나?"라고 못하겠더라 나갔어요. 그런데 한 선생님은 "저를 공부방 대표를 시켜주시면 하루에 한번씩 받아 쓰기를 하구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대청소 하구요, 하루에 꼭 한 권 씩 책을 읽구요."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두 분의 얘기가 너무 차이 가 나죠? 둘 다 똑같이 '나는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한 선생



님은 직접적으로 애길 한 거고 한 사람은 정말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죠. 하루에 한 번씩 밤아스기하고 그런다는데 누가 그 사람을 대표로 시켜주겠어요? 그것은 정말 자기가 함께 있는 아이들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모습이지요.

나비 저는 또 이런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게 감사한데요, 그분은 지금은 방과후보육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예전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했어요. 그러다 그 곳을 다니는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가 되니까 방과후 보육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냥 주육 키운 거죠. 그 아이들이 근처의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맞이하러 학교로 간대요. 공부방에 앉아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물론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도 가능하겠지만 학교 앞으로 찾아가면 아이들이 저만치서 선생님을 발견하면 너무 좋아서 - 요즘은 엄마들도 마중 별로 안 가잖아요? -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달려와서 안긴대요. 저는 그 장면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에게만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은 혼자 살고 있는데 주말에 동네 아이들이 자기 집 앞에서 놀고 있으면 "밥은 먹었나?" 하면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라면도 먹이고 그런대요. 사실 보육교사들이 주중에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시달려서 주말에 굉장히 쉬고 싶잖아요. 이 선생님은 휴일에 자기 집을 개방해서 동네 아이들과 지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이들이라도 맞이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느꼈어요.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감동의 물결이군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고 또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배우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많기에 우리에게는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세엿. 그래도 버려야 할 우리의 모습들....

우리들의 버려야 할 모습에 대해 양심선언(?)을 해 주신 분들의 신분보호를 위해... 지면관계상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없고, 음성 변조는 더욱 할 수 없고, 선생님들이 쓰는 별칭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그 날 먹은 음식들을 별칭으로 붙여 소개합니다.

상추 예전에 제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원에서 공부할 때 있었어요. 수업 일정 중에 보육현장 탐방이라는 것이 있었죠. 교육원

에서 지정해 준 시설에 가서 현장보육교사도 만나고 시설도 둘러보고 하는 일종의 참관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간 곳이 국공립 어린이집이었어요. 그 때만 해도 영아보육이 생겨난 지 얼마 안되면 때라 저는 영아보육교사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아보육교사라는 사람이 자기네 반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영아들과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 사람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 사람 얼굴과 손톱만 봤어요. 얼굴은 진하게 화장을 하고 손톱은 길어서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더라고요. 순간 저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안고 씻기고 먹이며 생활하는 보육교사가 어떻게 그렇게 곱게 화장하고 게다가 길다란 손톱에 매니큐어까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손톱교육원생들이 온다니까 꾸밈을 수도 있지만 긴 손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손톱으로 아이들 기저귀 갈다가 통이라도 끼면, 아이 몸에 상처라도 내면... 하는 생각이 들어 아주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손톱을 짧게 깎아요.

폭발 나는 아이들한테는 '인사를 잘 해라, 고맙다' 라고 해야지, 미안하다고 해야지' 하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는 절대 그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보육교사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쩌다 한 아이가 인사를 안 하면 쫓아가서라도 인사를 하게 하면서 정작 자기가 실수했을 때는 그냥 슬쩍 넘어가요. 아마 권위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그거 틀렸잖아요?" 하면 미안하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가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권위가 상실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존경받고자 하면서 과연 우리는 아이들을 얼마나 존중해 봤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파전 저는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 5세반 30명 아이들을 한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선생님의 보조를 했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50cm짜리 자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다른데도 아니고 머리를.... 저는 체벌은 정말 반대해요.

국수 나는 아이가 통을 썼을 때 고무장갑을 끼고 아이영명이를 닦아주는 것을 반대해요. 아이를 키워봐서 그런지 우리 얘기 통도 예뻐했어요. 그런데 더럽다며 고무장갑을 끼고 닦는다는 것은....



죽발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변을 씻기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땀손으로 닦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위생장갑을 끼고 닦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손에 위생장갑을 끼는 것은 보육교사의 그 손으로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안아도 주고 하기 때문에 또 혹시 똥이 덜 닦여서 다른 아이에게 굳이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위생에 대해 염려해서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도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추 그렇지만 특히 영아보육교사라면 아이가 똥을 어떤 색을 썼는지, 똥에 무엇이 나왔는지 등등 아이의 변을 해집고 관찰은 못하더라도 똥이 더럽기 때문에 자기 손에 안 묻히려고 고무장갑을 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네요. 나도 처음 보육교사 할 때는 고무장갑을 껴었는데 그 느낌이 까끌까끌 하고 차가워서 땀 살에 닿으면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는 땀손으로 닦아주는데... 고무장갑사이 틈에 똥 끼는 게 더 비위생적이잖아요.

마늘 어느 집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집 아이가 선생님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무섭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기저귀를 채워주겠다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통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위협적인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영아반에 보내겠다 라든가, 널 안 데리고 가겠다 라든가, 기저귀를 채우겠다, 간식 안 먹으면 나가라는 등, 우리끼리 놀겠다든가...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어린이집에서 종종 하고 있고 그게 안 좋다는 것도 아는데, 실제로 그 말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나는 어른이고 너희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나 크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얘기에 놀랐었나 하면 선생님들이 하는 언어의 위협이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인상 깊게 들렸다는 거지요. 그것이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고... 우리 어른들끼리 얘기 할 때는 듣기 싫은 소리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싫다고, 그런데 보육교사와 아이의 관계는 이상하게 보육교사가 우위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 그것이 영아이든 유아이든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 그게 더 위협적일 수 - 낮은 소리임에도 -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참 안 되더라구요. 직행(?)으로 통하는 효과를 생각하다보니깐...

죽발 나시기 좋아하는 사람.

그냥 나시기 좋아하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답임도 아니면서 자기가 아는 부모가 오면 뛰어나와 가지고 부모에게 아이가 오늘 하루 어땠다 저했다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 부모하고 친하더라도 답임이 있는데 미리 먼저 나서는 건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얘기를 전달하려면 잘 전달해야 하는데 그럴지도 못해서 오해를 만들기도 해요. 아이를 돌보는 것은 내 아이, 남의 아이 가리지 말아야겠지만 부모 상담 등은 답임에게 맡겨야지요. 자기가 간섭하는 것은 다른 보육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국수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조출해서 아이들은 놀게 하고 자기는 TV켜 놓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간식 시간에 신문보고, 그러다 안전사고가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근무를 시작했으면 그 시간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해야지 어떻게 성인용 드라마를 볼 수 있나요? 요즘은 이런 보육교사는 없을 거예요.

죽발 나도 또 생각했는데 스승의 날 몇일 전에 아이들에게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얘기해서 은근히 사오라고 압력을 넣는 사람, 받은 선물 늘어놓고 토크회 하는 사람, 개인적인 일면예문제 등으로 3일 동안 무단 결근하는 무책임한 사람, 감정조절을 못해서 애들 앞에서 어른끼리 싸우는 보육교사 등등 이것저것 따져보니 버려야 할 모습이 좀 있네요.

햇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보육교사를 하면서 너무 지쳐서 다시는 보육교사를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서도 또다시 배운 게 이것 밖에 없다고 고민을 해요.

통장이지 저는 배운 게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또 보육교사를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 사람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동료에게도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우리 보육교사들도 옆에서 누군가가 즐겁게 신나게 일 하면 그걸 보면서 또 힘을 얻는데 옆에서 지치고 지겹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라면 차라리 다른 일을 택해야지요. 어디 가서 일 하면 보육교사만큼 못 받겠어요?

나비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하고 또 보육교사를 하면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를 알려줘야겠지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머, 저건 내 모습이었어' 하며 반성하기도 하고 '세상에 무슨 그런 사람이 보육교사야, 그런 사람은 자격을 없애야 해!' 하



2003.07

2003년 7월호

〈현장소식〉

아린 산물 받아본 적 있수?

박인해 / 서울 뽀뽀이어린이집

“스승의 날 특별히 신경 쓰지 마세요. 평소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덧붙인다. “서운하면 아이들과 맛있게 먹게 간식거리 마련해 주세요.”

매년 5월 중순 무렵이면 부모들한테 하는 말이다.

허나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마음 한 구석이 좀 씁쓸해진다.

스승의 날이 부모들한테 부담스럽게 자리잡은 사회적 분위기가 싫고 그래서 부담 갖지 말라고 일일이 챙겨야 하는 내 입장은 더 싫고.

어느 해인가 현관문에 ‘뽀뽀이 이모들은 스승의 날에 꽃과 선물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란 안내문을 붙여놓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민망해 들고 날 때 현관문을 툭툭 쳐다보지 못했던 기억도 있다.

어찌되었든 뽀뽀이는 4년 전부터 5월 15일날 오전엔 편지 읽는 맛에 지내고 오후 간식시간은 엄마들이 마련해 주는 푸짐한 음식 먹는 맛에 지낸다.

올해도 기대수준은 편지는 몇 봉이나 올까, 간식은 뭘 먹고 싶다고 주문할까 있다.

그런데,

2003년 5월 15일 아침은 다른 날이 되었다.

월드컵 4강 진출보다 더 큰 감동의 날이다.

손가락이 바르르 떨리며 가슴 밑바닥을 치받고 올라오는 뭉클함에 눈물이 맺힌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앨범에 담겨진 아이들의 모습, 엄마, 아빠의 모습, 할머니, 언니, 누나, 동생 모습, 사춘기들의 아이들 편지, 엄마, 아빠가 쓴 편지.

넘기는 장마다 “세상에, 세상에”란 감탄사만 나온다.

5년 다닌 농의 한 해 한 해 변천사, 이모들이 보지 못했던 뽀뽀이 다니기

전의 아가적 모습, 가족사진 중에 제일 멋지게 나온 사진만 골라서 붙인 김등, 집집마다 온갖 재주를 동원해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으로 꾸며진 스승의 날 기념 뽀뽀이 아이들 가족 앨범(보여주지 않고 설명하기가 너무도 힘들다).

3월 부모회에서 은밀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4월 달부터 각 집에 앨범을 분철해 한 장 한 장 나눠주고(공평을 기하기 위해 내용 채우기는 한 장으로 제한했다 함) 5월 14일까지 뽀뽀이 현관 앞 세탁기를 우체통 삼아 모아 모아서 이렇게나 멋지고 멋진 선물을 마련했던 후일담을 듣는 데 그 마음 쏘에 다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런 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온다.

“이지 한 번 볼래? 이 세상 선생님들 중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 받은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 봐!”

그리곤 한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아 놓고 자랑하는 내 모습에 빙그레 웃음 짓는다.



2003.11

2003년 11월호

〈보육정책〉

보육조례 제·개정에 대한 정책 제안

서정은(본회 정책위원)

최근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수원 등을 비롯, 각 지역에서 보육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한 2003년 10월에 보육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군포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작업도 활발하다.

이러한 보육조례 제·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여러 민간단체들의 관심과 열의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포석의 하나라는 점,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여성단체, 지역단체가 눈을 돌린 결과라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 그 외에도 1991년 영유아보육법 이후 보육사업에 대한 변화된 요구와 기대가 보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념과 구체적 시행에 대한 명시로서 ‘보육조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토록 한다.

요보호 아동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심의 특별한 계층, 특수한 요구로 사고하던 보육사업은 이제 지역주민의 보편적 요구와 생활복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점차 지역 속에서 차별화된 정책과 행정을 갖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보육문제는 영유아 보호·양육에 관해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을 중



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단일한 보육사업지침을 통한 해결에서 한계에 이르렀으며, 지역 고유의 특별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법에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갖게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역의 보육사무에 대해 정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지역 보육조례 제·개정 활동을 움직이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본 회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속에서 보육조례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토론한 결과 각 지역보육조례 제·개정 활동과 '보육조례'에 담을 내용 및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보육조례 제·개정 활동을 위한 제언

1) 각 지역에 보육사업을 명시한 조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제주지역에 보육사업을 내용으로 명시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매우 큰 차이를 갖고 있어, 경기도의 경우에는 31개 시·군 중 화성, 하남 등 단 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29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보육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나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에 보육관련 조례가 있다면, 내용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각 지역의 보육조례는 크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한 '보육조례'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으며, 이들 조례에 대한 지역의 검토가 필요하다.

'보육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정 지원 등을 가능한 한 명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변화된 보육현실과 요구에 비추어 봤을 때 각 조항에 대한 재논의와 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통한 보육조례 개정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몇 개의 시(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해 명시하여 내용상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해당 지역의 보육조례 내용에 명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3) 지역에 보육관련 조례가 없다면, 다른 규칙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보육사업을 명시한 조례가 없더라도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경우, 보육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없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운영규칙이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보육조례가 없는 가운데 조례와 유사한 효력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행정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보육조례 제·개정을 위한 지역의 여론 수렴과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보육조례는 영유아 보육에 일차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요구와 보육현장을 지키는 보육사업 관계자,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담당 공무원 및 의회,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적 숙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관계자들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원칙 아래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과 범위에 대해 개방적인 협의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5)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범위에 따라 보육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각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제반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상황에 적합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보육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이미 제정된 조례들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 있음에도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조례가 많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 보육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과 방향

현재 많은 지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보육조례는 각 지역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육조례는 지역행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첨가와 더불어 변화된 보육환경과 기대에 맞지 않는 남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보육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과 방향에 대해 기존의 조례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졌거나 소홀히 되었던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 보육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정 지원 등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선택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시·군·구(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한적 규정만을 담은 '설치 및 운영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

2) 보육조례는 아동보육을 둘러싼 성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아동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국가, 지역주민과의 협동적인 노력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 등 관계자와 부모 등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보육사업 속에서 협력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협력적 노력, 보육사업과 아동권리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홍보, 보육사업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지원과 제휴 노력 등이 포함될 것이다.

3) 보육조례는 아동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육조례의 목적조항을 살펴보면, 빠짐없이 '아동의 인권(권익) 향상'을 주요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조항에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경기도 군포시의 보육정보센터 기능으로 아동 학대프로그램을 추가한 것 정도이다.

일반 아동의 권익향상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조례에서도 제대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보육사업 속에서 다뤄져야 할 아동인권의 증진과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적어도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내 안전관리 체제 정비, 보육시설 내 학대 및 체벌 금지와 방지노력, 보육아동에 대한 차별금지과 방지 노력, 보육 아동 개개인의 정보와 문서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보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아동 의견의 청취, 부당한 사항에 대한 보육아동의 상담 및 구제요청에 대한 노력 등이 포함될 것이다.

4) 보육조례는 종사자 권익 보장과 증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육사업이 종사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높은 이직률에 따른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질의 보육사업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매우 당연하다. 따라서 양질의 보육사업을 위한 필요조

건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과 증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의 적절한 관리, 보육교사의 적절한 재교육 및 훈련, 재교육 및 훈련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다.

5) 보육조례는 보육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구성과 기능, 직무에 대한 명시가 재조정되어야 한다.

일년에 한 두 차례의 회의에, 공무원의 보고에 따른 형식적 안전을 단순히 심의하는 정도인 보육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보육사업에 대한 욕구와 기대를 수렴한 전문 인력의 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해당사자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과반수 보육위원의 인건 발의 기능 추가, 직무 수행에 대한 정기적 보고, 상하반기 정례적인 회의 규정 등이 포함될 것이다.

6) 보육조례는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지역적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보육정보센터는 지역의 보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에서 보육사업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의 보육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융통성 있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여러 가용자원에 대한 신속한 자료 조사와 정보 제공,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력관리, 아동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보육정보센터의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보육조례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세부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육사업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규정이 보육조례에 담겨야 한다.

시·군·구(공)립 보육시설의 설치의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도 기존의 사회복지 업무와는 다른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조건으로서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수탁자의 선정기준의 제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위탁

기간 만료 후 종사자 신분보장, 위탁기간, 위탁평가에 따른 재위탁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8) 보육조례는 보육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재정보조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현재 보육사업에서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유한 시설수나 아동수를 비취보아도 매우 크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들 민간부분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대다수의 보육아동을 위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조례의 구체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재정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보육조례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책 속에서 좀 더 많은 수의 보육아동과 부모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9) 보육조례는 보육사업에 대한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지역은 보육사업 예산 확충, 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향상, 특성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와 기대 수렴 등 장기적인 보육사업 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보육조례는 보육사업이 발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계획의 논의와 수립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2004년 5월호

《아이들과의 하루》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명상

이성봉(서울지부 회원)

내가 그 어린이집에 처음 들어간 것이 2002년 3월이었으니 이제 첫수로 3년, 만 2년이 다 되가는 셈이다. 처음 5세반을 맡았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지금은 6, 7세 혼합반을 하고 있고 올해도 할 예정이니 계속 다니는 아이들은 내가 3년 동안 돌봐주는 셈이 된다. 올해 그만두는 아이들도 예정이 가는 것이 2년 이상 봤던 아이들이 절반정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나 같으면 2년 정도 다닌 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말고 싶을 텐데 2월 20일 수료를 앞두고 그만두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계속 남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친구들은 방학동안 어린이집에 못 나오는 일주일이나 아깝다며 그만 둔다고 한다. (2월 23일 ~ 28일 방학)

예의 있게 일주일이나 한달 전에 알려주는 경우도 없고 모두들 2월이 다 지나 그런 소리들을 한다. 하루 이를 걸석을 해서 전화를 해보면 어김없이 "선생님~ 죄송해서 어쩌죠? 우리 ○○이 이제 유치원 다녀서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며칠 있으면 수료인데 끝까지 다니시면 안될까요? 너무 아쉬워서요."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애가 몸이 아파서요." 등등 변명 변명, 어쩌구 저쩌구,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는 다시 며칠 전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모든 관계는 끝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코흘리개 때부터 1, 2년 어린이집에서 쑥쑥 자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그만 둘 때 이렇게 그만두어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데..

계다가 예고없이 아이가 그만두는 문제는 교사 개인의 상실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전체에도 피해를 준다. 우리 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어서 한달 예산이 모두 지출되도록 짜여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가 해당월에 갑자기 그만두니 신입원아를 뽑을 수도 없다. 괜히 내가 원장선생님께 민망하고 월급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반 아이들이 그만두니 정말 난처할 따름이다. 게다가 한명 한명 차례로 그만두는 아이들을 보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능력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에 싸이게 된다. 떠나는 그 사람들도 알려지지.

오늘도 내가 5살때 3-4개월간 매일 오종 썬 바지 갈아입히던 영희(가명)가 그만 두었다.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해서 매일 원장선생님과 내가 번갈아가며 등에 업어 낮잠을 재웠던 영희 적응한 뒤엔 여자친구지만 장난이 심해서 웬만한 남자아이보다 더 개구장이로 내 속을 많이 썩이기도 하고 귀여운 짓도 많이 해서 미워할 수 없는 친구였는데.

어제 오랜만에 찾아온 아이엄마가 그만두겠다길래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오늘은 전화도 없이 아이가 "엄마가 그만 다니려요"한다. 외삼촌이 계신 금산에서 가지고 온 인삼밭 한봉과 함께, 며칠 전부터 생일 파티 때 무슨 선물 해달라고 조르더니 오늘은 "엄마가 ○○도 사주고 아빠가 ○○도



2004.05



사준다고 약속했어요. 나 어린이집 안와도 돼요”한다.

침없고 티없는 어린이지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훌쩍. 지금까지 키워 왔더니 이럴 수가. “영희야~~ 너 수료식까지 다니라고 그랬잖아. 약속했잖아~~”하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그동안 내가 뭘하고 살았나 싶다. 일주일 방학이 잘못인지(배해마다 방학이 있었지만 이런 해는 처음이었음), 내가 부모를 잘못 길들인 것인지. 어린이집에 돈을 내는 만큼만 자신들도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건지도 모르겠다.

떠날 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걸까?

난 영희가 떠날 때 너무나 아쉽고 눈물뿌리며 떠나보낼 줄 알았는데.

엄마대신 마지막 인사를 하러온 초등학교 사촌언니 손을 잡고 신나서 가는 영희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어린이집에 오는 모든 부모들이여. 처음처럼 지극 정성은 아니더라도 고마운 인사와 말 한마디 남기면 안될까?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사들이 쓸데없는 자괴감 느끼지 않도록.

2004년 9월호

〈포괄적사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노는 단오 되찾기

-방아골과 지역 단체들의 '포인트' 단오축제 취재기-

황미혜(회원)

버박이의 취재글 쓰기, 내 기억력을 시험하라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을 씻고 얼음물을 들이켜봐도 말 그대로 '시원찮다'. '삼복'은 다 지나가는데 '더위'는 여전히 갈수록 여름나기가 고행으로 다가온다. 한여름 땀방울 건더낸 벼이삭이 제 고개를 숙이듯이 여름 더위로 인한 짜증을 속으로 삭히며 지내는 나도 선선한 가을바람 불 즈음이면 철이 들어 겸손히 고개 숙일 줄 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건지.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방울이 땀거리로 스기 타는 이 무더위에 취재 부탁에 거절 못해 고개 숙인 나는 며칠, 정말 며칠, 우리 집과 정반대에 위치한, 그래서 같은 서울이지만 서울서 대전 가는 것만큼 시간 걸리는 방아골 어린이집 - 복지관을 찾았다.

취재 사유인즉 단오라는 민속절기를 지역행사로, 그것도 어린이집과 복지관, 지역 다른 조직들이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중에 다른 보육시설에서도 영감을 받아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지역내 다른 기관과도 연계해볼 수 있게 해보자는 것이었다.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를 골고루 다 타보는 것도 모자라 중앙버스전용차로까지, 서울시장이 특별히 준비한 버스체계개편 이벤트를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찾아가 그 곳, 방아골 어린이집 오윤정 원장(늘 언니라 부르던 이를 이리 칭하니 좀 어색하고 쑥스럽다)의 안내를 받아 우선 방아골 복지관의 한진 지역팀장을 만나고 내 취재대상이 된 세 여인네와 증거사진 한 방 찍고는 어린이집 손진숙 주임교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미리 인터뷰를 준비한답시고 방아골 복지관 홈페이지를 둘러봤지만 단오축제에 대한 자료라곤 행사 개최에 대한 간단한 공지밖에 눈에 띄질 않아 또 머릿속이 텅 빈 상태로 취재를 하거나 탁자 위에 놓인 녹음기가 쑥스러울 지경이다. 그래도 「우리네 아이들」 지면을 펑크 낼 수는 없는지라 그 버벅대는 소리에 용케 적절한 답변을 해주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옮겨보려 한다.

그런데 아꼈싸, 어찌 된 노릇인지 녹음테이프에선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마이크를 쓰지 않아서인가, 아님 내 녹음기가 아니어서 작동법에 미숙해서인가? 그런데 작동법 미숙이라기엔 녹음은 너무나 단순한 기교가 아니던가. 다행히 인터뷰하면서 수첩에 적어둔 것이 있어 평범하기 그지없는 나의 아이큐와 수첩에 개발과발로 적힌 암호문 같은 글들을 풀어 취재글이라는 격조 높은(?) 문장으로 승화시키려 하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감안하여 주시길.

지역주민과의 만남, 그 꼬투리를 찾아서

복지관이라면 으레 그렇듯이 방아골 복지관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정 계층에 집중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그러나 틈을 메우고 차이를 줄이는 것만으로 '지역이 사는' 것은 아니다. 매년 한 차례씩은 바자회나 음악회 같은 행사로 주민들을 만나고 후원금도 조성했지만 '지역이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기엔 좀 약하다 싶었다. 그리하여 올해 활동계획을 고민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공동체성을 회복해보자고 연 2회 지역행사를 마련해보기로 했다. 지역행사는 복지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법인에 속한, 동일건물에 입주해있는 4개 기관 - 복지관, 어린이집, 노인주간보호센터, 자활후견기관 - 이 각자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네 기관을 일일이 말하는 것은 소모적이라 통틀어 그냥 '방아골'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꼬투리'였다. 지역주민들과 편하게 만날 '꼬투리', 어린이날에



2004.09



지역행사를 개최하면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겠지만 이미 어린이날은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이 합동으로 아동행사를 해오던 참이었다. 뭔가 다른 '꼬투리'가 필요했다. 열심히 찾아 헤매던 중 신선한 '꼬투리' 하나 발견하였으니, 이름하여 단오. 지금은 그저 창포물에 머리 감기 정도로만 기억되는 단오가 실은 정월 대보름만큼이나 커다란 마을잔치날이었다니 지역주민을 한데 묶는데 이만큼 좋은 '꼬투리'도 없는 셈이다.

원래 단오는 옛 조상들이 모내기일을 마치고 잠시 한가한 틈을 타 풍년을 기원하며 놀이를 즐기던 민속절기이다. 때는 음력 5월이라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더위와 전염병을 미리 대비하고자 여러 액막이 풍습도 전해 내려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도령과 성춘향이 첫 대면을 한 것도 바로 이 단오날 떠돌이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하니 그 옛적 단오는 지금의 크리스마스처럼 사람 들뜨게 하는 날이지 않았을까 싶다.

조금 늦은 감을 떨쳐버리기는 힘들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단오의 유래부터 찾아보기 시작하여 그 옛날 마을의 풍년과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하나가 되었던 마을잔치를 부활시키고자 애를 썼지만, 촉박한 일정에 처음으로 준비하는 단오잔치는 모든 것이 더디게만 느껴졌다. 과연 단오에 단오잔치를 할 수 있을까.

마로 또 같이 - 네트워크로 살아나다

내 기관에서 한 명씩 대표로 참석하는 기획팀이 진행의 부진함에 다소 힘이 빠져있을 무렵, 지역내 한 어린이집에서 매년 단오행사를 벌여왔다는 정보를 입수한 오윤정 원장은 공동주최를 건의했다. 방아골은 그 곳, 꿈꾸는 어린이집과 접선을 시도했다. 꿈꾸는 어린이집 단오행사는 서울시 프로젝트 선정되어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도 가능한 상태였다.

여기서 잠깐. 작년에 진행했던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에서 네트워크에 대해 학습한 바를 복습해보자.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나? 우선 참여범위 및 영역에 대한 합의, 참여 조직들에게 교환 가능한 자원과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네트워크는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반드시 상호적이어야 하고 파트너 간에 힘과 영향력이 제대로 분배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정되는 네트워크는 서로 독자적인 조직들이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면서 정보공유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협력(cooperation), 분리된 조직이 불필요한 중복이나 조직간 갈등과 낭비를 피

하고자 할 때가 조정(coordination), 마지막으로 분리된 각 조직이 단일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참여(join)하여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계하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를 합작(collaboration)이라 한다. 자 그렇다면 방아골과 꿈꾸는 어린이집이 만든 네트워크 형태는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할까? 정답은 합작이다.

일단 방아골과 꿈꾸는 어린이집은 단오잔치라는 공통의 목적, 방학동 주민이라는 공동의 대상, 그리고 조직적 특성에서 드러나는 교환가능한 차이점들이 있었다. 방아골은 네 기관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력과 조직력, 지역적 기반을 자랑하였다. 반면 꿈꾸는 어린이집은 단오잔치를 해마다 해오면서 단오에 대한 확실한 인지와 행사 경험이 있었다.

또 도봉구 자체가 네트워크가 활발한 지역이다 보니, 꿈꾸는 측과 직접적인 연계는 없었다 하더라도 지역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단체에 꿈꾸는 학부모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어린이날 지역행사 공동주최로 안면은 있던 관계여서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던 터였기에 서로 협력하기가 훨씬 수월한 측면도 있었다.

하나의 공동행사를 위해 각 조직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 내어놓으면 서 비어있던 부분을 채우고 틈을 메우고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것은 네트워크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 서로 다른 조직이 하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쉬우리오? 이미 진도야 어찌 되었건 나름의 계획과 의미를 담고 준비과정에 있던 차였다. 500명 이상 규모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행사를 기획한 방아골 측과 아동과 학부모 중심으로 100명 규모 예상한 꿈꾸는 측의 기획안은 확연한 차이를 담고 있었다. 규모와 대상의 차이뿐 아니라 예산과 그로 인한 프로그램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한쪽은 단오에 대해 이제 막 알아가면서 일을 꾸려가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단오에 대해 익히 알고 있어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를 주도하기도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꿈꾸는 어린이집에다 삼각산 재미난학교까지,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단체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회의는 조정하고 합의할 것들이 의외로 많아 시간을 많이 요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논의를 거치면서 생각하고 수정하고 보완하여 확정된 기획안은 초기에 부른 꿈을 안고 기획했던 것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있었다.

주민들 함께 다 노는 날이라고 단오던가?

참여단체 수준에 따라 재정을 부담하고, 각자 맡은 곳에 홍보활동도 벌이면서 행사에 관한 모든 과정을 각 기관이 함께 하였다. 행사 당일 운영되는



각 마당도 조직별로 나눠 맡았다. 어디는 씨름을 맡고 어디는 비석 치기를 맡아 진행하는 식이다. 덕분에 다음에 또 지역행사를 벌인다 해도 어느 조직이고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행사준비 초기에 이미 꿈꾸는 어린이집에서 준비주체들을 모아놓고 단오에 대한 사전교육과 민속놀이 시연 프로그램을 진행했기에 마당을 진행하는 것도 그다지 걱정될 바가 아니었다.

6월 27일 일요일 날씨 맑음.

전날까지 비 오고 잔뜩 흐렸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이뤄지는 단오잔치여서 인지 하늘이 도와 화창하다 못해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 원래 단오는 6월 22일 화요일이었지만 많은 단체가 함께 하다보니 각자의 일정에 맞추려다 제 날짜를 지나치게 되었다.

단오잔치는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어 진행되었다. 운동장을 빌려준 학교측에서 가정통신문으로 단오잔치를 홍보해준 덕에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이 북적대는 행사였다.

먹거리 마당에서는 영두화채와 썩떡, 익초초증을 시식하고 나면 그 옆 먹거리 장터에서 시식으로 감질난 입을 본격적으로 달랠 수 있었고, 놀이마당에서는 뜨거운 햇볕에도 아랑곳없이 씨름과 비석치기, 긴 줄넘기, 사방치기가 한창이었다. 참여마당에서는 옛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사악한 것을 피하려고 오색 실로 만들어 팔에 걸고 다녔던 실팔찌인 장명루를 만들고 창포물에 서로 머리를 감겨주고 수건을 천연염색으로 물들이고 단오부채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방아골 어린이집에서 담당할 천연염색마당은 마당 흥미도를 알아보는 스티커 붙이기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양 편 감나무에 긴 줄을 매달아, 운동장을 가로 지르며 바람에 나무끼는, 저마다 이름이 적힌 노란 치자물의 손수건들은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 덕에 운동장 여기 저기 나무마다 줄을 매달아 손수건을 널고도 모자라 들고 다니면서 염색이 마르게 할 지경이었으니, 그림책 「도깨비를 찾아버린 우리 엄마」의 두 쪽을 가득 채운 그 빨래들이 생각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모르겠다.

준비해간 치자염색 손수건이 1천장. 행사를 다 마치고 낮을 때 남은 손수건은 150장 정도 압제처럼 한꺼번에 여러 개 가져간 사람도 있을 터이고 열 추추단체들이 모여 셈을 해보니 600명 정도가 왔다 간 듯 하다. 이번 단오축제는 대 성공이다.

엑스트라에서 주연으로, 감독으로

이제까지 복지관 내 지역행사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보조역할을 담당해왔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주변부에 머물렀음은 사실이다.

지역행사를 할 때면 준비작업 일부에 대해서만 보조를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부담도 전혀 없었고, 물론 회의 진행과정에 참여한 적도 없다. 그저 오리고 만들고 붙이는 일거리를 받아서 그대로 하면 그만이었다. 그래서인지 '복지관과 보육시설의 업무는 별개'라 여겼으며 이번 단오잔치 기획팀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손진숙 주임교사는 고백했다.

단오잔치는 그녀가 난생 처음 기획팀에 결합한 사업이었다. 다른 기관들은 서로 왕래도 하면서 안면도 있었지만 손 주임 본인은 왕래도 없었고 행사준비경험도 없었다. 단오잔치 준비가 실무진에서 이뤄지면서 어린이집 대표도 원장이 아닌 주임교사가 맡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못하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도 해낼 수 있었던 건 자신을 믿고 전적으로 일을 맡긴 원장의 신뢰와 자신을 한없이 지지하고 "힘들지?"라며 위로의 한 마디도 시시때때로 건네 주던 동료교사들의 마음 덕분이었다. 또 보육교사인 자신을 배려해 낮잠시간과 퇴근 후로 회의시간을 잡았던 기획팀의 마음씀씀이도 고마움으로 작용했다.

매주 있는 교사회의에서 단오잔치를 논의하고 그도 모자라 간식 먹으면서도 중요한 사항들은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 천연염색마당도 교사회의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자료를 뽑아 결정한 것이다. 교사회의에서 다시 행사에 대해 준비과정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어린이집 동료교사들과 공유하는 것은 어린이집 자체적인 활동 마련도 가능케 했다. 큰 애들을 빼면 단오잔치에 참석하기 어려운 지라 어린이집에서 단오 당일 독자적으로 단오활동을 진행해본 것이다. 행사 준비하면서 단오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었으니 아이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기도 쉬웠다. 창포물에 머리도 감아보고 단오부채도 직접 만들었다. 오후에는 간식으로 썩떡, 수리치떡을 먹었더니 아이들의 반응은 단연 환호성이다.

원장이 아닌 교사가 준비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행사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도 높아졌다. 물론 준비과정에 주체로 참여한 손 주임의 자신감은 날로 살찌고 키가 커갔다. 그 날 인터뷰를 하는 내내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이의 얼굴이 내게 말해줬다. 분명 행복한 추억이었고 즐거운 과정이었으리라. 물론 힘들었던 순간들이 양념처럼 군데 군데 있었겠지만.



잠시잠깐 알아볼 듯 말 듯 스쳐 지나치는 단역배우는 어렵게 외울 대사가 있는 것도, 등장인물의 심리를 한 눈에 알아차릴 만큼의 압도적인 표정연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냥 감독의 신호에 누구는 걷고 누구는 서 있고 누구는 앉아있으면 된다. 그러나 크게 고통스러울 것도 없는 단역배우가 갖는 기쁨은, 영화를 찍는 내내 잠을 못 자 가며 밥을 굶어가며 그 긴 대사를 줄줄이 외우고 그 미묘한 감정을 표정과 몸짓으로 나타내고 수 없는 NG 소리 들 어가며 머리 굴적이던 주연배우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손주임 의 기분이 단역배우에서 주연배우로 지위가 급상승한 자의 기분과 같지 않 았을까.

방아골과 단오축제의 뒷 야그...

방아골 어린이집에서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들과 공동의 행사를 벌일 수 있던 데에는 또 그만한 장치도 있었다.

지역행사로 공휴일에 출근을 할 경우 1일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 방아골 어린이집 복무규정에 당연히 제시되어 있다. 이번 단오잔치도 일요 일에 있었지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1일 휴가를 사용 한 교사의 빈 자리는 보조교사가 일정 부분 메워준다.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방아골 어린이집은 각 반마다 보조교사가 한 명씩 있어서 두 명의 교사가 한 반을 맡는 셈이다. 갑작스런 담임교사의 휴가에 아이들을 전혀 모르는 외부 대체교사가 한 반의 모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늘 보아왔던 보조교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크게 동요되는 바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유리창 청소나 장난감 세척 같은 손 많이 가는 일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중고생들이 와서 해결해주어 교사들이 보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건 이 되기도 했다. 내가 간 그 날도 동방신기 같은 신예가수들의 머리모양을 흉내낸 남학생 둘이 오윤정 원장의 지시에 따라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있 었다.

유난히 할 일 많은 어린이집에서 시설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평소의 활동범위보다 조금 확대된 활동을 하려면 보육교사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분담할 수 있는 체계들이 필요하다. 방아골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서 가능 한 업무 지원체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실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조직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게 되면서 애초 방아골에서 엄두에 두었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아동 중심으로 행사가 치중되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한편 공동주최가 아니었으면 그 깊은 단오의 의미를 어 떻게 살려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작은 것부터 점차 키워가는 것. 행사

주최의 요령이자 네트워크의 주의사항이기도 하다.

다른 보육시설에서도 당장 추석을 앞두고 바로 옆 동네 어린이집과 공동 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한 공간에서 함께 하지 않더라도, 같은 프로그램을 각자의 공간에서 진행한다 해도 고민의 깊이와 활동의 폭 은 훨씬 더해지지 않을까. 그저 교재와 교구를 교환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즐거운 네트워크는 시작된다. 다만 너무 뜨거운 논의 때문에 교사가 한밤중 에 귀가하는 건 파하고 볼 일. 회의 때문에 핸드폰도 꺼냈다가 서울 방학동 에서 안양 신흠집으로 도착하면 밤 12시여서 본의 아니게 남편의 오해와 불 만을 사야만 했다는 손진숙 주임교사의 에피소드가 또 다른 시설에서 반복 되면 아니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2005년 1월호

〈옛 노래와 놀이〉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삶의 환의를! -서한패-

고정미

(회원/한국보육교사회 전통교육연구팀원/아이들과 함께 풍물을 이어가는 사람들 '풍 물재미' 연구원/유아국악강사)



2005.01

12월에 '재롱잔치' 행사를 하는 원은 11월 정도부터는 마음이 조금해지면 서 정해진 작품연습을 반복합니다. "실수도 하고 좀 못해야지 너무 잘하면 그게 아이들인가요?" 하는 선생님(주로 원장선생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 다가도 '어린이들이야 그렇지'만 제일 큰 7살 아이들은 그래도 뭔가 달라 야한다고 생각하시겠죠. 하는 생각에, "재미있게 놀아요", "왜 났 났 똑같은 것만 연습해요, 재미없어요."하는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을 외면하게 됩니 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재롱을 보시며 기뻐하실 그 날을 생각하자"며, 험박 반 달래기 반으로 해서 몇 번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당일에도 잘해주면 참으로 고마운 것이 고, 잘하다가도 당일 작품진행이 잘 안되면 이래저래 속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국악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는 11월쯤부터 쌀쌀해지는 날씨처 럼 몸도 마음도 딱딱 갈라지며 지쳐갑니다. 1년 내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며 수업했던 기억들이 가물거립니다. '전에는 놀던 그대로의 모습을 작품으로 올리기도 했는데, 작은 잔치는 참 재미있는데, 왜 자꾸 커져만 갈까? 기막히 게 예쁜 옷 입고 재롱떠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열광하는 우리들은, 아이들은 진정 행복한 것인가? 이런 큰 무대에 서보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 다고 하는데, 잃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계속어나갈 만한 것인가?



원고를 써야하는데, 12월 내내 머릿속이 어수선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말았네요. 알하시는 분들께 먼저 죄송하며, 글머리부터 어수선한 낱두리를 늘어놓아 읽으시는 분들께도 죄송하네요.

지금의 재롱잔치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부모, 교사)도 다양한 작품을 준비해서, 아이, 어른 모두가 한해의 수고로움을 달래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작은 잔치'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잔치!' '더 작은 잔치!' '더 더 작은 잔치!'

어쨌든 우리 아이들! 하루하루 살아감이 날마다 신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럿이 어울려 놀 수 있는 '수박 따기' 놀이와 '달과 살쥔이' 놀이를 정리해본 후에, 다가오는 '설'에 아이들과 함께 놀만한 것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호에서는 '강강수월래'의 내용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과 살쥔이〉

백가 너무나 고른 살쥔이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뭐 먹을 것이 없냐?' 하고 있다.

이때, 너무나도 맛있게 생긴 달 한 마리를 발견하고, 달을 꼬셔보기로 한다.

살쥔이: "아 달아 너 오늘 참 멋있어 보인다"

달: "나 원래 멋있어"

달의 말을 들은 울타리들이 한꺼번에 "으악"하며 쓰러진다.

살쥔이: "아 너 울타리들이 왜 저러냐?"

달: "글쎄 내가 너무 멋있어서 반해서 그런가?"

살쥔이: "내가 고쳐줄 테니까 네 새끼 한 마리 다오"

달: "그래"

달의 말을 믿고 살쥔이는 쓰러진 울타리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운다.

너무나도 힘든 살쥔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한다.

살쥔이: "다 고쳤으니 네 새끼 한 마리 다오"

달: "싫어"

살쥔이: "아니 나를 속였어 그럼 너를 잡아먹겠다"

달은 도망가고 살쥔이는 잡으러 다닌다.

이때 울타리들은 밤을 들으면 안 된다. 달과 살쥔이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엉덩이를 양옆으로 움직이며 살쥔이는 막고 달은 들어보내고 내보

내주고 하는 것이다. 열 사람과 잡은 손으로 막고 열고 해도 된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놀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달은 왜 도망을 가고 살쥔이는 왜 달을 잡으러 가고 울타리는 왜 쓰러지는지.

더불어 살쥔이가 살고 있는 곳이 가까이 있는 00산이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을 듯하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쥐와 고양이' 놀이이다. '쥐와 고양이' 놀이와 다른 것이 있다면, 달과 살쥔이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점과 울타리가 쓰러졌다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울타리들이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

살쥔이가 쓰러진 울타리를 일으켜 세울 때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이 좋다. 쓰러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간지럼을 태운다든가, 안 일어나려고 버티고 있는 아이는 '아이고 이 울타리는 썩었나보다' 하면서 안아다가 옆 구석에다 옮겨놓을 수도 있겠다. 이처럼 재미없게 느껴졌던 울타리의 역할이 '달'이나 '살쥔이' 역할 못지 않게 재미있고 중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평소에 소심했던 아이가 '달' 역할을 했다가 무서워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소심한 아이는 살쥔이 역할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달이 살쥔이에게 잡혀서 놀이가 끝났을 때, 달을 제일 잘 보호해주고 살쥔이를 제일 잘 막아냈던 울타리가 누구인지 뽑아서 달과 살쥔이를 시켜주게 되면, 울타리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지키게 된다.

연극적인 요소가 있기에 이 '달과 살쥔이' 놀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수박 따기〉

"옛날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저~기~저 산 밑에 있는 밭 한 귀퉁이에다 수박 씨를 뿌리셨대~.

흙을 갈아 얹어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온갖 정성을 다 쏟으셨대. 해님은 알맞게 햇볕을 주시고, 구름은 알맞게 바람과 비를 주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꽃에서 열매가 맺고,.... 그래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몇 일 전에 봤던 무럭무럭 자란 수박이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빨리 그 수박을 드시고 싶으신 거지, 해서 그 날은 수박을 따서 맛을 좀 봐야겠다~ 하신 거야.

고부랑 지팡이를 짚고 고부랑쥔~ 고부랑쥔~ 하시면서 밭에 도착해서는, 수박 따러 왔다! 하시니까 아! 이 수박들이 이 평게 저 평게 대면서 할머니가 수박을 못 따가게 하는 거야.

뭐 이제 거름을 줬대나, 이제 꽃이 피었대나, 이제 주먹만해 졌대나 하면서,.... 할머니가 기운이 빠져서 그냥 집에나 가야겠다 하시는데, 글쎄 다 익



었으니 따라라고 하는 놀이 있었다. 그제 제일 맛있는 놀이 하나 따라라고 하는데 아 다른 수박들이 또 방해하는 거야. 그제 어찌어찌해서 힘들게 수박 하나를 따다가 수박을 맛있게 드셨대~ 너무나 맛이 있어서 수박을 또 따라가셨대~"

'동아(수박)따기'의 전체적인 상황을 옛이야기로 간단하게 들려준다. (정해져있지 않음)

수박을 예로 들어 곡식들이 온전히 자라기까지의 과정을 옛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리세기놀이로 '할머니'와 '수박'을 정한다. (익숙해지기 전에는 선생님이 할머니 역할을 한다)

한 줄로 앉아있는 수박들의 댐 앞에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서있다.

할머니 : 꼬부랑쥬~ 꼬부랑쥬~ 수박 따라 왔다!

수박 1 : 어제 거름줬다! 널모래 와~라

할머니 : 널모래당당~ 널모래당당~ 꼬부랑쥬~ 꼬부랑쥬~ 수박 따라 왔다!

수박 2 : 이제 꽃폈다! 널모래와~라

할머니 : 널모래당당~ 널모래당당~ 꼬부랑쥬~ 꼬부랑쥬~ 수박 따라 왔다!

수박 3 : 이제 주먹만해졌대 널모래와~라

계속진행이 되다가 어떤 수박이 "다 익었다 따라라" 하면 할머니가 댐 앞에 있는 수박부터 맛을 본다. 다 맛이 없겠다고 하다가 댐 뒤에 있는 수박이 제일 맛있겠다 하면서 댐 뒤에 있는 수박을 따라라고 한다.

이때 모든 수박들이 댐 뒤의 수박을 못 따가게 하려고 앞사람의 허리를 꼭 잡으며 앞으로 당겨 앉는다. 할머니는 댐 뒤에 있는 수박을 따라라고 하고 수박들은 못 따가게 하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다.

(실랑이 끝에 할머니가 탄 수박들은 할머니 허리를 잡고 선다. 탄 수박이 한 개 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일 수도 있다.)

아이들마다 여러 가지 평계를 생각해내는 재미가 있고, 놀이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몸다리끼 형식의 놀이로 진행이 되고, 할머니 뒤에 허리를 붙잡고 서있는 아이들이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꼬리잡기놀이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다른 재미를 맛 볼 수 있다.

제일 맛있는 수박을 고를 때도 진짜 수박을 두드리듯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씩 두드리고 맛보고 두드리고 맛보고 하면서 "아이 이놈은 맛이 없겠어"하면서 분위기를 긴장시키다가 제일 뒤에 있는 수박의 머리를 두드

린 후에 냄새를 맡으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이 이놈 맛있게 생겼다!" 하게 되면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게 된다.

〈설에 어떤 놀이를 하면서 놀아볼까요?〉

명절이면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놀이를 조직할 수 있는 힘도 별로 없고, 몸으로 부대끼며 놀만한 장소도 별로 없습니다. 시골이래도 토래들이 없으면 심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수피마켓이나 오락실이나 피씨방이나 들락거리고, 어른들 화투 치는거나 구경해야 하고, 엄마들은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고,.... 복잡하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준비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다소 성의 있는 어른들이 되어봅시다.

놀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어보도록 합니다. 자 빠져봅시다!

비석치기

납작한 돌맹이를 구하기 힘들면(구할 수 있다면, 납작한 돌맹이를 구하는 과정부터 함께 해봅시다. 비석치기보다 비석을 구하는 과정이 더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가까운 목공소에 가서 가로세로 한 10센티 정도의 나무토막을 주문합니다.

놀이의 방법은 새워진 비석을 다양한 방법으로 쓰러뜨리는 겁니다.

쓰러뜨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생략합니다.

공기놀이

마찬가지로 문방구에서 파는 공기도 있지만, 공기놀이를 구할 수 있으면 함께 구해봅시다.

어릴 적 놀았던 실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어떻게 노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놀 마음만 있으면 되겠죠? 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재기치기

예쁜 한지를 준비해도 되고 신문지나 비닐 등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할 수



있겠죠. 500원짜리 동전을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용돈을 주는 것도 괜찮겠
죠. 옛날 업전처럼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와사(?)를 구할 수 있으면 고무줄
이나 실로 따로 묶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철물점에는 별로 없고
볼트를 파는 가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종이는 비닐이든 양쪽 끝을 뾰족하
게 해서 가운데 뚫린 구멍으로 넣어서 빼는 거예요. 양팔을 벌리고 '사랑해
요' 하면서 하트모양을 만들듯 이요...

재기차기 실력 또한 맘껏 발휘하면 좋겠죠!

개인거꾸기를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대어섯 명이 둥글게 서서 "동네"
"제기" "차고" "놀자"하면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차 넘기는 놀이를 해보세
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놀자"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도 기쁜 나머지 큰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발로 하기 힘든 어린 아이들은 손으로 해도 재미있습니다.

이밖에도 실뜨기, 윷놀이, 줄넘기, 긴 줄넘기 (새끼 꼬기를 할 수 있으면
함께 새끼를 꼬아서 만든 줄로 줄넘기를 하면 더욱 재미있겠죠), 연날리기,
딱지치기 등등 바쁘고 힘들고 여유가 없는 명절이라도 조금만 짬을 내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 주셨던 인천 생협 예술 어린이집의 강나래(고교)선
생님께 원고부탁을 못드렸었는데(지난 연말에 감당해내기 힘든 큰일이 있었
거든요), 다행히도 힘들었던 일들이 조금은 정리가 되어서 원고를 써주셨습
니다. 감사드립니다. 큰 상심을 달고 더욱 큰 모습으로 아이들 곁에 우뚝 서
계시는 선생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린이집을 정리하시더라도 가
끔 얼굴 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

2005년 5월호

〈인권보육〉

가르치는 것과 아동인권 침해의 딜레마(1)

서정은/본회 전문위원숙대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회원 여러분, 건강하세요? 서정은입니다.

황사가 심했던 4일이었습니다. 야외활동을 계획했다가 황사 때문에 연기
한 어린이집. 놀이방이 많았을 것 같네요. 얼마 전, 저희 둘째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황사가 심하다는 소식에 봄 소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소풍 하루 전날 내린 이러한 과감한 결단이 당연하게도 여겨졌지만, 한
편으로는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큰 아이부터 둘째아이까지
몇몇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운데, 아동을 중심에 두고 행사나 활동을 고려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 행사나 활동은 부모나
아동의 바램보다 이미 짜여진 연중 스케줄표에서 정한대로 이뤄졌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미 예정된 일이나 강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
들을 생각해서 중간에 일정을 변경한 조치에 많은 부모들이 기뻐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가르치는 것과 아동인권 보장간의 딜레마'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려합니다.

최근 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8세, 9세 두 자매를 체벌한 사건이 있었
습니다. 길가면 네티즌이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린 사진은 여아의 머리에 난
상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상에서 아동의 인권침해를 높
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여론이 빗발쳤구요. 인터넷의 불같은 여론으로 이
미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물론이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진땀을 빼며
당황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인천의 00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과 유사한 상황인
데, 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아동의 지도에 '신체적 처벌'이라는 방법이 사
용됐기 때문입니다. 가게에서 외상으로 빵을 사먹은 두 자매를 어린이집 원
장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처벌입니다. 그렇기에 인천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도 아동학대가 아닌 '교육적 행위'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군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해 노력해 온 대다수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까요?

1. 일반인이 왜 흥분하는가?

성인이 합리적으로 생각한 교육적인 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아동의 신체에 해를 가해더라도 그리하겠다는 생각은, 우리나라의 부모들
은 물론 교육계에서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대구 사건은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사회적으로 체벌이 용
납되고 인정되었던 공간이 아니기에 문제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보육시설
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가정이나 학교와 달리, 보육시
설은 아직 색다르고 낯설은 공간입니다. 또한 그 반면에 일반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가정이나 학교에 비해 문턱이 낮은 공간입니다.

가정내 아동사건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데다, 남의 집 가정사 관



1987.11



여의 측면에 국가도 어찌할 수 없는 미비한 법적 체계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학교는 관료화된 구조와 체계가 교권이라는 법적인 권위와 동반하여 문턱을 높여왔기에 일반인이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공적 체계인 학교와 사적 양육체계인 가정의 중간단계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가정 내 아동 폭력, 학대나 학교에서의 관습적인 체벌에 대한 비판보다 더 강도 높게 비판하고 흥분하는 이유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폭력어린이집', '원장에 구타당한 명투성이 아이' 등의 기사로 야기된 불신은 '보육시설에서 수면제를 먹여요' 등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의 게시물에 눈길을 모읍니다.

이는 2002년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학대 2,946건 중에서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의 폭력이 233건이라는 발표에서 좀 더 분명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판단은 '교육적 행위'로 인정되는 선에서 끝나는 실정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보육시설 내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을 위해 당연히 되었던 행위나 업무 중 일부를 아동학대 사안, 아동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다수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 내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인권과 관련하여 보육시설 등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주목이 앞으로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보육시설내에서 보육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의 논란을 단순히 일부의, 한시적인 문제제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데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2. 일부가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대할 때, 그것은 아동인권에 무지하고 몰상식한 극 소수의 원장과 교사의 자질 문제라고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보육시설 중 극히 일부의 문제요, 나와 내 시설에서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일일이 댓글 달고 반박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되는 질 낮은 일부 보육시설의 원장에서 비롯된 개인적 가치관이나 교육관, 교육철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나 일반인의 '보육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무지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분풀이나 오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일반인 700명, 전문가 303명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88%, 보육전문가의 91.4%가 '주변에서 만족스러운 보육시설을 찾을 수 없다'고 불만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 시설들 대부분이 언제든 아동권 침해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상태인 듯합니다. 불만은 언제든 불거져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나와 내 시설은 무관하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보육계 전반이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일부 보육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계 전반에 대한 책임으로 분명히 인식하는게 필요합니다. 보육시설 내에서 원장과 교사, 학부모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보육시설이 학교인가?

앞서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 나오거나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보육계 사람들의 심기는 매우 편치 못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직업적인 자긍심이나 사기저하라는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써 이러한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은 상상치 못할 정도로 보육계 종사자들의 속마음은 착잡합니다.

보호, 교육의 업무는 물론,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진 자가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데서 오는 '존재의 혼란'입니다. 지난 해 '보육교사 인권교육 워크숍'에서 교사들이 자신을 아동인권의 옹호자이자 가해자라고 인식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학교라는 제도교육이 가진 습성을 큰 고인 없이 보육시설이 이어오는데 있습니다.

만인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수를 통해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데, 그런 체계는 많은 아동들을 수용하고 출석을 강제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종의 구조와 조직을 불가피하게 요구합니다. 그 결과로 체벌, 벌, 자유와 권위 그리고 적절한 사제관계에 관한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인천과 대구의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러한 학교내 쟁점이 장소를 옮겨 보육시설에서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결정 없는 많은 아이들의 수에 비해 좁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하루 종일 머뭙니다. 빡빡한 시간표와 일과구성을 지켜내기 위한 질서와 규칙이 강조됩니다. 교사를 지원하는 체계가 빈약한 상태에서 교사 중심의 보육프로그램과 활동을 합니다. 언어, 비언어적인 통제 메시지에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은 잘 배우기 위해서는 신체(와 정신)의 자유를 억제하도록 주문받습니다. 미리 말썽쟁이들에게는 타임아웃도 하고, 신체적인 벌도 주는 훈육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뭔가 많이 배워내야 하는 교육의 수혜자이자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때려서라도, 때리지는 않더라도 보육시설에서 많은 가르침이



이뤄진다면, 최근 체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학교내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논란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훈육과 체벌, 인권 침해

훈육(discipline)의 라틴어 어원은 'disco'이며, '나는 배운다(I learn)'는 뜻입니다. 즉 훈육 받은 사람은 '배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훈육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규제와 통제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로는 학생들 스스로 학교의 규범과 질서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첫 번째 의미가 훈육의 개념을 대표하며 학교 훈육(school discipline)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질서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통제와 규율과 같은 구속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규율과 규칙은 훈육을 통해 습득되어야 할 어떤 것입니다. 따라서 규율과 규칙은 훈육이라든가 벌(罰)이라는 행위를 창하는 개념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규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1 언어에서의 문법규칙, 과학실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규칙, 수학 논리적 추리의 규칙 등과 같이 교과 자체에 관련된 규칙
- 2 집중, 반복, 연습과 복습, 필기 등의 태도와 관련되는 학습 방법상의 규칙, 즉 무언가를 배우는 방식과 관련된 규칙
- 3 출석, 교정에서의 이동, 비상 조치 등과 같이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달성하게 해 주는 규칙
- 4 차례 지키기, 정직, 남을 괴롭히거나 상처 입히지 않기처럼 3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도덕적 특성을 띠고 있어서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적용되는 규칙, 이는 단순히 학교를 운영하는데 편리한 것일 뿐 아니라, 도덕교육의 일부가 되는 좀 더 일반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은 이러한 규칙을 지키도록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훈육 받게 되며, 훈육 없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인 벌은 위의 3, 4의 규칙을 배우는 훈육과 관련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가, 벌 없는 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규칙을 배우게 되는 경로가 반드시 벌이 아니라는 거지요.

최근 일어난 일은 '의상으로 사먹지 말 것'이라는 규칙을 배우게 하기 위

해 때리는 벌을 사용한 것(대구)이나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규칙을 위해 수세미로 아동의 입을 문지르고 천 번 걸하기라는 벌을 준 것(인천)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마나 많은 보육시설에서 규칙을 배우게 하기 위해 벌을 사용하며, 이것이 인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연구 조사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적발(?)되지는 않았어도 맘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보육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학교를 이상향으로 여기고 달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과 제도를 더욱 완비하는 가운데 꼬맹이들을 어릴적부터 잘 훈육하도록 작은 학교 시스템을 갖추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육시설 운영과 교과운영을 통해 일반인과 부모들에게는 '권위를 지닌 선생님'으로 존경받길 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처럼, 우리들과 영유아의 관계가 본질적, 논리적으로 교육적 관계일까요? 그래서 원장, 교사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교육적 행위일까요? 아니면 다인수 학급에서 일어나는 학생에 대한 체벌이 가진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정행위일까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보육시설은 학교인가요?

누가 제게 답을 좀 알려주지 않겠어요?



2005.07

2005년 7월호

〈함께 생각해봅시다〉

보육활동-함께 생각해봅시다

죽음'에 대하여

윤선영/본회 전문위원,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함께 생각해 봅시다'에 올라온 보육교사들의 고민은 본회 홈페이지 [보육활동상담]에 올라진 글들을 정리하여, 함께 생각해 볼 지점에 대해 윤선영 선생님께서 기고해 주시는 글입니다. 상담내용에 있는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하였습니다.

Q "둘째아이를 기다리던 중 잘못되어서 배속의 아이를 잃어 버렸습니다. 저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이제 어느 정도 추스렸는데... 동생을 많이 기다리던 5세된 아이(큰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 주어야 적당한 대답이 되는지 아직도 답을 찾



지 못해서 궁금해 하는 많은 질문(아기는 언제 태어나? 입만 뜨거운 거 먹으면 아기가 뜨겁다고 하지? 애기 태어나면 내가 잘 돌봐 줄게...)에 아무런 말을 못해주고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몰래 감추기만 합니다. 이 상황과 현실을 어떤 방법으로 아이에게 전달해야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잘 이해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Q 어제 저녁에 여섯 살 먹은 아들이가 저에게 자기가 죽으면 아빠 옆에 '심어' 달라고 하더군요. "왜?" 했더니 "만나게"라고 무심하게 대답하더라구요. 아이 아빠는 아이가 돌 되던 해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짐짓 모른 채하면서 "심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묻는다고 하는 거야"하고 얼버무려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죽음에 대해 아빠에 대해 묻는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죽음에 대한 질문은 질문하기 어려운 정도에 비하면 사실 매우 간단하고 쉬운 주제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죽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일단 거부하거나 피하고 또는 거짓말로 얼버무리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죽음을 통해 경험하는 슬픔 때문일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결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포기하는 마음으로 무겁게 아쉬워하며 그 슬픔은 사실 견디기 힘들기도 하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인들에게 해당하는 감정입니다.

죽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이 없는 삶은 없고, 생명을 가진 것은 항상 죽음과 소멸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은 마치 봄이 되어 새싹이 돋아다가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 땅속으로 저 버리는 식물과도 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설령 그 식물이 자연재해나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일찍 꺾여 버린다 해도 그 역시 생명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명 역시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슬퍼하는 마음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우리 성인보다 훨씬 우주의 섭리에 가까운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만일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련이가 경험한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마가 가족의 한 사람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면, 어린이는 엄마의 슬픔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린이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성인이 슬퍼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슬픔은 곧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 앞에서 너무 큰 슬픔에 빠

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죽음의 사건을 경험한 한 유아가 놀이에서 죽음을 표현하기를, 두 집단을 만들어 놓고 한 집단(가족)의 한 사람이 죽자, 다른 집단으로 보내고, 그곳에 있다가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아기가 태어날 때) 오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죽음도 삶의 일부이고 머무는 곳만 다를 뿐입니다. 자신이 엄마, 아빠를 만나 살기 위해 태어났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하여 '엄마, 아빠가 만나 난자와 정자가...' 하면서 너무나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엄마 아빠가 만든 것 이상으로 아이가 이 세상에 찾아왔다는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죽은 동생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면 슬픔을 앞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네 동생은 세상에 나오기 싫어 다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와?" 하고 묻는다면 "그야 그 아이가 오고 싶을 때 다시 찾아오겠지".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연령이 어떤 연령이라 해도 우리 성인들은 성인 중심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해주면 됩니다. "미국에 갔다"든지 하며 거짓말로 얼버무리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크면 죽음에 대하여 불필요한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발도르프교육을 창시한 슈타이너는 생명의 과정을 순환적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달이 꼭 찼다가 그믐달이 되어 소멸되고 다시 초승달 그리고 반달, 온달이 되듯이, 봄이 다시 돌아오듯이, 꽃씨가 자라 꽃을 피우고 쪼갬다 다시 꽃씨가 땅에서 뿌리를 내리듯이, 인간도 세상의 삶을 살고 다시 정신의 세계에 돌아갔다가 또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의 몸을 가지고 땅의 삶을 사는 순환적 반복적 삶을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은 삶의 주체인 '높은 자아' 즉 '개별성'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의미는 자신의 삶의 동기를 실현하고자 함이며, 지금의 삶을 통해 그리고 다시 다음의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면서 자신만의 생명의 의미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으며, 죽음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래 고대 기독교에서는 순환적 사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시간의 흐름을 일직선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순환적 의식을 소멸시켜 버렸다고도 합니다. 순환적 반복적 삶에 대한 인식은 종교적 입장을 떠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준다는 점에서 저는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음의 삶을 위한 준비로 생각한다면 힘이 나



다시 보는 우리네아이들

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경우 비장애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하고 더 긴밀한 삶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그들은 다음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의 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장애인으로부터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종종 배우고 있습니다. 흔히 장애인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들로부터 더욱 긴밀한 삶을 배우곤 합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이 성인의 경우 너무 감정에 치우친 면이 있다면, 어린이는 진실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우리가 진정 느낄 수 있다면, 어린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은 성인이 언제인가는 극복해야 할 숙제일 뿐입니다. 극복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성인 스스로 찾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지금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로도 없는 우리네아이들의 원고정착을 한 번도 미디하지 않고, 늘 성실하게 함께 해주신 모든 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발간된 우리네아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www.kdta.or.kr



활동일지

- 11월8일 2006년 보육예산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팩스로 발송하였습니다.
- 11월9일 국회여성위원회 2006년 보육예산검토회의를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방청하였습니다.
- 11월11일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검정위원회 회의에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11월14일 한국보육교사회 10년활동 전망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 11월18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사실태조사 자문회의에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11월19일 2005년 한일보육교류연수 평가회의가 전남보성에서 있었습니다.
- 11월24일 한국보육교사회 10년활동 정리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녀 황미혜 이강선주가 참석하였습니다.
- 12월1일 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12월2일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검정위원회 회의에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12월10일 한국보육교사회 전망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 12월13일 사회 양극화 부추기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 허용을 반대 기자회견에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12월19일 한국보육교사회 전망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 12월22일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돌봄의 보육철학 출판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 2006년1월9-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서은희공동대표와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2006년1월15일 한국보육교사회 제10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 1월25일 한국여성단체 연합 상임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1월2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사실태조사 자문회의에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2월6일 한국보육교사회 10년활동 자료집 원고검토회의를 가졌습니다. 남미영, 이기원, 이운경, 오운정, 박인혜, 이경녀, 황미혜, 이강선주가 참석하였습니다.
- 2월9일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돌봄의 보육철학 출판에 대한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 2월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회원발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 2월15일 여성평화의집 정기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발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 2월24일 한국보육교사회 댕을자리가 느티나무카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2월24일 한국보육교사회가 발행하는 '돌봄의 보육' 이 교육문화사에서 출판예정입니다.
- 2월24일 한국보육교사회 10년 활동자료집 발간 예정입니다.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28일부터 2006년 2월9일까지 입금분입니다.)

〈후원금〉

강영신 3만원 서은희 40만원

〈후원회비〉

오선영 12만원	최순옥 15만원	조인숙 15만원	김은주 15천원
신주영 15천원	김진명 15천원	이미정 15천원	김숙희 15천원
이정남 15천원	백선희 1만원	주로미 1만원	신아령 1만원
한상원 1만원	한만우 2만원	이지수 2만원	전정옥 2만원
이준구 2만원	박정애 2만원	박영미 36천원	오운정 3만원
조선경 3만원	오영숙 3만원	김정운 3만원	김경인 3만원
김동현 3만원	하운하 3만원	신현미 3만원	박선하 3만원

김명미 3만원	장혜자 3만원	김영옥 3만원	최영신 3만원
이미화 3만원	김영화 3만원	양은희 3만원	정승희 3만원
정영학 3만원	김심환 3만원	송순우 5만원	김종원 6만원
이현경 6만원	남명자 6만원	김수애 6만원	김민정 6만원
오경숙 6만원	유희정 6만원	이옥 6만원	안명희 6만원
정승희 6만원	권혜진 9만원	김세희 9천원	조창식 5만원
세쌍둥이어린이집 40만원			

그동안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해 주신 후원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관심은 우리나라 보육 발전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2월25일을 마지막 출금으로 더 이상 인출되지 않습니다. 관련한 모든 자료는 삭제되고 폐기될 것입니다. 회비 출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kdta2006@hanmail.net으로 문의 바랍니다.



편·집·후·기



그간 발행된 우리네아이들 표지

한국보육교사회가 오는 2월을 마지막으로 해산함에 따라 우리네아이들도 이번 호로 마감호를 냅니다.

그동안 우리네아이들에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 우리네아이들을 함께 읽으며 보육현장을 좀 더 살만하게 만들고자 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네아이들과 오랜 인연을 가지고 편집 작업에 함께해주신 김희정님과 인쇄소 규장각에 감사드립니다.

교사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 여성평화의집 2층 (우) 120-012
☎ | 0505-362-8568 FAX | 0505-362-8569
e-mail | kdta2006@hanmail.net
홈페이지 | www.kdta.or.kr